

2006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사례보고회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상담 활동을 중심으로

일시: 2006년 5월 27일 토요일 오후 두시

장소: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

2006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사례보고회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상담 활동을 중심으로

차례.

page4 들어가는말: 내담-상담 사례를 통해 본 레즈비언 권리문제

page8 함께 준비한 사람들

page9 상담활동소개

page11 관련 용어 정리

page17 2005/4-2006/3 상담 통계

page21 주요 내담-상담 사례

page106 전화를 통한 정기 상담 사례

page110 상담원의 고민들

page115 모 상담원이 정리한, '함께 생각해 봐요!'

page121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page124 2005 활동가 집단 상담

page129 단체 소개/상담 안내/회원 가입 안내/후원 안내

* 부록1.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카드

* 부록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연혁

◎ 들어가는 말

내담-상담 사례를 통해 본 레즈비언 권리문제

상담소로 접수되는 하나하나의 내담 사례들은 저마다 레즈비언 권리문제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한 것이든, 교제 관계에 대한 것이든, 폭력의 피해에 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건 한 건의 사례는 상담원들에게 무척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아마 사례 하나를 접할 때마다 끈질긴 운동을 통해 바꿔 가야할 현실의 문제들을 새삼 깨닫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사례들이 답변 한 번 해 주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현실의 문제들은 내담자들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상담원 자신의 괴로움이기도 하기에 우리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일 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담-상담 사례들을 통해 본 레즈비언 권리문제의 몇 가지 주제들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수된 내담 사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정체성 고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동성애’가 비정상이고 비윤리적이며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또렷이 드러내주는 점이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괜히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과연 이렇게 동성의 상대를 좋아해도 괜찮은 것일까’, ‘한 번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면 평생 동성의 상대만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 ‘내가 남자 같아서 여자에게 끌리는 건 아닐까’, ‘그 아이가 남자 같아서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면 이상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동성애를 이상하고 변태적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는 탓에, 스스로에게 최소한 한 번쯤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종류의 질문입니다.

동성애가 별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받지 않고,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이끌림의 형태로 인정받는 사회를 한 번 가정해 볼까요. 아마도 이런 사회에서라면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는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이 착각인지 아닌지, 이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건지 아닌 건지 등에 대해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직, 어떤 동성 친구 앞에서 어쩐지 두근거리는 사람이 그런 자신에 대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회이지요.

동성애자들의 친목 커뮤니티는 피씨 통신 시절부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쳐 왔습니다만,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단 말인가.’, ‘대체 어떻게 해야 나 같은 사람을 만나 볼 수 있는 것인가.’, ‘외로워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지만 못내 꺼려진다.’ 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내담자들의 연령대도 천차만별입니다. 십대 초반의 청소년들로부터, 오십대 이후의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질문을 해 오죠. 이들에게 상담원 자신을 비롯하여 당신과 비슷한 사람은 대단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혼자라고만 믿었던 생각이 깨지는 데서 오는 당혹스러움과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데서 오는 반가움이 뒤섞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성정체성 고민’과 ‘관련 정보 문의 내담’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이 시사해 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레즈비언 정체성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모두가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 할 거라는 생각, 나만 이렇게 이상할 거라는 생각 등이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끝없이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자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속마음을 털어놓기는커녕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조차 겁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려 해도 고백이 곧 커밍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끄끙 앓고 있다는 사람들의 내담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요즘 동성애자들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통해 극장에 걸리는 일도 잦아졌고 동성애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동성애자들로서는 그리 크게 달라진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로 규정하고 그 점을 긍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여성들도 고립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쳐 올 편견어린 시선과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커밍아웃하지 못하니까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시나 동성애자임을 들킬까 숨죽이고 살아갑니다. 차별과 폭력의 희생물이 되고, 선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의 대상으로 전락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커플이 되어도 그 교제 관계를 남들에게 드러내기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개인이 고립되건, 커플이 고립되건 문제가 심각한 건 마찬가지죠. 우선, 개인이건 커플이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됐을 때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커플일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인데 무엇이 문제이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고립된 동성 커플의 경우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안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탓에 여느 이성커플보다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교제의 행복,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의 아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솔하게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는 갑갑함 등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오래 흘러가다 보면 커플은 더 쉽게 위기에 봉착하게 마련이니까요. 워낙에 이성 커플 관계에 대한 낭만화 된 모델들이 난무하는 것에 비해, 동성 커플의 관계에 대한 교제의 모델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관계 자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조차 녹록치 않은 일이죠. 내면화 된 호모포비아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교제 관계에 대해 회의하게 만드는 문제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동성 커플이 그간의 사실혼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동성애자의 가족 구성원이 보장되

지 않는 사회이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바로 사적인 관계망과 공적인 제도망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는 레즈비언들이 겪게 되는 차별이자 고통입니다.

내담자의 대다수가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하하게 되어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고 호소해 오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십대는 십대대로 성인의 통제를 받는 시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성정체성 고민을 하며 어디에도 기댈 곳 없어 괴로워하고, 이십대는 이십대대로 소위 우리 사회의 결혼 적령기라는 것을 전후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에 괴로워하지요. 삼사십대를 넘어가는 연령대의 레즈비언들의 경우는 수십 년간 고립된 채 철저히 자신을 가리고 살아온 세월을 돌이키며 회한에 잠기기도 하고, 오랜 세월 함께 해 온 파트너와의 이별에 크게 충격을 받고 곳곳이 생활을 이어나가길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파트너 사이에 폭력이 발생해도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겁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나를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력을 행사해도 그런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아우팅을 당하게 될 것을 더 무서워하죠. 게다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레즈비언들은 지역이 좁을 수록 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겪게 될 일을 더욱 두려워하곤 합니다.

기혼자들의 고충도 심각합니다. 참고 살겠노라 마음먹고 남성과의 결혼을 감행한 레즈비언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에 대한 갈망을 안은 채 살아가며 억지스런 결혼 생활을 못 견뎌 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남성과의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도 자신의 삶에 찾아든 성정체성 고민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암담해 하지요. 전자의 경우, 이성 결혼만을 성인 여성이 따라야 할 당연한 삶의 수순으로 강제하는 사회의 횡포에 고통을 받는 이들의 사례라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역시, 동성애라는 이끌림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성애 중심적 사회의 통념에 의해 무거운 삶의 짐을 어깨에 얹고 살아가게 되는 이들의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언급한 경우들은 모두 우리가 주위의 레즈비언들로부터 흔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례이면서 동시에 슬하게 접수받는 내담 사례이기도 합니다. 수치로 환원할 수 없는 생생한 고민과 아픔들이죠. 우리 사회가 레즈비언들이 살아가기에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되기 위해서 변화해야만 하는 것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도 교육의 커리큘럼부터가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며, 정부 및 검경 등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들부터 앞장서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을 습득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 매체에 동성애자들이 그려지는 방식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동성애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죠. 동성애자들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반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색돼

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일일이 거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게 레즈비언 권리문제일 겁니다.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항 한 가지 외에는 아직 아무런 국가적 권리 보장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깐요. 동성애를 비정상 취급하는 고정 관념이 예와 다를 바 없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보고회 자료집이 읽는 이에게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는 조그만 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야 우리가 덜 외로울 수 있니깐요. 함께 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운동은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소액의 후원이나 한 문장의 격려의 말부터 시작해 주세요. 가슴 뛰는 사람,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성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삶을 위협받는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27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

◎ 함께 준비한 사람들

2005년 한 해 동안 상담원으로 활동한 활동가들.

공지훤(지훤)
 조이가현(휘린)
 시로(2006년 1월까지)
 박김수진(박통)
 이해원(2006년 1월까지)
 김김찬영(나루)
 김윤서이(케이)

*2005년 여름, **집단상담**을 진행해 준 활동가: **루**

2006년 현재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명개

이신정연(원영)
 선우유리(유리)
 김김찬영(나루)
 김윤서이(케이)

그 외, 수많은 회원들과 다른 팀원 활동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내담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점점 더 씩씩하게 살아요!”

◎ 상담 활동 소개: 상담, 어떻게 하고 있나?

1. 전화, 게시판, 이메일, 면접 상담

전화 상담

- 상근 간사들이 담당한다.
-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담 접수(전화가 걸려온다) -> 통화 상담(25분-35분) -> 후속 상담(다음 통화를 약속하거나, 면접 상담을 권한다. 정기 상담을 권할 수도 있다. 내담자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및 기타 조치(사건 신고일 경우나 내담자가 제도적 대응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관련 자료를 검색한 뒤,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 카드 기록 -> 통계

게시판 상담

- 상담 활동가들과 상근 간사들이 요일별로 나눠서 담당한다.
-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담 접수(게시판에 글이 올라온다) -> 게시판 상의 상담(답변 글을 달아준다. 보통 만 하루 이내. 연휴나 주말에는 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다.) -> 후속 상담(전화 상담, 혹은 면접 상담을 권한다. 정기 상담을 권할 수도 있다. 게시판 상에서 상담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내담자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및 기타 조치(사건 신고일 경우나 내담자가 제도적 대응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관련 자료를 검색한 뒤,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다급한 상황일 경우 전화 상담을 강력히 권한다.) -> 상담 카드 기록 -> 통계

메일 상담

- 상담 활동가들과 상근 간사들이 요일별로 나눠서 담당한다.
-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담이 메일로 접수된다는 것 이외에는 게시판 같다.

면접 상담

- 상담 활동가들과 상근 간사들이 면접 상담의 내용에 따라 팀을 이루어 한다.
-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화, 게시판, 메일 상담이 면접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전화, 게시판, 메일을 통해 바로 면접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1차 상담부터 면접 상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상담은 상담소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한 사례 당 한 시간 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2. 사건 지원

상담팀과 사건지원팀이 협력해서 한다.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내담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경찰 조사시 출석 동행을 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 사건지원팀의 평상시 주요 업무는 경찰과의 연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3. 상담소 상담 활동의 기본 원칙들

● 게시판과 메일은 만 하루 이내에 답변한다는 원칙을 최대한 지킨다. 연휴와 주말이 끼는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해 주어야 절박한 마음으로 어렵게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이 기다리다 지치거나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잠금장치까지 해서 올렸던 글을 지워버리는 내담자들도 있는 만큼, 신속한 답변은 필수적이다. 내담자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담원이 뺏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 상담원의 개인 정보를 내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줄 필요가 없을뿐더러, 자칫 상담원의 정보가 새어나갔다가는 상담원 본인이 아우팅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드시 상담원들끼리 서로 간의 상담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상담팀 회의 시간과 세미나 시간을 이용하여 상담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상시적으로 상담 수퍼비전을 진행한다. 내담-상담 사례를 상호 모니터링해서 좀 더 효과적인 상담 방법을 찾아 나간다. 이러한 수퍼비전은 이후 상담소에서 개설하게 될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양성 과정’의 커리큘럼에 반영될 것이다.

● 내담자의 신상정보 및 신상정보가 드러날만한 내용을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상담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4. 상담 카드 및 월별 통계표 작성하기

권말 부록1: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 카드

5. 기타

세미나(레즈비언, 여성주의, 법률, 상담 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한다.), 십대만나기(십대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며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씬터설문하기(가출 청소년 씬터에 십대 이반 관련 설문을 한다. 씬터와의 연계를 모색한다.),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과정 준비, 등

◎ 용어 정리

동성애/동성애자

동성애란 동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말합니다. 동성

애자는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으로 이끌리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 중에, 이러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 한 사람을 뜻하지요.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 한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성적체성은 본인만이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성애/양성애자

양성애란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동성의 상대 혹은 이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양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 중에, 자신을 양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하고요.

레즈비언lesbian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정서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여성을 말합니다. 여성동성애자를 의미하지요. 물론 어떤 여성이 레즈비언이나 아니냐는 본인만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이끌림을 느낀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친 여성들만이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레즈비언이라는 말은 그리스 에게 해海의 레스보스Lesbos 섬에서 유래했습니다. 최고의 그리스 여성 시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고대 시인 사포Sappho는 동성애자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녀의 활동 근거지가 바로 이 레스보스 섬이었다고 해요. 레즈비언이라는 말은 이렇듯, 레스보스 섬의 사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여성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이gay

게이는, 여남 동성애자를 모두 아울러서 뜻하는 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사실 이건 워낙 서구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게이하면 남성동성애자, 레즈비언하면 여성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쓰이고 있으니까요.

게이라는 말은 본디 영어 단어로써, ‘즐거운, 유쾌한, 기쁜, 행복한’ 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서구에서 여성인권운동, 흑인민권운동과 더불어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게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했지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긍정하기 위한 낱말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모포비아

호모포비아homophobia는 동성애에 대한 공포증을 뜻합니다. 혐오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막연하게 동성애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지

요.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턱대고 동성애자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보여 주는 증상이 바로 호모포비아적 증상입니다.

호주의 의학계에는 바로 이 호모포비아를 정신질환 목록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1970년대에 이미 삭제되었긴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성애 자체가 미국의 정신질환 목록에 올라있었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호주의 이런 움직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는 동성애는 정신병이며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인 한국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척 부러운 움직임이죠.

사실 우리 사회는 호모포비아를 양산해 내는 사회입니다. 이성간의 이 끌림, 사랑, 교제, 성관계, 결혼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 동성애자는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돌연변이 내지는 머리에 빨이라도 달린 괴물인 것처럼 취급되고요. 그러다보니 동성애자들 본인조차도 자기 안의 호모포비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사회 환경으로부터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깊은 호모포비아를 가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부터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과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태어난다는 것 말입니다.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만 계발되는 환경이다 보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 그러니 부자연스럽거나 비정상인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건, 호모포비아입니다.

기억했나요? 그럼, 이제부터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을 탐색해 나갑시다. 국내에는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괜히 두려웠던 것이예요! 동성애는 사탄의 죄 따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끌림일 뿐이며 동성애자는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단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호모포비아를 부수어 나가는 여정은 길고 험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을 의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밍아웃

‘커밍아웃’이란 ‘벽장으로부터 나오다(coming out of closet)’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줄임말입니다. 나의 존재를 가두고 있던 벽장으로부터 나와,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 대사회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각각의 행위 모두를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간주되는 이 사회에서는 어떤 이성애자도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굳이 밝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非)이성애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동성애자들에게는 엄청난 억압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항상 이성애자인 척 가면을 쓰고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울 정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써 긍정하는 일, 남에게 나의 성정체성을 알리고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 등은 동성애자들의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충분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죄의식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데서 혹은 남에게 나를 온전히 드러내었다는데서 오는 해방감과는 별개로, 많은 경우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이유 없는 불이익과 피해가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동성애자임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의 성정체성을 매개로 나에게 해(害)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나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줄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부터 천천히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우팅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과는 달리, ‘아우팅’이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성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성애자도 누군가가 자신의 이성애자 정체성을 ‘폭로’할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으로 규정되는 사회니까요. 이러한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는 동성애자 정체성을 ‘약점’ 혹은 ‘숨겨야 하는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참으로 어이없게도, 동성애자라는 사실 하나가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제 3자에 의해 밝혀졌을 경우,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우팅을 당한 개인은 굉장한 당혹감과 함께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십상이지요. 이를 이용한 혐오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의 인생에 족쇄를 채우는 사회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성애 혐오와 억압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현 사회에서 아우팅이란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니만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male to female transgender/female to male transgender

트랜스젠더란 신체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하거나(FtoM : female to male),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MtoF :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모두 *성확정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 (2006년 5월 현재) 에서는 아직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적상 성별 정정의 경우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고 이루어졌던 전례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인권운동단체 및 정당에서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 지렁이>라는 단체도 결성이 되었고요.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1월, 성전환수술에 국가적 보험 적용을 할 것과 오해와 편견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적상 성별 변경을 용이하게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국민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범국가적인 기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술을 통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에 맞는 신체를 갖추는 것이기에 성전환수술보다는 성확정수술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성애/이성애자/이성애주의

이성애란 이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애자란 이성의 상대에게 끌림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정체성을 이야기함에 있어,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등은 바로 그 자신만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주거나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에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확률과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확률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 중에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는 각자가 다를 테겠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일 가능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탐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이성인 상대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하며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옳고 자연스럽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성애만이 존재하며 그것이 정상이고, 동성애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비정상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 체제 등이 바로 이성애주의입니다.

최근 이러한 이성애주의는 여성운동 등의 여러 사회운동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의 관점에서는, 이성애주의가 동성 간의 사랑과 친밀함, 유대관계를 배제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별 분리를 강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이성애주의는 여성과 남성이 맺는 관계 속에서 성역할을 완전히 구분 짓고, 이러한 여성성과 남성성은 위계를 갖게 되죠. 이성애주의는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에게 기대게 하고 남성의 사랑을 갈망하게 하며, 결혼을 통해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성애로 대표되는 낭만적 사랑과 이에 대한 신비화, 결혼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결합 등은 어느 시대에나 같은 방식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통한 장기간의 일부일처제는 근대 서구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성애가 자연의 섭리이고, 이성에게 끌리고 오래도록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주의는 아주 견고하여, 이성애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성찰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성애가 아름답고 정당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믿음은 특히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 의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은 낭만적 이성애에 감동 받고 매료 당합니다. 이성과의 사랑이야말로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사랑의 완벽한 결실을 맺는 것으로 믿게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과 사랑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삶이 불행해지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그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 자체로 소중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과 교제의 기간이 길었다거나, 혹은 교제가 사회적으로 용인 받았고 상대와 합법적으로 가족을 이루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교제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하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삶이란, 사랑의 요소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요소와 조건들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부분의 이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이성애자라는 점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타인의 사랑 없이도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세상은 이성애만이 옳고 전부인 세상이니까요. 이것은 동성애자 뿐 아니라 이성애자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상담소의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자는 자신에 대한 여러 고민과 탐색을 거쳐 ‘정체화’ 하지만, 이성애자는 그저 ‘사회화된다’고요.

이성애주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신을 탐색할 기회, 동성/이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대감 깊고 친밀한 여러 경험을 자신 안에서 의미 있게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고,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선택은 존중 받아 마땅하고요. 이성애주의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를 힘들게 하며, 특히 동성애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이성애주의를 깨나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2005 - 2006,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 통계

2005년도 : 4월-12월

2006년도 : 1월-3월

<표1> 상담 방법

<표1-1> 2005년도 상담 방법

상담 방법	명	(%)
전화	89	17.6
이메일	123	24.4
게시판	286	56.6
내방	6	1.2
기타	1	0.2
계	505	100

<표1-2> 2006년도 상담 방법

상담 방법	명	(%)
전화	27	15.1
이메일	53	29.6
게시판	95	53.1
내방	4	2.0
기타	0	0
계	179	100

<표2> 내담자 성별

<표2-1> 2005년도 내담자 성별

성별	명	(%)
여	446	88.3
남	38	7.5
F to M	5	1.0
M to F	4	0.8
알 수 없음	12	2.4
계	505	100

<표2-2> 2006년도 내담자 성별

성별	명	(%)
여	161	89.9
남	11	6.1
F to M	1	0.6
M to F	1	0.6
알 수 없음	5	2.8
계	179	100

<표3> 내담자 성정체성

<표3-1> 2005년도 내담자 성정체성

<표3-2> 2006년도 내담자 성정체성

성정체성	명	(%)
레즈비언	202	40.0
게이	1	0.2
양성애자	16	3.2
이성애자	37	7.3
고민 중	170	33.7
알 수 없음	79	15.6
계	505	100

성정체성	명	(%)
레즈비언	76	42.5
게이	2	1.1
양성애자	6	3.4
이성애자	11	6.1
고민 중	67	37.4
알 수 없음	17	9.5
계	179	100

<표4> 내담자 나이

<표4-1> 2005년도 내담자 나이

나이	명	(%)
10대	125	24.8
20대	151	29.9
30대	40	7.9
4-50대	14	2.8
알 수 없음	175	34.6
계	505	100

<표4-2> 2006년도 내담자 나이

나이	명	(%)
10대	58	32.4
20대	53	29.6
30대	16	8.9
4-50대	10	5.6
알 수 없음	42	23.5
계	179	100

<표5> 내담자 혼인여부

<표2-1> 2005년도 내담자 혼인여부

성별	명	(%)
비혼	257	50.9
기혼	23	4.5
이혼	3	0.6
알 수 없음	222	44.0
계	505	100

<표2-2> 2006년도 내담자 혼인여부

성별	명	(%)
비혼	65	36.3
기혼	8	4.5
이혼	0	0
알 수 없음	106	59.2
계	179	100

<표6> 상담 내용

<표6-1> 2005년도 상담 내용 *복수표기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177	35.04			
커밍아웃	20	3.96			
가족관계	55	10.89			
친구관계	37	7.32			
교제관계	191	37.82	파트너 관계	52	27
			기타	139	72
종교	4	0.79	기독교	4	100
성폭력	17	3.36	동성간성폭력	9	53
			이성간성폭력	7	41
			기타	1	6
가정폭력	17	3.36	기존 가족 내의 폭력	11	65
			동거 파트너 간의 폭력	4	23
			기타	2	12
스토킹	6	1.18			
아우팅	13	2.57	고의적 아우팅	7	54
			무고의적 아우팅	1	8
			기타	5	38
아우팅 매개범죄	21	4.15	협박	12	57
			금품갈취	3	14
			폭행	2	10
			성폭력	4	19
협오범죄	20	3.96	협박	3	15
			폭언	7	35
			폭행	4	20
			따돌림	4	20
			기타	2	10
성	41	8.11			
관련정보문의	48	9.50			
기타	106	20.99			
계	773/505	153			

<표6-2> 2006년도 상담 내용 *복수표기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65	36.31			
커밍아웃	6	3.35			
가족관계	24	13.40			
친구관계	15	8.37			
교제	37	20.67			
고백	4	2.23			
짝사랑	25	13.96			
이별	20	11.17			
종교	2	1.11	기독교	2	100
성폭력	4	2.23	이성간성폭력	4	100
기존 가족 내의 폭력	2	1.11			
교제 관계 내의 폭력	12	6.70	가정 폭력	2	17
			데이트 폭력	7	58
			기타	3	25
스토킹	1	0.55			
아우팅	8	4.46	고의적 아우팅	7	88
			무고의적 아우팅	1	12
아우팅 매개범죄	17	9.49	협박	12	71
			폭행	5	29
협오범죄	7	3.91	폭언	2	29
			폭행	1	14
			따돌림	3	43
			괴롭힘	1	14
차별사례	1	0.55			
커뮤니티 내 폭력	1	0.55			
성	17	9.49			
우울증	5	2.79			
관련정보문의	23	12.84			
기타	28	0.15			
계	324/179	165.39			

◎ 주요 내담-상담 사례

모든 내담-상담 사례는 철저한 각색을 거친 것입니다.

1. 성정체성

1-1 나는 레즈비언인가요?남자를 싫어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내담 안녕하세요. 올해 스무살이 된 여자입니다. 레즈비언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생겼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제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저의 성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지요. 일단 제 경험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두근거리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그랬어요. 말하자면 첫사랑이 동성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이후로 제 자신이 정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 건가 하는 의문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이는 벌써 20살인데, 아직까지 좋아해 본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그 여자에 한명 뿐이었습니다. 남자를 좋아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남자는 싫습니다. 웬지 불쾌한 존재들 같아서요. 어쩐지 남자라면 다 저질같고 잔인해 보이고 이중 인격일 거란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남자는 무섭습니다.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 존재들 같아서요. 술먹고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지거리를 하는 남자들이, 저는 싫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나 집안의 남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왜 남자를 싫어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과연 레즈비언이 맞는 걸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상담 요청 잘 해 주셨어요. 남에게 털어놓기 그리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지요? 저희 상담소에 대한 기사가님의 눈에 띄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상담원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상담 요청 해 주신 것에 대해 격려부터 보내드리고 싶네요. 우리 지금부터 같이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가보도록 해요.님이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자 이제까지 유일하게 호감을 느꼈던 사람이 여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도 남자에게는 호감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다가, 모든 남자들이 다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너무 싫으시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아버지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본인이 왜 이렇게 남자를 싫어하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해 주셨네요.

고민이 무척 많이 되시지요. 내가 유일하게 호감을 느꼈던 상대가 여자였다. 나는 왜 하필이면 여자에게 그런 호감을 느꼈을까. 왜 남자라면 무조건 무섭고 싫기만 할까. 내가 남자를 싫어하다보니 여자만 좋아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자 지금껏 유일하게 좋아해 본 사람이 여자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레즈비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한꺼번에 뒤섞여 남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었어요.

상담원은 남에게 우선, 본인의 성정체성은 본인만이 규정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상담원이라고 해서 남의 성

정체성이 어떤 것이라는 식으로 대신 진단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럴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신 뿐이니까요. 즉, 성정체성이란 남들이 대신 판단해주거나 규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 이라고 규정해야 하는 것이예요. 이 때 내가 레즈비언인가 아닌가 하는 건, 자신이 여성에게 이끌렸거나 여성과 사귀었던 경험 혹은 앞으로 여성에게 이끌릴 것 같은 예감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어요.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하여 이러한 경험을 자신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된다면, '아,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 로서 자신을 규정내리는 것이 바로 자신을 '레즈비언' 이라고 정체화 하는 과정이지요.

하지만 이와 달리, 여성을 좋아하는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그리 강렬하게 와 닿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단지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비슷한 경험이라도 사람마다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했거나 여자와 교제해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레즈비언인 것은 아니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자를 좋아하고 있거나 여자와 사귀고 있는데 예전에 남자를 좋아했거나 남자와 사귀어 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양성애자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라는 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전에 남자를 만나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성에게 이끌리는 자신의 감정과 여성과 교제한 자신의 경험이 그렇게 예전에 남자를 만났던 경험보다 자신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경험으로 다가온다면 이 때는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성 의 상대에게 이끌리는 경험과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는 경험이 둘 다 자신에게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 때는 스스로를 양성애자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님의 마음은 현재 어떠한 상태에 가까운지, 천천히 탐색해 나가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는 감정과 동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욕구 자체를 본인 스스로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워낙 여성과 남성간의 사랑과 교제와 성관계와 결혼만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성의 상대에게 우정과는 또 다른 연애감정으로써의 호감을 느끼고 동성의 상대와 교제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느낌이자 경험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이랍니다.

그러므로 정체화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이끌림과 자신이 애인과 교제한 경험 등을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레즈비언인가 아닌가 양성애자인가 아닌가 하는 규정은 천천히

내려도 괜찮은 거랍니다. 서두르시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더욱이, 사람의 성격체성이라는 건 평생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변화할 수도 있는 유동적인 것이므로, 하루빨리 서둘러 확정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이 이끌리는 상대가 누구인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며 생각을 정리해 나가보세요.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점점 선명하게 떠오를거예요.

그럼 이제 님이 갖고 계신, 남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상담원은 그러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결코 부자연스러운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정말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으니까요. 님의 친인척 중에 그런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남성들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일상적인 폭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님도 집안 남자 어른들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점과는 관계없이 그런 공포와 분노를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거지요. 텔레비전만 켜도, 인터넷 뉴스란에만 들어가 봐도 남자들이 저지르는 만행들이 매일같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개인 여성이 남성을 혐오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이 여성의 성격체성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남성을 혐오하는 것은, 누군가 레즈비언으로 자신을 정체화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예요. 남성 일반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갖고 있다면 특정 남성에게 이끌리기도 쉽지 않을 터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여성인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레즈비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남성을 혐오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이끌리느냐 아니냐에 있는 거예요. 만일 남성을 혐오하는 것이 여성으로 하여금 레즈비언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라면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술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시달리며 남성 일반을 불쾌하게 생각하게 된 한국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이 다 레즈비언이 되었어야 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이 무척 많고, 레즈비언들 중에도 남자와 잘 지내는 사람들이 무척 많답니다.

상담원이 드린 말씀이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님이 탐색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자들이 보이는 행태들이 아무리 싫더라도 늘 그런 점들에 신경을 세우고 있으면 님이 너무 힘들고 피로우니까, 될 수 있으면 남자들에게 영향을 덜 받는 방법, 일일이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님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남성들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폭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건 저희 <상담소>도 마찬가지랍니다. 여자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길에 언젠가, 님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격체성을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더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잘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을 청해 주세요. 상담소에서 귀기울여 듣고 그 고민 함

께 나눌게요. 자기 자신을 긍정하며 고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상담을 마칠게요.

1-2 나는 레즈비언인가요 트랜스젠더인가요? 저는 여고에 다녀서 이렇게 된 것 인가요?

내담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제가 레즈비언인지 트랜스젠더인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가 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마가 싫었어요. 부모님이 애써 치마를 예쁘게 입혀 놓으면, 그게 그렇게 싫어서 막 울었던 기억도 나고요. 물론 지금은 학교에 다니느라 교복을 입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입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복으로는 절대로 치마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남자처럼 소변을 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쪽. 아무도 없을 때 한 번씩 시도해 보곤 했는데, 잘 되지 않아 포기한 기억도 있습니다. 가슴이 있는 것도 너무나 불편하고, 친구들이 생리대 뭐 쓰냐고 물어보고 그러는 것도 너무 끔찍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전환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경제력이 생기면 가슴 제거 수술 정도는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가슴이 있다는 게 티가 나는 게 싫어 옷입을 때도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직 누군가와 본격적으로 교체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좋아한 적은 있어요. 여고를 다녀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주로 여자친구들을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동성 친구들을 좋아하면서 내가 남자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레즈비언은 자기도 여자친구 걸 인정하면서 여자를 좋아하는 거라고 하던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군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여자더라고 말하는. 성도 모르고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라서 내가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 뿐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친구가 여자라서 좋은 건데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곧 성인이 되는데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니 답답한 심정이에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가 트랜스젠더인지 레즈비언인지 알고 싶으면 병원을 가 보도록 하라는 식의 조언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병원에 가볼 용기도 안 나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이런 말씀은 못 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담 안녕하세요.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힘든 이야기 나눠 주신 용기에 격려부터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이 결코 나이에 비해 늦은게 아니라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고민에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누가 정해줄 수도 없고, 정해진 게 있다한들 굳이 따를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에요. 늘 자기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고민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요.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여자에게 주로 이끌리면서, 자신이 대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레즈비언인지 트랜스젠더인지 잘 모르겠고,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헷갈려서, 더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럼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 레즈비언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성별을 가진 내가 나와 같은 성별을 가진 여성에게 이끌리고, 그 점을 나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 안으로 통합시켜 받아들일 때, 그 때의 내가 바로 레즈비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성으로써 여성을 사랑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레즈비언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과 같은 성별인 상대에게 이끌렸던 경험, 그리고 이끌리고 있는 경험 등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그 사람이 좋았을 뿐이지 굳이 여자를 만나야 하고 여자에게만 이끌리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으로 정체화한다기보다 동성에게 이끌리고 교제하고 성관계하는 경험을, 그저 자신이 하는 여러가지 경험 중 하나로 여길 뿐인 것이지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는 아마도 여러가지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선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렸던 경험 자체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데 그리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기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난 다만 그 사람이 좋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여자라서 좋았던 건 아냐. 내가 원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게 이끌린 게 아니라구. 난 그냥 그 사람이라서 좋았던거야.'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말 말 그대로이기도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자기 자신도 갖고 있는 탓에 자기가 했던 경험이 동성의 상대에 대한 이끌림이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싶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만 해요. 자신이 동성의 상대를 좋아했었다, 혹은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고 있다, 는 사실을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받는 당사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에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규정한 사람이라 해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여자라서' 이기만 한 것 역시 아니랍니다. 여자라서 좋을 뿐이라면 어떤 여자라도 상관없이 다 좋아야 하는 것이지만 우린 누군가를 좋아할 때 보통 어떤 특정한 대상을 좋아하곤 하잖아요. 님이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친구가 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친구에게 님이 이끌릴만한 매력적인 면모가 있기에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일 터이니 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드린 설명으로 레즈비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이, 조금은 수월하게 이해가 되셨을지요.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고를 다녀서 여자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필요 역시 없어요. 일단 여자한테 더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게 전혀 없을 뿐더러 - 문제는 오히려 남녀간의 사랑과 사귄과 결혼만이 정상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이 사회에 있죠- 여고라는 공간적인 조건이 그 공간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게 하는 충분조건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고 재학 중인 수많은 여고생들이 남고생들과 미팅을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남자 선생님에게 마음 두근거리고 남자 연예인에 열광한다는 사실만 떠올려봐도 그건 충분히 증명가능한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쩌다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을까 하는 원인을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님이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님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보다 더 중요하죠.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레즈비언은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본인의 성별 자체와 관련된 정체성이 아니라 본인의 '이끌림' 과 관련된 정체성이라고 봐야해요. 본인이 이끌리는 상대방이 어떤 성별의 사람인가 하는 점이 누군가가 동성애자인가, 양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를 가늠하는 매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달라요.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 성과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 즉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갖고 태어난 이가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Female(여성) to Male(남성) 트랜스젠더인 것이고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신체를 갖고 태어난 이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인 것이지요. 이 때, 성전환 수술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혹은 호적정정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걸 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호적정정을 받지 않았어도 본인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인 것이지요.

이처럼, 내가 동성애자냐 아니냐는 내가 이끌리는 대상이 나와 성별이 같느냐 다르냐의 문제인 것과 달리, 내가 트랜스젠더냐 아니냐는 나의 신체적 성과 사회적 성별이 서로 일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고, 양성애자가 있을 수 있고, 이성애자가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연예인 하리수 씨는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인데 이 분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멋지게 사랑하고 싶다고 종종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분은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이끌리는 이성애자이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님이 생각하기에 님의 몸은 여자의 몸이지만 실은 자신이 아무래도 남자인 것 같고, 이끌리는 상대가 주로 여자라고 한다면, 님은 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이면서 이성애자이신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일 테니까요. 레즈비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의 차이를 이제 알 수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님이 본인이 레즈비언인지 트랜스젠더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건, 이끌리는 상대가 보통 여자라는 사실만은 분명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정말 남자라고 생각하고 몸도 남자로 바꾸고 싶은 건지, 아니면 여자를 좋아하니까 남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로 혼란스러우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자기 몸의 여성적인 특질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남자 몸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자세로 소변을 보고자 했었던 적도 있으며, 동성 친구들과 생리 얘기 등을 나누기 불편해 한다는 등의 경험만으로 님이 사실상 남자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건 제가 진단해 드릴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구요.

상담원 주변의 많은 레즈비언들이, 남들과 다른 자기 자신-즉, 다른 동성 친구들과과는 달리 남자가 아닌 여자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이상하고 여겨졌고 자신은 여자를 좋아하니 당연히 남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지난 경험들을 털어놓곤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왜 자기 자신이 여자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했을까 싶고 이제야 여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다행이다 싶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 나갈 때, 님이 정말로 스스로가 남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남자가 되고자 하는지 남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탐색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님 자신이 스스로를 남자라고 규정하신다면 그 결정은 그 자체로 축복받아야 하겠지만 만일에 님이 여자임에 분명한데도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콤플렉스와 혐오로 단지 그저 부정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되길 선택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테니까요.

여자로서 갖는 자기 몸에 대한 수치심이나 혐오는 사실 상당수의 여성들이 겪는 콤플렉스랍니다. 워낙 여성들이 열등하게 취급받는 사회다보니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갈 수 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요.

님, 내가 레즈비언인가 트랜스젠더인가에 대해서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고민해 나가셔도 괜찮아요. 내가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여자의 몸을 갖고 태어난 남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하는 문제는 님이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우선, 님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 님이 좋아하는 상대가 여성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님을 이루는 거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훈련부터 조금씩조금씩 해 나가보는 거예요. 나부터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남들과 다른 님의 모습 하나 하나는, 사실 이상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 믿음만 마음 한 켠에 간직할 수 있다면, 아픈 시간들, 조금씩 더 능숙하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할게요. 많이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나가는 길이 불행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 길을 가시는 님에게 진심으로 격려 보내드려요. 언제라도 다시 상담 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 상담은 이만 마칠게요.

1-3 서른을 갖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집안의 결혼 압박이 너무나 심합니다.

내담 안녕하세요.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얼마전 서른을 넘긴 여성입니다. 혼자서만 이 고민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 이렇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칠팔여년 간 함께 해 온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 직장에 취직해 다니던 이십대 초반에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때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상했던 문제가 눈 앞에 닥쳐오고 말았네요. 서른이 넘어가다 보니, 가족들이 주는 결혼 압박이 눈에 띄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 둘의 관계를 서로 정말 친한 친구 관계로만 알고 계십니다. 입사 동기로 만난 친구였이기 때문에 저희 둘을 한꺼번에 알고 지내는 당시 동료들도 저희들이 무척 좋은 오랜 친구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둘에게 지난 십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뼈아프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요. 숨기며 살아가는 삶이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도 저도 이런 삶에 지쳐만 갑니다. 가족을 속인다는데 참을 수 없이 죄책감이 듭니다. 죄책감도 죄책감이지만, 내가 아닌 나로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는 게 자꾸만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에게 이제 저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종종 하게 되네요. 하지만, 그 친구와 제가 긴 세월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친구로만 알려져 왔기에, 부모님의 충격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로,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제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친구 이야기를 안 하게 되지는 않을 터이니깐요.

한창 발달하고 예쁘고 건강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십대인데.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고민으로 이렇게 힘들게 보내 왔네요. 물론 이 친구와 함께 있을 때면, 행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 관계에 당당하고 그러면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나가고 싶은데.. 그저 막막하기만 하네요. 가족들에게 이 관계를 알린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입니다. 특히, 그 친구는 국내에 없고, 저만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는 제가 이 곳에 완전히 발목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저희 둘만의 고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지, 너무나 얘기가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네요. 가족들에게 알린다면, 어떻게 알리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언제가 좋은 시기인지, 과연 알리는 것만이 좋은 것인지, 도움 부탁드릴게요. 착한 딸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께 다른 모든 것은 해드릴 수 있지만, 부모님이 지금 너무나 바라시는 결혼 그 한가지를 평생 해드릴 수 없을 것만 같아, 맘이 너무나 아픕니다.

상담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힘들게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를 이렇게 털어놓아 주신 용기에 우선 격려부터 먼저 보내드립니다. 팔여 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랜 세월 사랑을 지켜 오신 두 분께 진심으로 박수 쳐 드리고 싶고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세월이다보니, 두 분이 그 세월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더더욱 아끼고 보듬으며 지내 오셔야 했겠구나 싶어 상담원의 마음마저 짠해졌어요. 아무리 서로 극진하게 위해주고 사랑하는 커플이라 해도 그 커플을 지지해주는 관계 망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 이따금씩 생겨나는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하는 걸 무수히 보고 듣거든요.

그리고 관계의 저변에 '우리의 관계는 숨겨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느끼는 부담감을 일정 정도나마 해소할 수 있는 창구조차 갖지 못하는 생활이 이어진다면,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실을 떠올려 보면 님과 파트너 분이 그간 두 분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이끌어 오신 세월이 결코 녹록치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참 잘해 오셨어요. 두 분 다 정말 용감하세요.

그런데, 지금 삼십대 초반이라고 하셨지요. 통상적인 결혼 적령기를 넘은 연령대인 탓에 가족들의 압력이 무척 심하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파트너 분과의 관계를 숨기라 결혼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를 이리저리 둘러대랴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 것이 많아 쉽게 지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결혼 압력 속에서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어지게 마련이니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두 분의 관계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싶으신 것이 지금의 님의 바람인 것이지요. 저희 상담소의 상담원들을 포함하여 정말 많은 수의 레즈비언들이 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에 지금 님이 얼마나 피롭고 외로울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님 스스로가 이미 지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기운을 느꼈고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현재 님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만 보아도 님이 앞으로도 이제까지 주옥 그래 오셨던 것처럼 잘 해나가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가능한 선택지들을 한 번 살펴 볼게요.

지금부터 상담원이 드릴 말씀은, 님이 벌써 한 두 번씩은 스스로 예상해 보셨거나 짐작해 보셨을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담원이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 차례 더 정리해 보시면서, 좀 더 명료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상담원은 먼저, 님의 상황에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할 만한 선택은 사실 없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알리는 것

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도 아니고, 알리지 않는 것만이 사는 길인 것도 아니에요.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이후의 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께 파트너 분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말씀드릴지, 아니면, 관계 자체는 계속 알리지 않고 지내되 결혼하지 않으리라는님의 의지를 부모님께 충분히 납득시킬지, 선택은님의 몫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때,님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님 스스로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므로님은 본인의 그 결정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님이 무슨 선택을 하건 누구도 그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건, 이후님이 취할 행동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파트너 분과 의논을 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관계에 훨씬 더 좋을 게 분명할 터이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각각의 선택 이후에 뒤따를 상황들을 예견해 봐요. 부모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쪽을 택했을 때를 예상해 보면,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게 되어 한편으로는 필시 갑갑증이 가시고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파트너 분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너 분을 다시는 못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는 되지 않더라도 맞선을 끊임없이 요구받으며 극도의 결혼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에 처해있는 많은 레즈비언들은, 고백하는 쪽을 택했다가, 강제로 애인과의 관계를 단절 당한 것은 물론이고, 머리를 깎인 채 집 안에 감금당하고, 정신 병원에 끌려가고, 급기야 강제 결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토록 암울한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경우라 해도 부모님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이며 파트너와의 관계 등을 온전히 인정받기까지는 정말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 필요해요. 부모님은 그런 자식의 고백을 듣고 난 뒤 열이면 열 다 극심한 충격을 받으시게 마련이고 그 충격은 부모님 스스로의 자책, 자학, 자식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이어지기 쉬우니까요. 부모님 스스로 그러한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기까지도 긴 세월이 필요하죠.

그러니 만일 부모님께 허심탄회하게 현재 두 분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 시기와 방법 등을 잘 생각해서 준비하셔야 해요.언제가 좋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건 역시 없어요. 적당한 타이밍과,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덜 충격 받으시게 고백할 방법 등은님이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일거예요. 중요한 건, 두 분이 그러한 고백 이후의 상황들을 직면해서 헤쳐나갈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단단히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책들을 얼마만큼 마련해두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해요. 체계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좌우할 사건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고백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결혼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해도 궁지에 몰린 상황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부모님은 벌써 나이가 차버린 딸이 끝내 결혼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어떤 이유를 들어 설명해도 잘 납득하실 수 없을 터이고 그런 정황 속에서 내내 의심을 받지 않은 채 파트너와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란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고백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다 했을 때도 역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어떻게 둘러댈 것인가, 어떻게 해서 들키지 않을 것인가, 사실 내가 솔직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게 되는 자책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등을 준비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님에게 필요한 건, 아픈 마음을 잘 추스르면서, 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언지, 그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예상 가능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찬찬히 정리해 보는 것이리라는 생각을 해요. 오직 님만이 내릴 수 있고 님이 내려야 하는 결정을 위해 현재 두 분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고 다양한 갈래의 선택이 불려일으킬 수 있는 과장을 예상해 보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부모님 마음에 상처 입힐 생각에 심정이 정말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님 자신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파트너 분과의 안정적인고 따스한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 기운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버텨 나가시라고 저도 응원할게요.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담소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더 생기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다시 상담 청해 주세요. 두 분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4 이게 일시적인 감정일 뿐인 것일까요. 그 친구가 너무 좋은데.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참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몇 년동안 혼자 끙끙거리다가 이렇게 상담소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이도 여자애예요. 중 2때 처음 알게 된 아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가슴도 뛰고 그랬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레즈비언 같은 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동성애자란 존재를 싫어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동성 친구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내가 이상한 사람같고 정신병 걸린 사람 같기만 했어요. 자기혐오라고 해야할지 그런게 생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레즈비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닌거죠. 제가 직접 겪게 되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에 가까워요.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는 레즈비언이 아닌 아이라서 아직까지 좋아한다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금방 없어질 감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감정이 계속되네요. 언제나 생각나고,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있는 걸 보면 질투심이 생기고, 그 애와 함께 있으면 손도 잡아 보고 싶고 가슴 같은 데를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있고 그래요. 그 아이 몸을 만지고 싶거나 키스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원래 그런 생각 들 수 있나요.

그애 좋아하기 전에 남자애와 사귄 때는 전혀 안들었던 생각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진심으로 좋아한 사람은 그 친구 하나 뿐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혼자서 좋아하고 있어야될지도 모르겠네요. 한 3년쯤 좋아해왔는데 말 해볼까 마음을 먹어도 막

상 얼굴 보면 그애가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저를 아예 싫어하게 될까봐 너무 너무 무서워요. 한 포털 사이트 몇번 상담 비슷하게 고민글도 올려봤지만 '그건 사춘기때 한번 지나가는 감정이다', '동성친구에게 갖는 그런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동경이다', '여중 여고를 나와서 그런거지 대학가면 다 괜찮아진다' 이런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 글들을 보고 나니 정말 제 감정이 일시적인 감정인건지, 그렇다기에는 너무 심하게 괴로운데 싫어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저 좀 도와 주세요.

상담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려요. 몇년간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많이 힘이 드셨다고요. 지금 고등학교 삼학년이면 사회 생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기에 계시는 거네요. 취업이나 대학진학 등의 문제 만으로도 힘겨운 시기에 사랑 때문에 더욱 마음 아파하셨을 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부터 전하고 싶어요.

풀리지 않는 고민때문에 힘겨워 하고 있을 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이 가요. 상담소에 참 잘 오셨어요.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반갑고, 꺼내놓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이렇게 상담을 청해 준 님의 용기에 박수 보내드려요.

포털 사이트 질문방 등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만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우셨지요. 그곳에서 달아준 답변들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십대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다', '나중에 다 괜찮아진다'는 식으로 반응하는데, 상담원은 그런 반응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걸 제3자가 그건 동경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건, 십대가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제대로 판단도 내릴 줄 모르는 존재라고 폄하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성간에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거나 그걸 혐오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중에 다 커서 고민하라는 말도 종종하는데, 그건 지금 당장 고민을 시작한 십대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중학교 2학년때 알게 된 친구를 꽤 오래 좋아하셨나봐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무래도 레즈비언이 아닌 이성애자인 것 같아 고백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4년 여간 짝사랑을 해오셨다고요.

짝사랑이란 누구에게나 참 힘든 일이죠. 아마 님께서 좋아하게 된 상대가 남자일지라도 고백하지 못한 채 한 사람을 좋아하는 일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님과 같은 성인 여성이라고 하니 처음 그 감정을 눈치채셨을 때는 눈 앞이 캄캄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동성애에 대해 अच्छ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뒤 님은 자기혐오까지 갖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동성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감정을 애써 부정하거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혐오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

에서 동성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온 탓이 크답니다. 사실 동성애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거나 변태라느니, 정신이상이라느니 하는 잘못된 정보만 주니까요. 아마 그래서 님도 동성애라고 하면 어떤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을 혹은 어떤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 자체라고 떠올리기보다는 잘못되고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느낌부터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하지만 님, 동성애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상담원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상대가 나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성애와 차이가 날 뿐이지요.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는 벌써 30여년 전에 동성애를 정신질환목록에서 삭제했어요. 그리고 호주의학계에서는 동성애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야말로 병이 들었다고 해서 '동성애혐오증'을 정신질환목록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세계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법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들을 아마 처음 접하실 것 같아요. 상담원 역시 레즈비언이면서도, 지금처럼 상담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냈답니다. 그리고 내가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손가락질 당할 때면 '나는 왜 동성애자가 됐을까'하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슬픔에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은 상대가 어떤 성이든 관계 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님도 자신을 보다 존중해줄 수 있기를 바랄게요. 더이상 님 자신을 미워하거나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으로 충만한 님 스스로의 모습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그 친구와 스킨십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자 욕구랍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러한 좋아하는 감정이나 욕구 중에 당연히 스킨십의 욕구도 포함될 수 있지요. 다만 그 스킨십에 대한 욕구를 상대방도 가지기를 무조건적으로 기대하거나 강요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말이에요. 스킨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때 그것을 무턱대고 행동에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중 하나라는 것을 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지키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고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갑갑함을 털어놓으셨는데요. 혼자서도 이미 많은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더 현명한 판단을 위해 어떤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봐요. 지금까지 좋아하는 상대와 친구관계로 만나오신 거죠? 이 상황에서 고백을 하면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친구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 친구로 있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일단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절실한지 판단해보세요.

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고백을 해야겠다/말아야겠다 결정짓기 전에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꼭 그 친구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 고백을 한 뒤 바로 교제가 시작되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님의 감정 자체는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좋은 거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와 동성애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 친구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평소에 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친구에게 있어 님이 그냥 별 관심없는 주변인에 불과한지 아니면 친구라고는 해도 굉장히 호감가는 사람에 속하는 것인지 살펴보세요. 이성애 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물밑작업'같은 것이 있듯이 님도 그 친구의 호감을 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단 그 친구에게 너무 부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예요.

님, 아마 지금은 당장 동성 친구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납득하기조차 버거우실 거예요. 하지만 님의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일단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님이 당장 동성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고민해야만 진실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일 터이니까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님이 스스로를 보살피고 존중할 때에만 님의 매력과 진심이 그 친구에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내세요. 상담소가 응원할게요. 언제든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상담 청해 주시고요. 그 친구분과의 관계가 잘 이어나가길 수 있도록 바라고 있을게요.

2. 커밍아웃

2-1 부모님께 커밍아웃, 해야 할까요?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담 저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처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입니다. 그 언니와 통화도 자주 하고, 언니가 가족들이 있을 때 우리 집에도 놀러 온 적도 있어요. 언니와 만나면서 저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그 감정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싶어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교제사실을 숨겨야 합니다. 그 점이 너무나 갑갑합니다. 그렇다고 커밍아웃을 하자니, 부모님이 충격 받을까봐 걱정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 님,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반갑습니다.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숨기기 힘들어서 솔직히 말하고 싶으시다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 주셨어요.

레즈비언은 누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게 자

신에 대해 알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커밍아웃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부모님 세대는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모르던 시기였으니까요.

어떤 부모님은 커밍아웃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은 너무 많이 가슴 아파 하시기도 하고, 자녀를 때리거나 정신과 상담을 하게 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소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자신있게 조언을 해드리기 어렵답니다. 어떤 부모님인가에 따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다르니까요.

다만 커밍아웃을 급작스럽게 해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부모님에게 '나 여자를 좋아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커밍아웃이 완성되는 게 아니랍니다. 부모님에게도 생각할 시간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커밍아웃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답니다.님은 처음으로 여성과 교제를 해보시는 만큼, 자신에 대한 탐색과정도 중요할 거예요. 우선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자문해보고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애인분이 집에 놀러와 가족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애인분과도 부모님께 교제 관계를 밝히는 게 좋을지 대화를 나누어보시면 좋겠어요.님이 커밍아웃함으로써, 애인분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부모님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그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하죠. 커밍아웃 후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보며 마음을 굳게 다질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라는 것일 뿐이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나는 동성애자예요'라고 말하는 것만이 커밍아웃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레즈비언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부모님이 딸이 동성애자란 걸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한 예를 들면요. 부모님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하는 관계라면, 많이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 친구가 남자친구들보다 더 좋다고 말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 주실 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상황이지요. 이런 때는 분위기를 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얘길 할 수도 있겠죠. 동성애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점점 더 존중받고 있다는 환경을 말해 부모님의 인식을 바꾸어볼 수 있겠고요. 나아가 님의 정체성이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개는, 부모님이 별 얘기 없이 스쳐 지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실망하지 말고, 또 기회를 봐서 비슷한 애길 꺼낼 수도 있죠. 님과 여자친구가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많이 사랑하는 관계란 걸 은연 중에 알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완고하게 동성애를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을 설득시켜볼 수도 있겠고, 일단은 뒤로 물러서 다음의 기회를 찾는 것도 좋겠지요.

지금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커밍아웃은 인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면 폭탄처럼 한 번에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게 더 쉬울지 몰라도, 그 후의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님께서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커밍아웃을 해나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인생이 성숙해지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의 기쁨도 그만큼 크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탐색해보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잃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방문해주세요.

2-2 독립을 위해 커밍아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담 저는 20대의 레즈비언입니다. 저는 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혼자 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독립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칠 전 제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죽어버리시겠다고 완고하게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커밍아웃을 고려 중입니다. 커밍아웃을 해버리면,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집에서 독립을 시켜주시겠지요. 하지만 커밍아웃을 하자니 어머니가 받으실 상처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참 고민이네요.

상담 반갑습니다. 집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은 어머니와 살고 계시는데, 내년엔 독립해 나와 연인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거로군요. 그런데 60대의 어머니가 혼자 살게 되실 걸 생각하면 맘에 걸리고, 어머니에게 독립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고민하고 계시고요.

많은 레즈비언들이 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님,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면서도 동시에 억압적인 부분이 많아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겪죠. 서양에선 성인이 되면 자식이 독립해 사는 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 나라에선 결혼 이전엔 부모 밑에 있어야 한다고들 생각하죠. 어머니의 반응은 굉장히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해요.

님의 경우처럼 딸이 원하는 것과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상반된 경우엔 결국 어떤

하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 집을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딸은 너무도 간절히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면두 사람의 기대 중에 어느 한 쪽은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어떤 선택이 더 행복한 선택인가,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자신의 독립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뜻에 상관없이 집을 나와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사랑과 삶의 방식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부모와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기도 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까 하는 건 사람들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제언을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 답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님의 마음 속에 있을 거예요.

상담원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님이 자신의 상황과 어머니의 상황, 그리고 모녀의 관계, 독립했을 때 연인과의 관계나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연인과 함께 논의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지금의 삶이 힘들거나 답답해서 '빨리 나가야지'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세요. 연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보세요. 차분히 생각을 계속해 나가고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올 거예요.

님, 사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해야 맞죠. 어머니가 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님이 진정으로 독립을 원한다면 결국 방법을 찾게 될거라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충격과 어머니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님, 집을 나오기 위해서 커밍아웃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독립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두 분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님의 글만 보고는 잘 판단이 안 서네요. 님의 얘기처럼 어머니가 크게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커밍아웃'은 막 판에 해버리는 최후의 수단인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머니 세대의 분들은 레즈비언이란 용어조차 모르고 컸으니, 그만큼 동성애에 대해 이해하는 데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레즈비언들은 긴 시간에 걸쳐 여러 방식으로 가족에게 커밍아웃하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어머니가 님의 사랑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지, 그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것들을 고민해봐야 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선 굳이 말로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레즈비언상담소 같은 곳에서 상담받아 보시도록 권하기도 해요. 레즈비언을 '비정상'이라고,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께는 과학

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령, 세계 의학계가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죠. 1973년에 미국정신의학회가 정신과 질병목록(DSM)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지금은 오히려 동성애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동성애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책으로 <커밍아웃>(박영률 출판사)와 <역사속의 성적소수자>라는 책이 출간된 것 중에 적절한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동성애자의 수가 무척 많다는 것과, 어머니 또래의 레즈비언들 역시 존재한다는 것, 외국엔 동성애자 자녀를 둔 부모가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기도 하고,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학교교육을 정부가 실시하는 곳도 있다는 것, 이런 정보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요.

님,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해오신 것으로 봐서, 두 분 사이엔 분명 애정이 깔려있는 관계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서로 갈등이 생긴다 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정이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님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속상해도, 언성을 높이기 전에 따뜻한 말로,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엔 독립적으로 사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 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솔직하게, 어머니를 존중해주면서 대화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죽겠다고까지 하신 것으로 보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는 건 딸의 행복이잖아요. 결국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할지라도, 얼만큼 마음을 열고 서로 애정을 기반으로 대화해보았는가 하는 점이 님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분명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이 답답하고 길이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좀더 현명한 방법을 찾게 되길 바래요. 님과 연인과 어머니,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 맺길 바랄게요. 또 문의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2-3 커밍아웃 후, 가족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담 저는 스무 살이고, 집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밍아웃 이후 가족들이 저를 무척 괴롭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지 꽤 됐습니다. 술만 마시면 아버지는 저에게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계십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벌레 보듯 합니다. 바로 몇 분 전에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칼을 들고 절 죽인다고 했습니다... 정말 집인지 지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 같아서, 정말 굶고 추워서 얼어 죽게 되더라도 짐싸서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재수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밉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집에서 그렇게 괴롭히는 게 싫어서 가출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점점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갈 용기도 잃게 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건강도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았거든요...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제 마음은 점점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차라리 병으로 죽었더라면, 아까 칼로 날 죽이지 그랬어... 이런 생각만 듭니다. 저 정말 너무 힘드니

다.

상담 상담소입니다.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폭력적인 상황을 맞고 계시는군요. 욕설을 듣고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군요. 겪게 된 어려움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인 것 같네요. 상담원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님,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할 가족관계에서 레즈비언이란 이유로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몸과 마음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상담원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어요. 방금은 더 악화되어, 칼을 가지고 위협을 당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원래부터 그 정도의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 인지요? 아버지가 딸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아무리 본인의 기준에서 딸을 용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님, 지금 생각 같아선 추위와 가난 때문에 얼어 죽게 되더라도 짐을 싸서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겠지요. 한국에서 스무살 여성은 아직 독립을 하기 어려운 나이이지 만요, 어쩌면 고생을 각오하고 집에서 나와 생계를 모색하는 것이 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일 지도 모르지요.

상담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가정폭력 때문에 집에서 나와 몸을 쉴 곳을 찾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쉼터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님의 상황도 해당될 것 같아요. 다만 여성쉼터는 6개월 단위로 의지할 수 있고, 집에서 나오고자 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얻기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도 님이 찬찬히 독립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기 저기 정보를 알아보다보면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성이 독립해 살아가기엔 우리 사회는 너무 험하고 무서운 곳이니깐요.

님, 상담소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죽고 싶은 정도인 지금의 감정에 매달려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앞길을 생각하고 계획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는 일이지요.

동성애자라는 것이 잘못된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사회가 잘못이에요.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선 당당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님에겐 잘못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로 인해 주눅 들어야 하나요. 주위 사람들이 레즈비언이란 이유로 욕하고 멸시를 하면,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눅이 들게 되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가치없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무력감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마음 단단하게 먹고 스스로에 대해 애정을 가져야죠. 적어도 님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주어야 해요.

님은 수술을 해서 회복단계인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텐데 라고 하소연을 하셨죠? 그런 생각은 다시는 입에 담지 마세요. 몸에 해롭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의 말이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아 회복되어 가는 몸이 얼마나 대견한가요. 앞으로 님이 강인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려는 단초 일지도 몰라요.

님, 큰 수술도 받았고, 학교 일에, 집에서의 냉대에, 너무 많은 일들이 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많이 지친 것 같네요. 그러나 이런 고통은 님을 평생 가두지는 못해요. 아직 스무살,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 만나야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잖아요. 지금의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되뇌어보세요.

님, 지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집에서 다른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님의 고통을 털어놓고, 인간 이하로 대우하지 말아달라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훨씬 상황이 나을텐데요.

지금 재수 중이시고, 앞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고, 그러려면 학비가 필요한데 꽤 큰 돈이고, 학교를 나온다 해도 취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물가는 비싸고, 당장 살 곳을 찾기 어렵고, 안전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하고... 여러 모로 집을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집에서 뛰쳐나갈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차근 차근 정보를 알아보며 계획을 세우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놓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쉼터 관련해서 한국여성의전화나 지역여성의전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들에 문의를 하실 수 있고요. 여성폭력 관련 긴급전화 1366에 연락을 하셔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님, 모쪼록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바래요. 언제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요. 상담소에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갑갑하고 마음 상할 때 상담소를 다시 찾으셔도 좋아요.

3. 교제 문제

3-1 애인이 너무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불안해요.

내담 안녕하세요, 이런 곳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누구에게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갑갑하고 괴로웠는데. 이렇게 상담을 청해 봅니다. 저는 이십대 후반의 여자예요. 이십대 중반까지만해도 여자는 남자와만 사귄 수 있는 건 줄 알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의 애인(여자)을 만나 사귀게 되면서 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기로 하였습니다. 좀 설레고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고백을 받은 뒤,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하면서, 아 이렇게 흐르는대로 사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한지 벌써 삼년이 다 돼 가네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애인이 다소 예쁘장하게 보이기 하고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스타일입니다. 애인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같은 사람들이 제 애인에게 심심찮게 애인에게 애정 표현도 하고 스킨십도 하더라고요. 다들 제 애인이 이반이리라는 추측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애인은 자신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치근덕거리는 것도 장난처럼 넘기는 것에 좀 불안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고백을 해도 그저 자기 스

타일이 아니라 식으로만 받아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애인이 있다고 해도 될 텐데. 자기는 애인이 있다고 했을 때, 애인이 여자라는 걸 숨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원래 이반 관계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무척 답답하네요. 워낙 인기가 많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관계 상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질투를 하면서도 이래야 하는 게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저를 떠나 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이반 관계에서 건강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담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려요. 사귀고 있는 애인분과의 관계 문제로 그 동안 많이 힘들어 해오셨군요. 동성의 상대와 교제를 해 본 것이 처음이라 헛갈리는 것도 많았고, 고민스러운 것들을 마음 편하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위로를 받을 마땅한 상대도 없어 더욱 힘들었다는 말씀도 해 주셨네요. 건강한 사랑을 해 나가는 방법이 알고 싶다는 바람도 적어 주셨고요. 적어보내주신 메일을 읽어보면서, 그간에 혼란스러움과 속상한 마음을 혼자서 떠안고 오시면서 무척 괴로우셨으리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었어요. 동성의 상대와 교체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도 속 시원히 꺼내 놓기가 참 어렵죠. 내가 동성의 상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해야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보니,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시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동성의 상대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만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한 조건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님이 이렇게 상담소를 찾아주시기를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이야말로 고민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일 수 있으니까요.

우선, 이전까지는 이성 상대만을 연애 대상으로 생각했었지만, 지금 사귀는 분과 친밀해지고 그 분으로부터 고백을 받아 사귀게 되면서는 그 분에 대한 감정과 두 분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하셨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교제를 시작한 초기에 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 그건 아주 용기있고 긍정적인 결심이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되는 것은 분명 낮은 일이었을 터이잖아요. 게다가 워낙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기 쉬운 일이다 보니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어려움에도 님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교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하고 계세요. 자신에게 고백해 온 상대방의 존재와 자신의 변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었던 님의 모습에 상담원으로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님이 겪고 있는 현재 두 분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애인분이 워낙 보이시하고 세련된 스타일이라, 여자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가 보네요. 주변의 여자분들이 전부 다 님의 애인분을 연애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여느 동성 친구와는 다소 다른 느낌으로 대하는 것 같

은 느낌을 곁에 있는 님이 받을 수 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성 친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동성 친구들 같은 것 역시 아닌 묘한 느낌으로 님의 애인분을 대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님이 속상하신 것은 그러한 분위기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그에 대한 애인분의 태도 때문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기한테 치근대는 사람의 행동도 장난스레 받아넘기고, 남한테 고백받은 걸 님에게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애인분의 모습들에 님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어요. 게다가 애인분에게는 님의 존재가 있는데도 님의 존재나 두 분이 커플이라는 사실을 그런 주변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님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이반 커플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어려움으로만은 볼 수 없을 거예요. 이성 커플이 사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애인이 동성이라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만큼 억압스럽지는 않더라도 누구와 누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인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경우란 여러가지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 중 한 쪽이 다른 이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님이 이반 관계란 원래 이런 것인가 하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네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는 어떤 커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바로 님이 애인분에게 님이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리라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서 사귀기 시작한 소중한 만남만큼,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도 관계에 꼭 필요하지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히 즐겁고 충만한 관계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잘 보듬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님이 애인분으로부터 애인으로서의 배려를 못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러한 느낌 때문에 힘들어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러한 마음을 일단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애인분이 워낙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에 둔감한 스타일이라면 이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서 먼저 알아채주는 경우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님, 애인분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을 해 보세요. 지금 님이 느끼는 여러가지 감정들을 차근차근 애인분에게 표현해 볼 기회를 마련해 보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건 그 자체로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지만, 애인이 불안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는 전혀 신경을 써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호의를 베푸는 모습이 애인인 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하고요. 주변에서 워낙 애인분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면 언제 어드레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뭐라 말할 수 없으리만치 불안하다는 말씀도 전하시고요. 또, 동성의 상대와 사귀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러한 교체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 수 없는 처지인 것이 현실임을 알지만 그 현실자체가 가슴아프고 답답하다(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아마 애인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는 이야기도 해 보세요. 변함없이 애인분을 바라보고 있는 님의 감정에 대해서도 같이 전달하시면서 말이에요. 질투심에 대해서, 불안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님이 좀 덜 상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두 분이 함께 고민을 해 보면, 님도 지금보다 덜 답답하고 상대방도 님에 대해 더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상대방이 님이 어렵게 꺼내놓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 보고 거기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서로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이해를 구해서야 막무가내식이 되겠지만, 서로 상대방이 이 관계 안에서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애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교제를 해 나갈 때 있어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순 없겠지요.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도 변화해 나가고, 상대방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 낼 자신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교제의 재미이기도 할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건강한 만남의 필수조건이기도 할 터이고요. 두 분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기회를 조만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요, 당사자인 애인분에게 꼭 님의 감정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힘든 상태를 혼자 감당하면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님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일일 것 같아요.

답변이 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상담소를 찾아주시고요, 두 분 관계에 의미있는 변화가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용기를 보내드릴게요.

3-2 애인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내담 안녕하세요. 어울리는 말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반갑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제게는 거의 천일 가까이 사귀어 온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스물 네 살이고 직장인이며, 제 애인은 저보다 두 살 아래고, 역시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귀어 오는 동안 아픔이 참 많았어요. 헤어졌다 다시 만나길 여러 번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던 적이 있지만, 애인이 너무나 아파해서 그 사람을 정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소식을 듣게 되면 설레는 그런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게 엄연히 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과 사귀고 싶은 충동 같은 걸 느낀다는 겁

니다. 자꾸 지금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애인이 가끔 제 연락을 무시하거나 할 때, 더 이런 생각만 나고, 사귀어 온 기간이 무슨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느냐 싶기도 하다가, 또 없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오래 사귀어 온 애인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네요. 본인 스스로는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길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아 주셔서 어떤 고민 때문에 심정이 복잡하신 건지 짐작하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애인이 싫은 것은 아닌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 생각이 나고 사귀어 온 기간이 길다는 것이 헤어지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거 봐요.

님, 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끌릴 수 있고 애인이 채워주지 못하는 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과 만나고 싶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 마음 자체는 사람 마음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 나쁘네 안 나쁘네 하고 가치 평가를 내리기도 뭐한 것이지요. 애인과 짧게 사귀었던 오래 만나왔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는 좀 더 나은 선택과 그렇지 못한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애인은 뒷전으로 한 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애인에게 돌아와서는 기대려고만 한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굳이 만나고 다니지는 않지만 애인과 같이 있을 때 불만족스러운 듯한 태도를 늘 취하고 있는다면 하는 식이면 본인도 힘들고 애인도 힘들어 지겠지요. 애인도 느낄 테니까요. 상대방이 자기와의 사귀어 온 기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어요. 그런 애인의 모습을 보며 본인도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이고요.

이 때, 딴 생각이 드는 정도도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겠지요. '잠시 드는 헛생각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애인을 두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살짝 흔들렸던 마음을 금세 다잡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애인을 많이 사랑해 왔지만 이제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지금 저 사람을 놓치면 후회하며 지내게 될 것 같아. 애인에겐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고 저 사람을 붙잡아야지.' 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니깐요.

그리고 그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본인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실행에 옮겼을 뿐일 것이니까요. 오래도록 갈팡질팡 하고 있거나 하면서 관련된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결단력 있게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애인만 바라보고 있게 되지 않은 상태,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보고 싶은 상태, 라면 시간을 좀 가지면서 본인의 마음을 한 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권해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테고 마음도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는 마음과는 별개로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나도 힘들겠구나 싶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터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중에 후회를 덜 하도록, 기쁨이 더 크도록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에게 좋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애인과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인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님의 생각을 전달할 때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다가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방식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님이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걸 찾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현재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아니면 애인과의 더 즐겁고 두근거리고 좋은 관계의 회복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요.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짚어보세요. 솔직하고 용감하게 자기 마음을 직면하면 길은 보일 거랍니다. 갑갑한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언제건 다시 상담 청해 주세요. 이만, 마칩니다.

3-3 헤어진 애인에 대한 배신감과 두 사람 사이에 청산되지 않은 돈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내담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사귀고 그 중 후반의 1년 정도의 시간을 동거했던 애인과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저희가 헤어지게 된 주원인은 돈이었어요. 저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던 사람이라, 그렇게 헤어지면서 저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제 친구들이 저를 말리는 바람에 그렇게는 하지 않았 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열두 시간 넘게 꼬박 일해도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할 정도의 돈을 벌며 살고 있는 사람이니깐요. 그렇게 돈문제로 완전히 틀어져 헤어졌지만, 같이 지낸 시간이 있어서인지 제가 저를 잘 못 추스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체중도 엄청 줄었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해 답답하고, 직장도 그만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괴로워진 건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 때문이에요. 남은 짐 가져가라고 그 사람에게 연락했다가 다시 시작하자고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더군요. 만난 기간을 들어보니 저와 완전히 헤어지기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속은 거였습니다. 그 사람의 새 애인이 제게 그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아우팅 해 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친구들이 많이 오는 그 사람 홈페이지 방명록에도 글을 써버리고. 지금은 일단 그 글들을 삭제 했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 사람이 제게 진 빚들은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데. 남들 보기에 큰 돈 아닌 것 같아도 제게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돈들인데. 제가 글들을 지우기 전에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라, 그 사람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모르겠어요.

상담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려요. 마음 속 이야기 털어놓기 쉽지 않았죠. 이렇게 저희와 고민 나눠주신 용기에 먼저 격려부터 보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애인과의 관계 문제로 무척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계시네요.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깨져버린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이 혼란스럽고 힘이 드신가 봐요.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접하면서 님의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자신을 치유해 나가려고 의지를 갖고 계시니 마음이 조금은 놓여요. 참 잘 하셨어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도 조금씩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님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나가 볼까요. 두 분이 아직 사귀고 있을 때부터 이미 두 분의 관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 두 분이 함께 의논하고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말이에요. 님 때문에 애인 분이 직장을 그만 두셨다는 게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님이 일방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끔 요구받으셨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 때마다 비용을 다 대 오시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분이 님께 지고 있는 빚이 상당한 거고요. 매일매일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시느라 몸도 늘 지치실테고 지금 받고 있는 월급만 갖고는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으니 님이 느끼실 생활의 부담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이 되어요.

게다가 전 애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도 마음 고생이 심하신 것 같아요. 미처 정을 떼지 못하셨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니 상대방은 이미 다른 애인이 있다고 하고 그 새 애인을 이미 님과 헤어지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하니 님이 그 때 느꼈을 당혹감과 절망감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님, 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행동을 하셨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원은 님의 답답함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진심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님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그 누구라도 님처럼 힘겨울 것이에요. 하지만 분노가 치민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그 수단으로 아우팅을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계기를 님 스스로 만들고 계신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님의 전 애인 분이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게 님이 그 분을 아우팅 시켜도 되는 거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레즈비언으로서 아우팅 당하지 않을 권리는 모든 레즈비언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 레즈비언들끼리 서로서로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님은 본인 역시 한 명의 레즈비언임에도 불구하고 레즈비언들의 열악한 상황을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용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글을 지우셨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글이 올라 있던 시간동안 그 글을 봤을 전 애인의 지인들이 없지 않을 테니 전 애인분이 곤란해질 확률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님도 이 부분은 님이 잘못하신 거란 점을 아시리라 생각해요. 만일 전 애인분이 그 부분에 대

해서 문제제기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진심으로 사과 하시라고, 꼭 그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서로를 상처 입히는 방식의 복수가 돌고 돌면 두 분 다 점점 더 힘들어 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추스를 수 있는 건 본인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오래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지면 그 자체로도 힘들게 마련인데 지금님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얹혀 더 피로우신거라 스스로를 다스리고 추스르는 일이 정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식사도 조금씩 챙겨서하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면서 건강 관리도 좀 하세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문제는 강제로 그 방향을 틀 수 없는 것이니 전 애인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이란 억지로 붙들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한들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닐 터이니까요. 헤어져야 할 때가 되어 헤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감정을 옮겨 가는 건,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두근거리던 마음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랍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님의 마음이 차츰 편안해 질 수 있는 길일 거예요. 나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 같은 것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될 거고요.

다만 금전적으로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전 애인에게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찬찬히 고민해 보셔야 하겠지요. 상담원은 두 분 사이에 돈이 오고간 맥락을 자세히 모르겠기도 하고 사실 교제 관계와 엮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란 게 있기 어려운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님,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번 노력을 해 봐요.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상대방을 해하는 방식으로 표출하지 말고요, 생산적으로 발산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는다면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다독일 것인지에 대해서나, 돈문제를 해결할 방식 등에 대해서도 찬찬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어떻게든 그 사람과 얘기해서 그 사람이 돈을 갚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귀던 시절 내가 비용을 낸 거라고 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자신이 가장 원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님의 몫일 터이고요.

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내 자신을 돌본다는 것에는 남에 대한 존중도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직장을 그만두면님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마음 해소엔 할 곳 없으면 상담소가 항상 귀 기울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3-4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고백하고 싶은데, 그 사람도 여자고 저도 여자라 걱정이 됩니다.

내담 고민한지 일 년이 넘어가는 일이네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상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처음 입을 열어 봅니다. 저는 갓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남자애처럼 자라다보니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서도 한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저는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스스로도 그러다 말려니 했는데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선생님이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남자친구를 사귀어 봤는데,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키스를 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각나고, 그 남자친구와 같이 있을 때면 막 혐오감이 일었습니다. 결국 그 관계를 정리했죠. 좋아서 사킨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선생님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선생님도 여자라, 말쑥조차 못드려 보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 저를 싫어하실까봐 겁이 납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회적 압박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당당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싫습니다. 힘드네요.

상담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려요.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상담소에 님의 이야기를 털어놓아 주셨네요. 그 동안 혼자서 속으로만 고민해 오시면서 무척 답답하고 괴로웠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소를 찾아오시길 참 잘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말문을 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괴로운 상태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제부터 상담소와 함께 님의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여자 선생님을 좋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님이, 동성의 상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나는 저 사람을 많이 좋아한다' 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이 저는 우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상대가 아닌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사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자기 감정을 아예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도 무척 많기 때문이에요. 이성의 상대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면 당장에 '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종류의 감정이라 해도, 동성의 상대에게 그 감정이 느껴지면, 이게 우정인가 동정인가 사랑인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사랑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동성의 상대를 좋아한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여야 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피하게 되곤 하는 것일 거예요. 남들이 비정상이라고 변태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니깐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님은 일단 본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님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여자를 좋아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상담원은 알 수 있었어요. 동성간의 사랑이 비판받는

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에 자꾸만 사로잡힌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사귀어 보았지만, 그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도 않고 오히려 싫기만 해서, 그 관계도 정리해 버리셨다는 말씀 역시 해 주셨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정말 안 되는 것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이끌린 건데 그 감정을 부정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게 아닐까', 하는 등의 생각으로 혼란스러우신 것, 상담원인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대한 내 마음을 스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었다 해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간의 사랑과 성관계와 결혼만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동성 간의 사랑과 교제에 대해서는 문란하고 변태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식으로 욕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동성의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욱 뼈아프게 그러한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욕을 먹는 당사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억지로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이성의 상대와 교제하거나 결혼하기도 한답니다. 동성애를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사회적 시선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려고 했던 님의 시도도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나에게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였을 수 있을 터이니까요.

하지만 님, 분명한 건 동성애가 비정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과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우리 사회가 워낙에 이성간의 커플 관계만을 용인하고 장려하다 보니, 저마다 자기 안에 있는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미처 발견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당연히 자기 자신이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게 될 뿐이고요. 그러니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건 오히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억압하는 우리 사회라고 할 수 있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누군가가 예뻐 보이는 마음, 누군가를 만지고 싶은 욕구 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때, 상대의 성별이 이성이나 동성이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성과 남성 간에도, 여성들 간에도, 남성들 간에도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고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사랑에는 인종도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성별도 없다, 는 말도 추가하고 싶네요. 동성 간의 사랑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격려 받아야 할 아름다운 감정이지, 사람들이 흔히 욕하는 것처럼 이상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남자 같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 같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하는 것 역시 아니랍니다. 이성커플 중에도 실로 다양한 모습의 여성과 남성이 있듯,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보이시한 레즈비언이 있는 반면, 소위 '여성스럽다' 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진 레즈비언도 대단히 많지요. 물론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하는 구분 자체

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허구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 님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고민거리가 또 있지요, 지금 님에게는. 과연 선생님께 님의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 좋을까 하는 부분 말이에요. 우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려온 것처럼, 님이 현재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제자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될 수 있고, 당연히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님의 감정을 선생님에게 알렸을 때, 선생님의 반응이 어떠할까 하는 점이 걱정이 될 뿐이죠. 이성의 선생님에게라면 애교 부리듯이 고백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님의 경우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동성이라 난처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동성 간의 이끌림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반응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동성애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님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선생님께서 님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동성애 자체에 적대적인 분이 아니라고 해도 님이 선생님을 생각하는 감정과 같은 감정을 님에게 느끼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것이고요. 동성의 상대에게 고백을 한다는 건, 고백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에게 알리는 일이 되기도 해서,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학교 안이다 보니, 님의 이후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게 되고요. 소문이라도 퍼지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건, 선생님들로부터건, 곤란한 일을 겪을 있으니 말이지요. 만일에 선생님께 고백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다면, 고백을 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의 경우를 미리 예측해 보고 그 상황들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본 뒤에 고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님이 받을 수도 있을 상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터이고요.

그저 그 사람이 좋을 뿐인데,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그렇지만 님,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태도를 잃지 마세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가 느끼는 자기 마음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이니까요. 고민되는 것이 있을 때면, 앞으로도 혼자서 괴로워하기보다 상담소를 찾아서 저희와 함께 나눠 주시고요.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님. 힘 내세요.

4. 성관계 문제

4-1 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내담 저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 사귀던 사람들과는 성관계를 했었고,

제가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불감증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 전, 애인과 외박을 할 때 스킨십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웠습니다.

애인이 저에게 스킨십을 하고자 할 때, 저는 이상한 기분에 애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뭔가, 저희 사이에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애인에게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사과할 용기도 안 나고요. 그냥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상담 님, 상담소예요. 함께 고민을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전의 사귀던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데, 현재 애인과의 성관계는 피하고 싶다고요. 애인분은 님과의 스킨십을 원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있는가 봐요. 애인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올려주셨네요. 님의 글을 읽으며 님의 걱정과 불안이 와 닿아 상담원도 참 안타까웠어요.

상담소에는 님 외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유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여러 분들이 성관계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스킨십이 망설여지는 것에 관해 내가 유달리 이상한 사람이라는 자책은 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사람마다 스킨십에 대해서 여러 다른 느낌과 욕구,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안에서 성관계에 관한 감정들이 시기나 상황, 상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스킨십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곧 지금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님의 느낌들이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것도 결코 아니구요.

이처럼 님의 감정이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요. 교제관계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맞춰질 수 없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대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요, 상대방과 님이 가지는 스킨십의 욕구가 다르다면 이로 인해 두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솔직한 대화일 테고요.

지금 님이 가지고 있는 스킨십에 대한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요, 또 님께서 표현하셨듯이 자존심으로 인해 대화를 시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상대방의 오해와 불신은 커질 거예요. 이를테면 애인분은 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애인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셨으면 해요. 애인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님이 스킨십을 하기에 마음의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님의 불안이 잦아들고 두분 관계에 신뢰가 쌓이면서, 성관계에 관한 욕구가 다시금 생길 수 있을지 모르구요.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황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애인분과 대화를 나누어 나가며 님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왜 스킨십을 피하고 싶은지,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말이에요. 외박을 해서 익숙지 않은 환경 때문이었는지, 애인의 방식이 나와 맞지 않았는지, 내 안에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인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한결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님. 애인분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고요. 그런 님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았던 님의 마음, 그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데 애인분과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이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또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것은 좋겠지만요. 애인분에게 맞추어 억지로 님의 느낌과 감정들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님과 애인분 모두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님이 지금 스킨십이 두렵다는 것이 두분이 헤어져야 하는 이유 그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우선은 두분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노력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대화해 나가는 과정은 오히려 두분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도 있겠고 말이에요. 많이 걱정되고 괴롭겠지만, 님의 마음에 솔직해지고 애인분께도 최대한 솔직해지면서 용기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상담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님과 애인분의 관계가 안정을 되찾기를, 그리고 님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기를 상담원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님, 힘내세요!

4-2 애인은 그러지 않는데, 저만 성관계를 원하고 성욕을 느낀다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내담 저희 커플은 오랫동안 성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애인을 만지기라도 하면 애인은 제 손을 내팽겨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전혀 성관계를 원치 않으니 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런 반응을 보았을 때는, 애인을 기다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성관계를 원했고, 애인도 언젠가는 성관계를 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애인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헤어짐을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인도, 저도 진심으로 이별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애인이 제 몸을 뿌리치고 저에게 더럽고 변태 같다고 말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성욕을 느끼고 성관계를 느낀다는 것이 창피하고 더럽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 성욕을 느끼는 건지...

애인은 저보고 성욕을 느끼는 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성욕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인과 스치는 것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제가 성욕을 느끼게 될까봐요. 그리고 애인이 다시 저를 거절할까봐요. 저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사랑의 전부는 아닌데, 성욕을 느끼고 성관계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제가 나쁜 건가요? 더러운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그 마음이 전해져 와서 상담원도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에게도 털어 놓기 힘든 이야기였겠지요. 오랫동안 혼자 앓으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상담소를 찾아오시길 잘 하셨습니다.

워낙에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해 금기시하지요. 성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강해요. 때문에 성관계를 진정으로 아름답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님. 성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에요. 님이 이상하거나 더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님의 말씀처럼, 육체적인 사랑이 사랑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요. 정신적인 사랑이 사랑의 전부라고 볼 수도 없답니다.

사랑은 서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눈빛만으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할지 몰라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 온 두 사람이 오해와 불신을 쌓지 않고, 서로의 진심어린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려면 그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중요해요.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식에는 성관계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몸으로 교감하는 일이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것보다 나쁜 것이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애인분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고요. 님이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듯, 애인분이 성관계를 원치 않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성욕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애인분이 님에게 더럽다고 말하고 성욕을 없애라고 요구함으로써, 님께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관계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만들어가거나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은, 둘이 함께 있기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서로의 느낌이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해결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애인분은 님께 계속 심한 비난을 해오신 거잖아요. 님의 자존감을 해쳤고요.

이제까지 있어 왔던 일들, 서로가 가졌던 감정과 욕구들에 대해 애인분과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보셨으면 해요. 상대에게 잘못된 일이나 미안한 점이 있다면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을 모색해보셨으면 해요. 애인분이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를테면 애인분에게 성적으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것인지,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인지 등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애인분께 동성간 성관계가 더럽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전달하실 수 있었으면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혹은 대화 자체가 불간섭하다면, 서로

가 원하는 관계의 상이 명확히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는 님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도 미리 예상해보시길 권해 드려요. 현재 님은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성욕을 느낄까' 하고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고 계세요. 그리고 님 자신이 바뀌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인분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게 되신 거겠지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님께서 느끼는 감정과 욕구를 죄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셨을런지요... 하지만 님께서 애인 분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된 게 결코 아니에요. 님이 성욕을 없애야 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 이제는 상처를 보듬어주고, 님이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님. 지금 님의 삶, 님과 애인분과의 관계가 님이 원하는 행복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되돌아보셔요.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그럼 이만 상담을 마칩니다. 힘내세요, 님.

4-3 여자를 좋아하지만, 성적으로는 남자에게 이끌려요.

내담 저는 정신적으로는 여자를 좋아하지만 성적으로는 끌리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면 흥분이 되고, 남자랑 성관계를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이고 지금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영상을 볼 때는 남자와 성관계를 해보고 싶지만, 실제 남자를 보면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들은 무섭고 싫어요.

누가 그러던데,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진짜 좋아하는 대상이라고... 그럼 저는 이반에서 벗어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여자에게 느꼈던 가슴 떨리는 감정을 남자에게도 느낄수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성을 보고 가슴 떨려 하는데, 저는 동성에게 이러는 걸까요?

상담 님 반갑습니다. 님은 많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정신적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성적으로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 같다고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면 흥분이 되고 남자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님, 지금 님의 감정이나 느낌이 무척 당혹스럽겠지만, 사실 님이 고민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일단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정의를 내리죠. 보고 싶은 마음, 가슴 떨림, 질투, 함께 있고 싶은 것, 안아주거나 안기고 싶은 감정, 만지거나 키스하고 싶다는 욕구 등의 여러 감정과 마음을 통해 이것이 사랑인가보다 생각하는 거죠.

성적으로 끌린다는 것도 정의 내리기 어려운 문제예요. 과연 성적인 이끌림이 무엇을 의미할지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요. 성적으로 끌린다는

것이 반드시 님이 동영상을 통해 보았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볼을 만지고 싶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싶거나, 상대방을 안아주고 안기고 싶은 마음도 성적으로 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머리 속으로 생각하고 그려보는 섹스의 느낌이, 실제의 느낌이나 경험과 차이가 나기도 한답니다. 또한 영화 속 등장인물과 실제 주위 사람들이 주는 느낌은 많이 다르죠. 특히, 영화나 책들에 등장하는 사랑과 섹스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 이성애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혼란을 많이 겪어요. 머리 속으로 이성과의 사랑과 섹스를 원하는데, 실제로 이성을 사랑하게 되지도 않으니까요. 정체성에 대한 탐색 과정 중에, 남자친구를 사귀어 성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즐겁지 않으니까요.

님, 상담소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성관계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란 점이에요. 자신의 몸과 성적욕구와 성감대에 대해서도 차츰 알게 되고, 스킨십과 섹스의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성의 상대와 성관계를 가져보고자 한다거나,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 건 아닌지 고민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해요. 앞으로 겪게 될 다양한 느낌들과 경험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님, 보통 사람들은 가슴 떨리는 감정을 남자에게 느낄 텐데, 왜 여성에게 느끼는 지 걱정스럽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하지만 동성에게 향하는 이끌림은 벗어나야 할 나쁘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회가 이상한 거죠. 동성을 향한 이끌림이 가슴 떨림의 감정이든, 성적인 감정이든 모두가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중요한 것은 님의 이끌림의 감정이 무시당하고 회피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선 존중해주는 것이 좋아요. 죄책감을 느끼거나 꺼림칙하게 생각할 필요 없답니다. 또한 누구도 님에게 이성애자로 살라거나 동성애자로 살라고 명령할 수 없고,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내가 동성애자면 어떡하지?' 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한 감정을 숨기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솔직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님, 아직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 마음이 편안한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어떤 건 포기할 수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게될 날이 올 거예요.

님이 동성애자로 살건 이성애자로 살건, 결혼하건 안 하건 간에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님의 감정과 경험들을 존중해주세요. 지금의 고민들이 님의 앞으로의 삶을 보다 성숙하게 해주리라 믿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고민거리가 있거나 의문점이 생기면 지금처럼 또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세요. 동성애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정성껏 답변과 조언을 드릴게요.

4-4 성관계 후, 냉이 심하고 피도 났습니다.

내담 성관계를 가진 후에 피도 꽤 나고 냉이 심해졌어요. 냉에서 냄새도 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걱정이예요... 하지만 병원을 가기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님, 상담소예요. 몸의 변화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반가워요. 상담소에 참 잘 오셨어요.

님께서 성관계 이후 냉이 많이 나오고 냉에서 냄새도 난다고 하셨지요. 피도 나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담원이 생각하기에는 질염일 확률이 높아요. 피가 나는 것은 질 안에 상처가 생겨서 그런 것이거나 자궁 등에 병이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먼저 질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제외하고는, 질염은 꼭 성관계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예요. 질 안의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게 되지요. 질염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다고도 하는, 흔한 여성질환이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다른 병으로 변질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산부인과에 가서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에 가자니 두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부인과는 무섭거나 이상한 곳이 아니니 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해요. 산부인과에 가서 증상을 말씀하시면 검사를 받게 되실 거예요. 질염의 경우에 다른 여성질환에 비해 치료가 간단한 편이라서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물처방을 통해 수일내에 치료할 수 있어요. 질염은 치료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편도 아니니, 용기내서 산부인과에 가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런데 님. 성관계 당시에 피가 나왔다고 하셨지요. 질에 상처를 입어 질내 면역력이 약해져 질염에도 더 쉽게 노출되었을 수 있어요. 혹은 자궁질환 등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역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하답니다.

성관계는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요,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하시는 게 좋겠지요. 피가 나올 정도라면 안전한 성관계는 아닐 거예요. 손톱을 잘 다듬고 손을 청결히 하는 등 평소에 손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과격한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을 테고요.

당분간은 성관계를 쉬면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편이 낫겠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트리코모나스 질염일 경우에는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것이므로 파트너분도 진단을 받아봐야 하겠고요. 애인분과 많은 대화를 하고 상의 하셔서 두분께 만족스러우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님. 질염의 예방법에 대해 정보를 드리자면요. 무엇보다도 질 주변을 청결히 하는 게 중요해요. 습기가 차 있거나 딱 끼는 속옷을 입지 않고 면으로 된 속옷을 자주 갈아 입으시고요. 질 주변을 흐르는 물로 자주 씻어주는 것은 좋지만, 질

세정액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비누로 질 안까지 씻는 것도 금물이고요. 질 안의 좋은 세균까지 죽일 수 있답니다.

님. 글을 짧게 남겨주셨지만 님의 걱정이 상담원의 마음에도 느껴져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몸의 낯선 변화에 겁이 나고 두려운 님의 마음에 동감이 되어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니 용기내셔서, 산부인과에 방문하셨으면 해요. 언제나 몸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평소에 건강에 주의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럼 님. 이만 상담을 마칠게요. 궁금한 점이나 고민되는 점이 있다면, 상담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또 글 남겨주세요. 님의 쾌유를, 상담원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5. 이성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와 성정체성 고민

2-1 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으로 여자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내담 어린 아이였을 때 남자한테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친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쪽 사촌 오빠가 자기 성기를 갖다 대는 등의 짓을 했습니다. 그건 일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어렸고, 말로 표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짓을 당하면서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때 그 일들은 정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남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발전해서 남자를 싫어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자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남자들은 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서인 것 같아요.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상담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친척 댁에서 잠을 자는데 사촌 오빠가 몸을 만지도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등의 짓을 했다고요. 그땐 너무 어리고 놀라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님의 괴로움을 낱알이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이 님에게 어떤 경험이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가슴 아픈 기억을 털어놓아 주신 것, 그 용기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여성들 중에는 그런 경험을 겪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떠올리기도 싫은 경험이고, 생각할수록 불쾌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감마저 느껴지는 그런 기억이죠. 그런 일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냥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도 않지요. 님은 그 일이 남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발전해서, 남자를 싫어하게 된 걸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로군요. 남자는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신다고요. 본인이 그런 일로 인해서 남자를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전체 남자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그들과 친밀 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성폭력 피해가 사람의 성정체성을 이성애자에서 동성애자로 돌려놓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 중에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여성들 얼마든지 많이 있지요. 남성집단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선 남자애인을 사귀는 여성들도 많이 있답니다.

또,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남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성문화에 혐오감을 느끼는 여성들 중에 이성애자들도 많죠.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간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님이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는 이유가, 성폭행의 경험 때문에, 남성을 싫어해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답니다. 성폭력 피해는 님에게 많은 상처와 괴로움을 남겼고, 그 영향으로 님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다 해도 그것이 곧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동성의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건 꼭 어떤 이유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랍니다.

지금 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자신의 느낌을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요. 님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님이 현재 겪고 있는 감정이나 경험들을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하고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도 없답니다. 상담원은 님이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남성들에게 느끼는 거부감이나 혐오감도 지금처럼 크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일상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남성들의 폭력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지낼 수 있게 될 수 있고요. 또 이성이든 동성이든 타인에 대한 느낌들은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니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님, 또 고민거리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처럼 또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혹시라도 과거의 경험이 님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만큼 상담원에게 풀어놓으면서 속을 조금이나마 후련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동성애에 대해 더 알고 싶다 할 때도 언제든지 주저말고 다시 상담 요청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 잃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 상담을 마칠게요.

2-2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성관계에 집착하게 된 저 자신이 혐오스럽습니다.

내담 저는 고등학교 갓 입학한 여고생입니다. 아무래도 제 자신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사귀었다가 헤어진 상태고요. 헤어질 때 이 사람에게 들은 말이 저를 괴롭힙니다.

유년기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번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제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적도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집에 놀러온 아는 오빠가 그 아저씨와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저씨나 오빠와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위도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그게 자위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고 나서는 제 자신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죽고싶을만큼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런 제 경험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자신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반 여자 아이가 제게 고백을 해 왔는데, 저도 그 친구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감정을 접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 이후 저는 여자 친구를 몇 번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사귄 때마다 제가 애인에게 무척 집착하고 성관계에 매달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관계가 급진전 됐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성관계같은 게 싫었는지 애인들은 저를 금세 차버리곤 했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저의 전 애인과 헤어질 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기로부터 성적인 것만 원하는 것 같다고,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남자였다면 저를 변태로 봤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귀자는 말도, 데이트 하자는 제안도, 같이 자자는 이야기도 다 제가 했고 제가 리드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그녀가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기에 저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관계를 어머니께 들키게 된 일이 있어, 겁을 먹은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그 뒤로도 저는 그녀에게 예전처럼 계속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너는 나란 사람보다 스킨십을 더 원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자인 것도 너무 싫다고 했습니다. '네가 여자가 아니라면' 이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그녀에게 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그녀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혐오할 거라는 생각이 머리 속을 떠나질 않아요. 자꾸 악몽을 꾸니다. 죽어버리고 싶어 여러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제가 다시 성관계에만 집착하고 그녀를 괴롭힐까봐 겁이 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길 할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제게 도움을 줘 주세요.

상담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님이 겪고 있을 고통이 절절히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어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우선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이 여전히 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후유증과 자신이 성관계에 집착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뒤섞인 채 님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 역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와 뒤이은 그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도 많이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자기 자신을 끝없이 혐오하게 된다는 말씀이 상담원인 저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와요. 님 안에 응어리져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님의 몸과 마음을 꿰고 하고 있다는 느

낌이 들거든요. 수없이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는 말씀에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은 님이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잘 다스려 보기 위해서, 스스로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상담소로 메일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울게요. 우리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요.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질 수 있게,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게 말이에요. 상담소를 찾을 용기를 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은 말아요. 언제든 상담소를 찾아주시면 되니까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님, 여러 번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어릴 적의 일이라고 그때의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그것이 성폭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님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해요. 꼭 어린 시절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후적으로 그것이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피해 당시의 미심쩍고 이상하고 두려운 기분이 불쾌감과 혐오감 그리고 분노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곤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피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게 되고 자기가 그 때의 일로 더럽혀졌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지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성폭력 가해자와 남성들에 대한 혐오 및 공포와 함께 자신에 대한 혐오감까지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상담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잘못은 님의 몸을 자기 멋대로 만진 그 남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어요. 자기 몸에 가해지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를만큼 어렸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조차 없었던 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사실어요. 그 때의 일이 떠올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여전히 님에게 자주 찾아오겠지만 그 때 마다 꼭 떠올려 줘요. 님은 가해자들에게 분노하면 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 하거나 책망하거나 혐오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님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것이에요. 님에게 성폭력을 행한 가해자들은 님이 자기 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님은 그 당시의 성폭력 피해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님이 천천히 해 나가야 할 일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뒤에도 지금까지 곳곳이 버티며 살아온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다독이고 더 많이 격려하는 일 뿐이에요.

여러 번의 성폭력 피해를 입고 난 뒤 얼마 안 되어서부터 자위를 하게 되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게 자위라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로 하기 시작했다고도 적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님의 말씀을 듣기에 님은 자기가 자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성폭력 피해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위를 하게 된 자기 자신을 더 심하게 혐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를 입을 때 당시에 그 가해자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의 몸을 만져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이따금씩 자위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점점 더 혐오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폭력과 자위는 엄연히 달라요. 내가 그토록 진저리를 치면서 떠올리는

피해의 경험과 내가 하고 있는 자위가 과연 뭐가 다른가, 나는 그 끔찍한 행동을 왜 스스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만일 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자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성욕을 갖는 것도, 그것을 스스로 푸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자위는 오히려 자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죠. 님의 경우, 최초의 성적인 기억이 폭력으로 점철돼 있어서, 알게 모르게 성이라는 것 자체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이 성욕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자위라는 행위로 해소한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자기 자신을 혐오스러워하지도 말아요. 님이 입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분개하되, 자신의 자위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차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는 게 좋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성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섹스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사람에 따라 유달리 성욕을 자주, 그리고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성욕을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성욕은 식욕이나 수면욕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 중 하나예요. 부끄러워 할 것도, 숨길 것도 아니지요. 여성이 성욕을 느끼는 것, 그리고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위를 하는 것은 오래도록 금기시되어 오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여성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도 허다했지만, 그건 여성의 성욕을 억압해 온 사회의 잘못된 것이고요. 또한 이 때, 내가 성욕을 느끼는 상대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워낙 이성 간의 사랑과 이성 간의 섹스와 이성 간의 결혼만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지, 성욕을 느끼는 상대가 이성의 상대이건 동성의 상대이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오히려 이성애만 옳다고 하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성욕을 느끼고 상대방과의 섹스를 통해 그것을 만족시키고자 할 때는 자위를 할 때와는 다소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섹스란 함께 나누는 것이어서 나의 욕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살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섹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아무리 처음에 함께 동의하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느 한 쪽이라도 더 이상 섹스를 하기 원치 않는다면 서로 이해를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전 애인과의 관계에 대해 돌이켜 볼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애인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했었나,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서 애인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건 아닌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때, 여자에게 성욕을 느꼈다는 죄책감, 여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가 애인에게 끊임없이 성욕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죄책감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만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다 너무 자연스러운 욕구이니까요. 다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무얼 원하고 무얼 원하지 않는지, 사랑하지만 성관계만은 너무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두 분이 서로 솔직하게 나눠 보셨는지, 찬찬히 돌이켜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어요. 사귀는 과정 중에 님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면, 그건 님이 반성해야 할 부분일 것이에요. 전 애인은 어찌면 님이 자기를 성욕을 풀 상대로만 여기고 있다고 느꼈을 지도 모르니까요. 이 점은 앞으로 어느 누구와 교제를 하시게 되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 애인 분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그 분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분은 사귀기 시작한 처음부터 관계가 종료될 그 날 까지 그 관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가 여자인 게 원망스럽다고 하고, 변태 같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들을 들어야 했던 님의 상처가 무척 크리라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겁을 내는 것은, 동성의 상대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갖는 두려움이고, 그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기 방어기제로라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지만,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모습은 사귀고 있는 상대방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니까요. 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지 눈에 보듯 전해서 제 마음도 많이 아파요.

전 애인을 못 잊겠다고 하셨죠. 앞으로 다른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될 것만 같으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일이 잘 되어서 그 분과 다시 교제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예전처럼 다시 자기 욕구에만 매달리게 될까 두려워,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도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때일수록, 보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할 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게 되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마련입니다.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고,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만 같은 참혹한 기분에 사로잡혀요. 힘들게 사랑을 했을수록 헤어짐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헤어진 애인을 다시 붙잡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지요. 다시 시작하면, 헤어지기 전보다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더 잘하리라 다짐하면서, 다시 붙잡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로 고민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님 자신이 이제까지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아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장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수 없는 상황이 못 견디게 괴로울지라도, 그 괴로움을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시작해서 줄여보려고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혼자서도 튼튼하게 하루하루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이 주는 고통, 동성의 상대를 사랑하면서 입었던 상처들, 과

같은 응어리를 팬찮다, 팬찮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서 조금씩 조금씩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큰 상처를 입고난 뒤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차츰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그 가능성들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님의 고통은, 님이 가장 잘 알고, 그만큼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벽차게 느껴지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마음을 추슬러 나가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성폭력 피해자인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왜 나는 내가 섹스에 집착한다고 생각하는가, 집착하는 것만 같다는 나의 느낌이 나의 상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부터 헤어진 애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다시 사귀자고 제안을 해 볼 것인가, 아니면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까지,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잘 다룰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원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을 두고 고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 그 괴로움을 털어놓고 싶으실 때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셔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껴주는 거예요. 님이야말로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힘이 들면, 저희 상담소가 항상 이곳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언제나 문 열어두고 있을게요. 용기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2-3 성폭력을 당한 이후, 남성 혐오가 생겼습니다.

내담 저는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몇 년 전, 학교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흥기로 나를 위협하며, 차마 입을 수도 없는 말들을 쏟아 냈던 그 남자.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끔찍한 기억들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먹고 토하기를 반복했고, 환각과 환청으로 너무나도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병원에도 갈 수 없었고, 상담을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니다. 모두가 나를 더럽다고, 바보 같다고 욕하는 것만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 저를 괴롭게 만든 또 하나의 고민은 남성혐오와 성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여자들이 더 좋아졌어요. 시간이 지날 수록 그런 생각은 더욱 확고해 집니다. 아 정말 죽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상담 님,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는 것조차도 분명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소를 찾아와 문을 두드려주신 님의 용기에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참 잘 오셨어요, 님.

님. 얼마나 힘들고 슬프세요. 님께서 겪고 계신 환청이나 환각 현상은 극심한 충

격을 받은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흔히 '트라우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처럼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지요. 상담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한 여성으로서, 많이 고통스러우실 거라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분명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성폭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님이 소중한 아름다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답니다. 앞으로 우리 상담소도 님과 치유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런데 일단, 이성 간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우리 레즈비언상담소보다는 성폭력상담소 쪽이 훨씬 전문가입니다. 성폭력상담소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 고통에서 헤어나는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그럼 이 번 상담에서는, 성적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해요. 님, 남성을 혐오하게 되었고 여성에게 기대게 된다고 하셨지요. 그런 상황에서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신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요,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사실 남성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직도 여성들이 남성에게 기대도록만 교육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남자가 왕인 이 세상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어요.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자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성들만의 문화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성의 잘못된 문화를 비판하고 남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그런 여성들이 전부 레즈비언인 것은 아니에요. 남성이 자행하는 폭력을 싫어하고 남성 일반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대해 분노하지만, 남성과 사랑에 빠질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한편 레즈비언들 중에도 남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남자연예인 팬클럽에 가입을 해 활동을 한다거나 레즈비언으로서 살고 있지만 남자연예인 A가 청혼을 한다면 생각해보 의향이 있다고 말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꽤 돼요.

'남성혐오=레즈비언' 혹은 '남성찬양=이성애자여성' 이런 것은 아닌가 봐요. 레즈비언은 남성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동성인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니 님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셨으면 해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는 것은 실상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오랜 탐색기간을 필요로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내가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남성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혹은 여성과 남성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셔요.

레즈비언 개개인이 왜 자신이 레즈비언이 됐는가를 설명할 때, 그 이유는 각각 다르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별 이유가 없다고도 해요.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남성으로부터의 극한 폭력을 경험한 것이 자신이 레즈비언이 된 이유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레즈비언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무엇이 레즈비

언이 되게 만든다, 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노릇인가 봐요. 레즈비언이 되는 원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과 원하는 것일 거예요.님께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찬찬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그러한 생각이 쉽지 않겠지요.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겪으셨던 경험을 추스리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동성애에 대한 감정, 이성애에 대한 반응들은 잠시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고 있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은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답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재 신체적으로도 성폭력의 후유증들이 보이고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꼭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고민되는 점이 생기면, 다시 상담소에 방문해주세요.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응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님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지의 마음 전해 드려요.

성폭력 경험에 대한 정리와 치유 과정, 정체체성에 대한 탐색 과정과 같은 시간들을님께서 잘 거처나가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힘내세요.

6. 아우팅

6-1 아우팅에 대한 두려움으로 커뮤니티 참여가 망설여집니다.

내담 저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한 친구를 오래 짝사랑해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해왔지만,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비로소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제가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무슨 피해를 당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디다. 제가 힘든 건 아마도 혼자 안고 가야 한다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일단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보는 것이겠죠. 그러나 너무 두렵습니다. 마음 같아선 언니 같고, 교제 경험도 많으신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조언도 듣고 싶지만요.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떻게 친목을 도모할 수 있을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아우팅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고요.

커뮤니티에 가입했다가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고생하고, 아우팅 당할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담 님, 상담소예요. 2년 간 친구를 좋아하면서, 님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요. 정체성을 탐색하는 기간 동안 고민을 거듭하며 힘든 시간을 겪

어오셨을 님께, 격려와 지지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담소에 참 잘 오셨어요. 동성인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 상대나 가족, 친구들에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요즘 님께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요. 상담원도 한 명의 레즈비언으로서 그런 님의 상황에 동감이 되고 참 마음이 아파요.

님이 지금 겪고 계신 고민처럼, 레즈비언은 고립되기가 십상이에요.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인해, 고민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은 정체성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님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생각해보셨다고요.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아우팅 당할 위험은 없는지, 두려운 마음이 크다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물론 커뮤니티에서 님이 바라는 관계, 언니 같고 조연자 같은 인연을 바로 가질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 커뮤니티 중에서 님에게 맞는 커뮤니티를 찾고 그 안에서 님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분명 님께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님은 원하는 관계의 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좋은 인연을 맺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우팅 문제는 님이 아직 친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얼굴이나 개인정보를 쉽게 공개하지 않는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상담원도 지금은 이렇게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처음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까지 무척 많이 망설였어요. 님과 같은 이유에서 말이에요.

커뮤니티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긍정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는 깊이 관계하지 않았고, 저와 성격과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힘이 되어 주었기에 제 자신을 더욱 긍정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인권단체에서도 일할 수 있었답니다.

망설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의 필요성,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확실하게 드는 경우라면, 조금만 용기를 내보세요. 님이 바라는 커뮤니티와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조금씩 조금씩 세상은 바뀌어나갈 거예요. 저희 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많은 레즈비언들이 자신을 긍정하며 씩씩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님의 주변에도 동성애자가 있을지 몰라요. 동성애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니까요.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면 아마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힘이 빠지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님을 자책하거나 미워하면서 지치지 않는 으면 해요. 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님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힘내세요 !

6-2 사촌언니로 인해, 부모님께 아우팅 되었습니다.

내담 저는 직장 문제로 가족들과 떨어져, 사촌언니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언니가 제 일기장을 보고 제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언니는 저를 보고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커밍아웃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엄마 역시 저에게 더럽다고, 창피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하고요. 가만 두지 않겠다고, 모두가 저를 협박합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상담 함부로 님의 일기장을 훔쳐 본 언니에 의해 아우팅을 당하셨군요. 현재 사촌언니도, 부모님도 모두 님이 이반이라는 사실에 대단히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 상황인가 봅니다. 어머니는 님이 집에서 떨어져 있으면, 당신이 님을 통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직장 생활도 계속 못하게 하실 걱정이신 것 같네요.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이야기해보아야 하는데, 가족들의 비난과 혐오를 견뎌낼 것이 막막하시다는 님 말씀에 상담원은 무척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부딪쳐 나가야 할 난관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너무 힘이 드시리라 생각해요. 이렇게 글로나마 용기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님, 일단은 ‘더럽다’, ‘창피하다’, ‘이해 안 간다’, ‘가만 안 놔두겠다’ 는 가족들의 동성애 혐오적인 반응에도 님 자신만은 님의 정체성을 긍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나를 욕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만큼 나 자신만이라도 나를 지켜 주어야지요. 이제부터 뚫고 나가야 할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해요.

님은 지금 부당하게 사생활을 침해 당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받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님은 더러운 사람도, 창피해 해야 할 사람도, 손가락질 받을 사람도 아니라는 것, 이반이라는 사실이 님을 그런 혐오적인 대우를 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요소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반인 님은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커밍아웃을 할 생각이 아직 없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촌언니의 무례한 일기장 훔쳐보기로 인해 갑작스레 아우팅을 당하신 상황이니, 이미 알아버린 가족들에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하죠.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을 하셔야 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완전히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이미 일기장이라는 증거를 통해 사람들은 님이 이반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 앞에 언급한 방법, 즉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거짓 말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 님의 가족들이 님을 심하게 괴롭힐 수 있겠지요. 가족들들로 부터 끊임없이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으리라 생각해요. 님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통제와 감시와 강제가 행사될 수 있고요.

이럴 때 님은 그런 대우들을 끝끝내 견디며 살아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비난만 하고 화만 내는 사람들 곁을 떠나 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님은 이미 성인이고,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길을 가고자 해도, 험난하기로는 마찬가지로일 겁니다. 양쪽 길에 다 장단점이 있기에, 님이 깊이 생각해 보신 뒤 신중하게 결정하실 문제라 생각해요. 실제로 가족이란 존재들은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가족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기란 정말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일 거예요. 누구도 쉽게 그러지 못하죠. 이러한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동성애자의 힘든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 중 뒤에 언급한 방법, 즉 거짓말로 사람들은 안심시키는 방법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말로 사람들의 의혹과 혐오감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무척 스스로에게 괴로운 방법이지만요. 제대로 효과만 발휘한다면 현재 이십대 초반인 님이 앞으로 완전히 자립해서 튼튼한 삶의 기반을 닦게 되어 집안 어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시기가 될 때까지 그래도 덜 시달리고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반임을 인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간섭과 통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님 자신이 마치 동성애 혐오적인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가족들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하는 레즈비언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님께 도움이 되었나요. 용기를 내요, 님.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되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면 언제든지 상담소를 찾아 주시고요. 특히 직접 통화를 해보면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테니까요. 가능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님의 고민과 괴로움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무너져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곳곳이, 그렇게 집에 다녀오시기를 바랄게요. 힘 내세요.

6-3 전 애인으로부터 아우팅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담 1년 정도 교제하던 중, 작년에 헤어진 애인으로부터 아우팅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서로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별 후에 전 애인으로부터 하루에 문자와 전화 수백통을 받아야 했어요. 제가 불행하길 바란다면, 아주 힘들게 살라

며, 그렇게 욕을 해댔어요.

휴대폰 번호를 바꿔 보기도 했어요. 바꾸면서 그 사람 번호로는 제게 전화가 오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취해 놓았었죠. 몇 일 동안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밤늦게 집으로 전화가 와요. 제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다른 가족들이 받으면 아무 말 않아요. 아버지 성격이 다혈질이라, 장난전화로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하세요. 제가 받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다시금 폭언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문자로도 연락이 와요. 그리고 집에서 알게 되면 너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 하고 말해요. 집에서 찾아온단 식으로도 말하고요. 이 사람 완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집에서 알게 되면, 전 정말 큰 일 나요... 아버지한테 맞고 쫓겨날 거예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자립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상담 헤어진 전 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는 상황이군요. 현재님이 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시리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애인이 남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급기야 가족들에게까지 접근해서 님을 한층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가 님의 전 애인이 해오는 전화라는 사실을 부모님이 모르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 애인이 보여주는 태도로 미루어보아 전화를 받은 부모님에게 언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님이 아우팅 위험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님이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애인의 상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가 지금 헤어진 이후로 쭉 지속되고 있는 거라면, 점점 더 스스로의 분노와 공격 심리를 제어 못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으리라는 걸 님 쪽에서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매순간 전전긍긍하며 보내면서 많이 두려우시겠지만, 우선 님이 마음을 굳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때, 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떠올리는 것이 우선일 거예요. 자신도 레즈비언이면 레즈비언들이 가족들 안에서 자신의 정체체성이 드러나지 않게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알텐데도, 그런 점을 오히려 악용해서 님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전 애인은 지금 무척 잘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님의 전 애인은 두 분이 같이 얘기해서 헤어지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짐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짐작이 되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님에게 퍼붓고 있는 각종 욕들과 함부로 내뱉는 공격성 말들 그리고 협박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입니다. 명백히 폭력적인 행동들이지요.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부모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님이 신고해서 집에 알리지 않은채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거

든요. 부모님에 대한 아우팅 염려를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현재 상대방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협박'으로 넘어서서 금 공포에 떨며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에 신고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요. 현재 저희 상담소가 평소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현장에서 일하는 형사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봐도, 레즈비언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에 대해 경찰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해결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해요.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구타를 했다거나 상해를 입혔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없는 상태로 전화, 문자, 등이 다만 빈도 높게 오고 있는 것이라면 별반 위험한 게 아니라는 정도, 로만 경찰이 인식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 경찰에 이 일을 신고해 보아도 크게 도움받을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그렇지만, 전애인으로부터 오는 협박성 문자, 걸려왔다가 이쪽에서 받으면 끊기는 전화 등은 증거로 보관해 두면 좋으리라 생각해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으로 촬영을 해 두고, 집 전화가 녹음이 되는 전화면 전화가 걸려왔다 끊기는 것들을 다 녹음을 해 두고 걸려온 시간을 기록해 두고 하면 증거로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경우 쓰일 증거들이 되겠지요.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안 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상황이 닥쳐 왔을 때, 이렇게 협박만 진행되고 있을 때의 증거들도 있으면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꼭 그러한 자료들을 없애지 말고 남겨두셨음 해요.

그리고요 님,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들에 대해서는 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내리셔야 하는 문제인데요.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대한 것과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예요.

이런 상황에서 님이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지 말라고 애원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지금 상대방의 상태로 봐서 이것은 불가능할 확률이 높지만), 겁을 줄 수도 있죠('계속 이러면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내가 이미 관련 기관에 다 알아봤다. 너 이거 후회할 일하는 거다. 나 우습게 보지 마라.' 하는 식으로요). 님이 상대방의 평소 스타일을 알고 계실터이니까,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무슨 반응이 나오리라는 것을 대체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쪽에서 '나 괴롭히는 것 그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갔을 때, 그 쪽이 겁을 먹고 주춤할지, 아니면 더 기고만장해져서 '해볼테면 해 보라,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식으로 나올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시겠어요. 만일 짐작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쪽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상대방에게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위험부담이 따르죠.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를 키워 더 막나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애원도, 이쪽에서 하면 할수록 그 쪽은 더 하고 싶어할 수도 있고...어떤 태도를 님이 선택하더라도 부담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보셨으면 해요. 상담원

으로서도 정답이라는 것을 드릴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럼, 부모님 얘기를 해 볼까요. 그 사람이 님의 부모님에게 자신과 님의 관계에 대해 말해버리는 것이 어떤지 시간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렇게 되면 정말 가장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 두는 것이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님이 받을 충격과 피해를 더는 데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가령, 전화를 받은 님의 아버지에게 그 사람이 어느 날 모든 이야기를 다 해버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으실 수도 있고, 듣자마자 분노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믿으시는 경우, 그리고 그걸 님에게 확인하려고 하시는 경우, 아버지가 안 믿는 만큼 계속 안 믿게 만들어야 해요. '아버지 생각이 맞다,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는 거다, 나도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레즈비언인 님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전 애인과의 예전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지만,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할 생각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님으로서는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하고 그 이후의 부모자식 관계를 견뎌나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앞에서 인정해 버리면,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질 것이니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노하며 님을 다그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 사람 말 믿지 말라. 이상한 사람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님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그 사람과 사귀었다는 사실을 다 '그 사람이 지어낸 얘기' 로 만들어야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황해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에 대해 '기가막혀' 하고 '화가 나' 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의 의혹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부모님에게,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와 관련된 자초지종-그 사람이 누군지, 왜 나를 괴롭히는지, 등등-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무섭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면 님의 커밍아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모님이 님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이해해 줄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지요. 극단적인 경우, '우리 딸이 위험한데 당연히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 그 사람을 혼쭐을 내 주겠다. 다시는 우리 딸 못 괴롭히게. 그렇지만 우리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건 절대 봐줄 수 없다.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충격을 받으시더라도, 딸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님의 부모님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애인이 아우팅을 안하고 지금의 행동을 그만둘수도 있는 것이다보니, 부모님께 미리 다 털어놓는다는 방안은 아무래도 부담이 더 클 수가 있지요.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대한 도움은 아마 확실히 주시겠지만, 님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못받아들이실 경우, 님의 생활을 앞으로 계속 통제하려 하실 거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님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판단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변화해 가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니, 저희에게 계속 연락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진다면, 취해볼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또 생각해 봐야하니깐요. 이렇게 일단 메일로 답장을 드립니다만, 상담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상담전화번호는 02) 718-3542 이고요. 전화 주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거예요.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거나, 상황이 위급해져서 메일을 쓸 겨를도 답메일이 올 때를 기다릴 시간도 없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바로 연락해 주세요. 용기 잃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도울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7. 괴롭힘과 따돌림

7-1 아우팅을 당한 뒤로, 매일매일이 지옥같아요.

내담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 친구에게 아우팅을 당했어요. 그 후로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너무 심하게 괴롭힙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친한 레즈비언 친구들을 두고도, 우리끼리 돌려 가면서 사귄다는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자리를 비우면 책이 찢어져 있고요. 제 가방, 지갑을 뒤지고 책상도 밟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모르는 학생들이 제 외모를 보고 레즈비언이라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 일도 있었어요. 비정상이라고요. 정말 학교 다니기가 싫습니다. 가끔은 정말 자살해 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레즈비언 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전 정말 학교 다니기 싫습니다.

상담 학교 친구들과로부터 아우팅을 당하셨군요. 복도, 교실 가릴 것 없이 학교 안에서 받는 손가락질과 괴롭힘, 집에 가는 버스 안, 길거리에서 님을 쳐다 보는 시선, 님의 지갑을 몰래 뒤져 본다든지 하는 등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으시네요.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요.

지금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상담원도 님이 써주신 메일을 읽으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에는 님처럼 학교에서 아우팅 당해 괴롭힘을 당하는 십대 이반 분들이 많은 문의와 상담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십대 이반들은 또래 친구들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학교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벌점을 받고, 심하게는 자진 퇴학이나 전학을 강제하기도 해요.

모든 레즈비언들의 삶도 쉽지 않지만, 특히 십대 시기의 레즈비언들이 처해진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십대 이반에 대해 동성애를 한 때의 탈선, 꼭

교정해야 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십대 이반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라는 작은 집단 안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부정적인 시선과 괴롭힘들은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성애가 '보통'이고 '정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동성을 사랑하는 레즈비언들의 존재가 눈엣가시처럼 보이는가 봐요. 하지만 님, 동성애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동성에게 이끌리는 감정이 어째서 비난받고 괴롭힘의 대상이 되지요? 그 점은 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지금 님을 괴롭히고 있는 다른 학생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체성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옳지 않아요. 상담원은요, 무엇보다도 님이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자긍심을 잃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별 신고와 관련한 정보를 드리자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을 차별로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성적체성으로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 조항에 추가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동성애인권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용기 잃지 마세요.

7-2 왕따가 될까 두렵습니다.

내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중학교 친구 한 명이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레즈 지나 간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요. 중학교 시절에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저라고 꼭 집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레즈비언인 것이 학교에서 알려지면 왕따 당할 것 같아요. 맞을 지도 몰라요. 저 혼자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학교 가는 게 무섭고, 그 애를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자살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도와주세요. 정말 그 애가 보기 싫고, 학교 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왜 우리 나라에서는 이반이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죽고 싶습니다. 꼭 답변 주세요.

상담 님. 많이 괴롭고 힘드시죠? 두렵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실 정도니, 지금 상황이 오죽 힘들고 괴로우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님, 한국사회에서 이반들이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과 근거 없는 혐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반들이 아무 잘못 없이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레즈비언 단체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런 고통을 없

애기 위해 노력하고, 또 많은 레즈비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당장 전부를 바꿀수는 없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많은 변화들을 만들며 노력하고 있답니다.

님, 기운내셔요. 지금 님이 학교에 다녀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교는 다른 공간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또 폐쇄적이라 님께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님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또 시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위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니깐요. 물론, 또 예전처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가 또 무슨 일을 더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고 님께 정말 든든한 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님이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님, 지금 많이 두렵고 또 세상에 혼자만 이런일을 겪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님, 그렇지만 용기를 내셔요. 님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실 만큼의 분이라면 분명 큰 용기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확신이 들어요. 자신의 용기를 끄집어내서 감정을 조금은 다독인 상태에서 지금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보도록 해요. 함께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혹시 그냥 무시하고 덤덤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다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여나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아도 님께서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난 그 소문과 상관이 없어'라고 덤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굳게, 용기를 다잡으시고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8. 기혼여성

결혼 생활 중 새롭게 레즈비언 정체성을 묻게 되는 경우

8-1 결혼까지 했는데, 제가 레즈비언인 걸까요?

내담 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의 주부고 아이도 있습니다. 한 1년전 인터넷을 통해 어떤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하지 않았고요. 서로 취미가 비슷해서 얘기가 참 잘 통했습니다. 그래 서로 매일을 자주 주고 받다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친구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너무 싫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늘 머릿속에서 그녀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녀를 잊어야 하는데, 그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을, 그것도 여자에게 이

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혹시 레즈비언인가요?

상담 친하게 지낸 동생분에게로 향하는 감정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으신가봐요.

무엇보다도님께서 동생분께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갖고있는 님 본인이 조금도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은연중에 강요되지요.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편견을 내세우며 이상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여성을 좋아하는지, 남성을 좋아하는지, 내 성정체성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정해져 있다기보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무엇을 더 바라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알아가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답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 있어 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 교제를 하고, 또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기도 하지요. 반대로 내 감정보다 사회의 시선이 더 신경쓰인다면, 아니면 내가 느낀 이 경험이 일시적인 것이고 대단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되면 그냥 한때의 감정으로 묻어두거나 그 감정을 부인하고 계속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님께서 적어주신 글을 읽어보니,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하신 것 같아 좋네요. 내 감정을 나 자신이 아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답니다. 앞서 말한대로 동성애, 동성애자가 '비정상'으로 치부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성에게 갖는 감정을 이상한 것, 부끄러워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조차 아닐 거라는 암시를 걸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참 슬픈 일이잖아요. 내 감정, 그리고 내 감정이 향하는 상대방, 그리고 그 감정을 갖고 있는 나 자신 모두를 부인하고 없애는 일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님께서 자신의 내면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솔직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러다보니 내가 레즈비언인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함께 드시나봐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남의 기준으로 너는 이성애자야, 너는 레즈비언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자 하는지예요.

님, '내가 왜 같은 여성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하고 자책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보다는 내가 이 감정을 얼마만큼 소중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남편과 지내는 지금의 삶과 동생분과의 관계 중 어떤 것을 더 우선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지금의 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만은 아닌 일이겠지만, 상대방이 같은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시선, 이러한 것들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가진 그 감정이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졌는지, 내가 앞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만약 그러한 감정을 동생분께 표현하고자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정도인지, 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만 집중해보세요.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보다 세세하게 윤곽을 잡아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일 거예요.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그리고 사회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와야 할 고민들이죠. 님께서 여태껏 만나온 많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수히 고민하고, 여럿에게 조언도 구해보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님 스스로의 마음이 가리키는대로 따르셨을 것이예요. 어려운 갈림길 앞에 서셨지만 이번에도 그 누구의 결정보다도 희망님 내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셔야 할 거예요.

다시 그러한 생각 중에,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시거나 혹은 내가 선택할 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재차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8-2 여자에게 두근거려요.

내담 저는 아이가 있는 10년차 주부입니다. 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저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러 오는 한 여자가 너무 멋져 보입니다.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니다. 키스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남자 보다는 예쁜 여자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저도 동성애자인가요?

상담 최근 경험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것 같네요. 자신의 상황과 느낌을 솔직하게 글로 써주셔서 느낌이 잘 와닿아요. 상담소에 찾아와 문의하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님은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 여성이시라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별 문제없이 지내고 계시고요. 그런데 며칠 전 한 여성분을 보고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신 거로군요. 갑자기 심장이 뛰고 집에 오는 길에도 생각이 나면서, 키스를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다고요. 여성에 대해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처음인 것 같네요. 님이 동성애자인이 혼란스러우시다고요.

님, 일단은 님이 느끼는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거나 혼란스러워하실 필요 없단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님, 잠시 타인의 시선이나 제도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나 함께 있을 때 좋은 마음, 안아주거나 안기고 싶다는 마음, 자꾸만 얼굴이 떠오르는 것, 이런 감정과 생각들은 상대방이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 소중한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게 좋아요.

그 느낌이나 감정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욱 커져서 특정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님은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고민중이신데, 그런 상황에선 누구나 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해가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쁜 여자 보는 것이 좋다고 하셨죠. 물론 님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지만, 이성애

자로 평생 살아가는 여성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델이나 영화 속 배우를 바라보는 것과,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게 되는 것과는 다르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성적체성이 날 때부터 정해져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경험과 느낌을 통해서 스스로의 성적체성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또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인류의 절반 가량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답니다.

그러니 님, 스스로의 감정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동성애자면 어떡하지? 하고 스스로에게조차 감정을 숨기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경험과 느낌들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자신을 바라보고, 여유를 갖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도 님이 겪는 경험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거나 의문이 들면 지금처럼 또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세요. 동성애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정성껏 답변과 조언을 드릴게요.

레즈비언 정체성 부정하고 결혼한 경우

8-3 남편 몰래 여자를 사귀고 있습니다.

내담 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십대 때 사랑하던 동성 애인과 헤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도 있습니다. 저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군요.

몇달전 지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상대는 35살이고 같은 동성입니다. 상대는 제가 결혼한 줄 모르고 사귀는 입장이고요. 그 사람에게 거짓말만 하는 제 자신으로 인해 더 크게 괴롭습니다. 정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하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친구가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주 잘하지만, 가정에 정이 들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이혼을 해야할지, 아니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헤어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못 살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걸까요.

상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갑갑함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메일을 읽어 내려가는 상담원에게도 절절이 다가 왔어요. 님의 글을 읽으며 상담원은 님이 얼마나 곤혹스런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원도 제 3자다 보니 지금 갖고 계실 심정을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쩌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에 대해서 심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상담소로 메일 보내 주시기를 참 잘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누구

에겐가 내 이야기를 털어 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갑갑함은 해소되곤 하니깐 말이예요.

동성의 상대에게 주로 이끌렸지만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또 새롭게 사랑하는 동성의 상대가 생겨 두 분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시면서 결혼 생활을 더욱 힘겹게 해 나가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결혼이 뭐길래, 다들 결혼이란 꼭 해야 하는 무엇으로 여기고 결혼하지 않고자 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너무나 이상하게만 여기는 게 우리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성애자들도 그런 시선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혹은 억지로 이성 상대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동성애자들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귀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도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근근이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 갑갑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이런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친구로부터 단번에 절교를 당해버린 것도 전부 다 무척 힘이 드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많은 분들이 자신이 레즈비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의 심한 결혼 압박과, 여자로, 레즈비언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고 살수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며, 결혼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원체 자기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다보니 이렇게 이성 배우자와 결혼한 많은 분들이 무척 힘겨워 하십니다. 결혼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도 하시고 계속 다른 곳으로 흐르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해서 이룬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결혼 생활 안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것, 그 점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워낙에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닌 경우가 많고 따로 마음이 이끌리는 상대가 있진 없진 이성의 상대와 결혼 상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이 때 님 처럼 사랑하는 상대가 생기고 그 사람과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뒤 교제까지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담소로 들어오는 비슷한 상담요청들 중에는 님이 처한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을 털어놓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사례가 여러개이니 만큼 구체적인 부분은 또 다 다르지만요.

님, 상담원은 님에게 지금 또 다시 선택의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님이 사랑하는 분과 교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상 기혼자로서 외도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외도의 상대가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라는 게 여느 외도와는 다르지만요.

하지만 지금 님의 교제 관계가 외도라는 건 어찌면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님이 지금의 상태 - 가정생활에 대한 의무감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의 갈등-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일 터이죠.

진짜 나 자신으로, 진짜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인지상정일 것이잖아요. 결혼이 제도적인 약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감정까지 통제할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 사귀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그게 사랑에 필수적인 것은 아닐테지만 님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건 현실적으로 끝까지 가능할 일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원은 걱정이 되네요.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부르게 마련이고 그렇게 된다면 님 자신이 그 상태를 견딜 수 없을 터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속여야 한다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을 것이니 말이에요. 지금 님에게는 양 극단의 선택지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남편 및 식구들에게 이 관계를 잘 숨겨서 전혀 눈치 못채게 하되 애인 분에게는 님이 기혼자라는 걸 말씀드리며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이중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도 가능하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하면서 어떤 경로로 결혼하게 되었고 이 결혼이 얼마나 내게 안맞는 옷같은지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하는 식으로 말씀 드리면서 애인 분의 이해를 구한다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거워 할지 몰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지만은 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님은 결혼 생활 자체를 힘들거워 하고 계시니까 그 점 때문 만이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원래 원했던 것도 아니고, 현재도 견디기 어렵다면 분명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혼 의사를 굳혔을 때 남편쪽에게 어떻게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고 관철시킬건가 그게 또 문제로 남겠지만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정답' 같은 말씀을 상담원이 님에게 드릴 수는 없답니다.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준비의 과정에서 내가 얻게 될 것 무어고 또 포기해야 하거나 잃게 될 것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님 자신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 숨 크게 쉬고 찬찬히 자기 마음을 짚어내려가 보세요. 막막한 심정이지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어떤 선택을 해도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은 뒤따를 테지만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에 솔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9. 우울증, 섭식장애

9-1 헤어진 애인을 생각하면 너무나 우울하고 힘이 듭니다.

내담 교체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남자를 만나서 평탄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헤어지고 친구로 지냅니다. 그 사람은 별로 다정한 성격은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도, 그 사람이 절 싫어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 살기가 싫어집니다. 기분이 우울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것도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우울증 테스트 같은거 하면 항상 상담을 받아보라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항상 웃게 해주고 싶어서 장난도 치고 활발하게 행동합니다.

제가 애정 결핍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에게 자기 비하가 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아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음악 치료 등을 통해 안정을 찾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제 삶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병인 것 같아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님, 반갑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평탄하지만은 않은 지금의 상황들이 님을 괴롭히고 있나 보군요. 우리 사회는 이성을 좋아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동성을 좋아하는 감정은 이상한 것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동성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나 자신을 미워하고 책망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좋아하는 동성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더욱 속이 상하고 우울해질 거예요. 님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전부 이해하고 님과 똑같이 느낄 수는 없겠지만요, 글을 읽으면서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 상담소도 마음이 아프네요. 격려와 위로의 말씀부터 보내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이지 기쁩니다. 상담소에 참 잘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혐오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도록 무의식적으로 교육받아온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교과서에는 동성애자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적혀 있지 않고, TV에서도, 영화에서도 동성애는 변태나 정신이상자처럼 그려지지요.

하지만 말이죠, 이미 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성애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랍니다. 미국의학계에서는 벌써 30여년 전에 정신과 질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호주의학계에서는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야말로 병들었다고 해서 동성애혐오증을 정신과 질병에 넣으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법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왜 같은 여성을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즈비언 친구들을 사귀고 상담소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품고 있던 저의 부정적인 시각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은, 좋아하는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것이에요. 님께서는 심리적으로도 많이 약해져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지요? 하지만 님의 안에서 싹튼 사랑의 감정들이 소중한 만큼이나 님의

존재 자체도 충분히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어요.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사실 우울증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조금씩은 가질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워낙 사회가 압박해서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심한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종종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한 감정들은 흘러가는 대로 그저 지켜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답니다. 어찌면 그러한 느낌의 기복들은, 님이 가진 감정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다채로운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하지만 님께서 이런 저런 치료들까지 고민하고 계신 걸 보니,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에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님을 고통스럽게 할 만큼의 우울증일 수 있겠군요. 님께서 많이 지친 모습인 것 같아 상담소로서도 걱정이 되고 말이에요. 병원에 가볼까 생각도 해보셨나봐요. 하지만 신경정신과 병원에 간다고 해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용도 꽤 비싼 편이에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교적 간단한 상담 후에 약을 처방해주지요. 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면 병원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들을 궁리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담소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겠다는 점이에요. '입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이발사의 일화에 관해서 들어보셨지요? 누구나 어떤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비밀이 흥미 위주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나의 삶과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쾅쾅 숨겨놓았던 아픔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굉장히 많이 치유되기도 한답니다.

이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님과 같이 동성을 좋아한 경험들이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야 님의 상황에 대해 편견 없이 다가가고 공감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반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만약 님 자신을 이반(레즈비언)으로서 받아들이셨다면, 이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친구를 사귀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직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겠어요. 게시판 상담 말고, 면접 상담이나 전화상담도 가능하답니다.

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집착하고 그사람이 님의 삶 중심에 서는 것이 병인지 어떤지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짝사랑을 하고 있든 교제를 하고 있든, 나의 모든 삶은 좋아하는 상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패턴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집중력을 갖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폭 빠져 있고는 해요. 이러한 상태 자체가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한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의 생활이 통제 밖으로 벗

어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없겠지요. 내 생활은 바로 나 자신이 꾸려나가고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님의 마음 속에서 '앗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나' 혹은 '내가 너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나'라는 문제의식이 생겨날 때예요, 그것에 대해 찬찬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신호일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님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님의 감정과 경험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유부터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처럼, 님의 삶의 주인은 님이 되어야 하잖아요. 님께서 많이 좋아하는 그분은 분명 멋지고 예쁜 사람이겠지만요, 그분만큼이나 님 역시도 가치있고 아름다운 사람일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중심에 두고, 그분과의 관계를 고민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돌파구는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를 꼼꼼히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분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일도 중요할 것 같네요.

별써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님께서 처해계신 상황을 솔직하고 용기있게 올려 주셔서 상담소도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상담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님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한 사람이예요. 그 점을 잊지 마세요.

9-2 그녀에게 거절당하고, 너무 괴로워서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내담 얼마 전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같은 학교 친구였는데, 그 후 그녀는 다른 남자 선배와 사귄다고 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 두려고 해요. 제가 너무 비겁한 건가요?

상담 님, 잘 찾아 주셨습니다. 심리적인 괴로움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야지요.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한 며칠 제대로 밥을 못 넘기는 경우는 그다지 많이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심리적인 불안감과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섭식장애로 이어져서 님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지요. 상대방과 공간 분리를 해서 님 자신을 다독이고자 하는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학교를 그만 두어야겠다는 결정, 그 결정이 님을 위한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다른 진로를 찾기 위해서 자퇴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러한 결심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라도 님 마음에 쓸쓸하게 남아 내내 님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 하는 것 등이 걱정이 되어요.

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님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건 그건 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린 가장 좋은 해결책이리라 믿어요. 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님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굳은 결심만 놓지 않고 가시면 저는 님이 상당히 가까운 시일 안에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가오는 시간들을 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님, 학교를 계속 다니건 그만두건, '내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추스르겠다'는 마음만 꼭 쥐고 나가세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님, 용기를 내세요.

10. 관련 정보 문의

10-1 결혼, 입양, 종교 관련 문의

내담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남들처럼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한테 멋쩍히고 싶대요. 하지만 우린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저도 그녀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도 길러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저의 결심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성애자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 뿐인데 말이에요.

레즈비언 단체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단체의 활동으로 사회에서 인정 받고 행복해진 레즈비언 커플이 있나요? 그리고 동성 커플이 사회에서 결혼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어요.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이별해야 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상담 님, 상담소입니다. 동성애자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무척 걱정이 되고 암담한 심정인 것 같네요.

우리 단체의 활동으로 행복해진 동성애자 커플이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한국에서 레즈비언 권리운동이 시작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전에 비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요. 무엇보다 동성애자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사회적으로 동성애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위기였고, 동성애자들은 나 혼자 이상한가 보다 하고 고통받거나 동성애자임을 부정하면서 이성애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 스스로의 정체성을 긍정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성애자로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도 많아졌지요.

님이 여쭙으신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동성애자로서 인정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성 간에 결혼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커플들이 있는지,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는 선뜻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워요.

님 일단 법적, 제도적인 테두리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사회에선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지요. 입양의 자격 요건도 '혼인한 남편과 아내'로 제한적이어서, 개인적으로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 한, 입양기관을 통해선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란 법은 없어요. 레즈비언 커플들이 동거하거나 사귀는 경우를 지속하는 경우는 많지요. 어떤 커플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결혼식'을 하기도 해요.

님, 님이 지금 이런 저런 고민을 하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고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 분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가 힘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레즈비언 관계에선 그럴 수 없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어서 견디기 힘들다고 한 것이군요.

이런 경우엔 누구도 애인 분에게 확신을 주거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레즈비언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힘겨워 한답니다. 동성애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사랑을 포기하고, 이성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누구도 타인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는 없어요. 무엇이 행복인지, 인생에서 어떤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 사람마다 각자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예요.

님, 다만 동성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줄 수는 있어요. 교회에 가면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편견일 뿐이예요. 도서출판 해울에서 펴낸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박해해 온 것이지, 신이 동성애자를 차별하라고 한 것은 아니랍니다.

1973년에 미국정신의학회가 정신과 질병목록(DSM)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랍니다. 최근엔 오히려 동성애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답니다.(호주)

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시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해주는 추세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엘튼 존과 조지 마이클은 동성연인과 결혼할 거라고 크게 보도됐죠. 반드시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계약관계', 보통 시민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국가도 있고요. 한국도 머지 않아 가족의 틀에 '동성애 가족'이 포함되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동성애자 운동진영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들에서도 '동성애 가족'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물론 낙관하긴 어려워요. 지금 이별을 선언한 애인의 마음을 돌려놓거나, 뭔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리기도 어렵고 밝혀졌을 때 당당하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요.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리 사회에선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커밍아웃한 레즈비언들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잖아요. 그만큼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회란 뜻이지요. 다만 사람마다 이를 받아들이는 성격의 차이가 있고, 또한 주위 환경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나 상담소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첫째는 님이 스스로의 성정체성에 대해 주눅 들지 말았음 하는 것이에요. 동성애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잘못된가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사회가 잘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당당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님과 애인 분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한 욕심이나 기대는 어떤 면에선 막연한 '환상'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담원은 주위에 남성과 결혼해서 사는 레즈비언 여성들을 알고 있는데요.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는 것 역시 예기치 않은 힘든 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더 옳았나, 더 행복한가는 모를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결혼해서 무척 많은 고생을 하고 결국 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아주 많잖아요. 그 중엔 결혼을 한 것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과연 결혼이라는 것이 행복의 열쇠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결혼 이후,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른 일상을 살거든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막상, 걸으면 평범해보여도 속으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기도 해요. 반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해도 용감하게 사랑과 관계를 키워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동성애자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이성애자들도 분명 있고요.

어떤 동성애자 커플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하고, 제도적으로 인정은 받지 못해도 주위 친한 사람들 속에 축복 받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고, 지지를 받고, 결혼식을 하기도 한답니다. 남성과의 동거보다는 여성과의 동거 속에서 좀더 친밀하고 알콩달콩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점이에요. 결혼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는 여성들도 많아질 거예요. 사회가 더 빨리 변화하길 바라고, 이를 위해 상담소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님, 지금 무척 힘들고 갑갑할 것 같아 안타깝네요. 상담원의 얘기가 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행복이란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도 하지요. 그러니 언제든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잊지 마세요.

11. 트랜스젠더 상담

11-1 40대 F to M 트랜스젠더

내담 남성으로 산지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호적상 이름도 남자 이름으로 바꾼 지 오래고요. 저는 다행히 기술이 있어 먹고 사는 데엔 문제가 없습디만, 어쩌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야 하는 순간이 와서, 혹은 가슴이 티가 나서, 제가 남자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항상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이 너무 싫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옷이 얇아지고 하면 아무리 동여매도 가슴 부분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 지내던 사람들도 금방 태도를 확 바꿔서 등을 돌립니다. 직장에서 내쫓기기도 했고,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바닥까지 떨어질 정도로 망한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달려있다는 게 정말 불편하고 갑갑할 뿐입니다.

10년을 넘게 함께 살았던 애인이 미안하다며 남자와 결혼한 적도 있고, 상대방의 부모가 끼어들면서 애인과 생이별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안 겪어본 일이 없지요. 6년째 함께 살고 있는 현재의 애인과는 이미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태어나길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더 이상은 숨어 살기도, 남들에게 인정 못 받고 사는 것도 싫어서 캐나다에라도 가서 꼭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저한테 지금 제게 제일 필요한 건 가슴 절개 수술입니다. 가슴만 없어도 훨씬 살기 편할 거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병원에서 의사랑 싸우면서 점점 지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한 번도 나를 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험하게 살았어도 내가 남자로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생판 모르는 의사가 가슴 제거를 해선 안 된다고 나오는 건지, 나중에 후회할 지도 모르니 그 때를 대비해서 가슴의 20%라도 남겨야 한다고 우기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담 안 그래도 나와 맞지 않는 몸에 대한 불편이나 주위의 차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의사’라는 권위만으로 제3자가 님의 중대한 결정을 무시하니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어요. 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 나눌만한 친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님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담소에 찾아오시길 잘 하셨어요.

사람들은 종종, 오랜 시간을 두고 정말 힘들고 치열하게 고민한 당사자보다 더 쉽게 나서서 너무도 간단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지요.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혐오를 느끼고 차별을 가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세상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별이 다른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과연 그 의사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님께서 자신을 남성이라고 밝히고 가슴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계속하여 님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병원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원하는 수술을 집행할

병원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트랜스젠더 관련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세 군데를 안내해드렸음) 전문 병원이 있다는 것은, 님과 비슷한 고민을 겪고 수술을 결심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요.

님이 겪으신 인생의 우여곡절을 들으며 상담원의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비정상적인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긍정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자꾸만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라고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추천해 드린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님께서 원하는 행복에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요. 힘내세요, 님!

12. 게이 상담

12-1 저는 게이일까요?

내담 저는 이십대 중반입니다. 제가 게이냐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한 3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를 좋아해본 적도 없고, 남자에게 이끌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를 좋아하죠. 지금 여자친구도 있고요. 그런데도 제가 게이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전 진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전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게이냐 되는 게 아닌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상담 님, 안녕하세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입니다. 님 본인이 게이냐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근 삼년의 시간을 고민해 오셨군요.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적어 주셨어요. 특별히 어떤 동성의 상대에게 호감을 느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과 교제해 왔는데 자신이 게이냐 아닐까란 생각이 든 뒤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무척 혼란스럽고 괴롭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담원도 잘 알 수가 없네요. 님이 어떤 계기로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말이에요.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과 교제하는데 불만족스러웠거나 거부감을 느꼈던 경험도 없으시고 남성에게 이끌림을 느끼거나 남성이 누군가를 동경했거나 그런 경험도 없으신 상태인데 왜 자신이 게이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님이 좀 더 찬찬히 자신의 경험과 느낌과 욕구에 대해 돌이켜보며 탐색해보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특정한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게 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끌리게 된다면 그 상대는 동성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거나 하는 경우에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닐까를 고민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란,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림을 느꼈던 경험이 있거나, 동성의 상대와 교제해 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험을 현재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경험을 자신이 앞으로 하게 되리라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러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점을 자신의 자아정체성에 통합시킨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런데 지금 남은 어떤 계기로 자신이 게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부터 혼란스러워 하고 계시는 와중이니까요. 상담원이 남에게 몇 가지 권해 드릴게요.

일단, 첫번째로, '난 게이가 아닐까?' 라고 처음 생각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때 어쩌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기억을 더듬어 살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로, 그 동안 해 오셨던 사랑, 교제, 성관계의 경험을 한 번 차근차근 돌이켜 보세요. 혼자 가슴앓이 했던 사랑, 첫사랑, 첫교제경험, 등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관계들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감정과 관계들 속에서 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언제, 누구와 함께였을 때 가장 행복했는지, 어떤 기억이 강렬한지..

그리고 세번째로, 앞으로 남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마음 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지(혹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은지), 앞으로 누군가와 교제하게 된다면 그 교제관계는 어떠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은지,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지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과정을 차분하게 가져 보시면 분명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의 고민은 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는 것, 동성의 상대와 교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동성의 상대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 동성의 상대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동성의 상대와 교제하는 것, 동성의 상대와 성관계 하는 것, 등은 전부 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결코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게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한 건 오히려, 이성간의 사랑과 교제와 성관계만을 정상적으로 보고

동성간의 사랑과 교제와 성관계는 있어서는 안될 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일, 등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 사회의 이성애 중심주의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억지로 억압하는 고정된 잣대니까요.

동성애는 잘못도 죄도 아니고, 비난받아야 할 것도 아니고, 없어져야 할 것도 아니랍니다. 자신에게 결함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병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아니고요. 말하자면 동성애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는 삶의 한 방식이고 동성애자란 정체성 역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 중 그 어떤 것도 누군가가 동성애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닐까 라고 인식하게 되는 사

람마다의 계기는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동성애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탐색해 나가신다면 조금은 덜 갑갑한 심정으로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상담은 이만 마치고요. 님에게 유용할 정보를 드릴게요.

저희 단체는 단체이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성으로서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게이 단체로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라는 곳이 있고요. 님과 같은 경우는 남성 분이시고 남성분으로서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라보니 저희 단체보다는 '친구사이' 쪽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해요. '친구사이' 는 주중 저녁 시간 항상 <전화 상담 창구>를 열어 놓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상담>을 하시려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 '커뮤니티' 섹션을 클릭하시고 중간 페이지 끝에 있는 '게이 지식in/상담' 이란 아이콘을 누르셨을 때 뜨는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친구사이 홈페이지: <http://chingusai.net>

친구사이 전화번호: 02-745-7942

친구사이 메일주소: chingu@chingusai.net

꼭 한 번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님이 고민하고 계신 여러가지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상세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나가시는데 이번 상담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2 게이입니다. 레즈비언과 계약결혼을 원합니다.

내담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입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 30대인데, 집에서 직장에서 점점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농담으로 받아치기도 힘들 정도로 지쳤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도 항상 결혼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니,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우울증과 자괴감이 심각해집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동성애에 관한 영화나 이야기가 나오면, 불안해지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인지 교제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결혼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성애자 여성과 결혼을 하자니, 그 여자를 제가 속이는 꼴이니 죄책감이 듭니다. 성관계도 안 하게 될 테고요. 만약 레즈비언과 서로 계약결혼을 하면 낫지 않을까요? 성관계도 안 하고 그냥 결혼만 하는 거요... 어떻게 하면 계약결혼을 원하는 레즈비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자신이 동성애자인 걸 알겠지만, 그걸 병원에서 고칠 수는 없을까요?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 싸우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혼란스러워요..

상담 님, 상담소입니다. 님의 글을 읽으며 이곳에 상담글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셨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 잘 찾아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받는 결혼의 압박과 강요는 동성애자들에게는 매우 건디기 힘든 일입니다. 상담소에도 님처럼 결혼 때문에 겪는 고민과 고통을 이야기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맞선을 보라고 닥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애인이 결혼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다, 친구/동료/지인들이 만나면 결혼 타령이라 만나고 싶지 않다, 등등. 결혼은 동성애자가 거쳐가야 하는 커다란 관문이기도 하지요. 물론 이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긴 하겠지만, 그건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고민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차피 겪어야 할 거라면 못이기는 척 맞선에 나가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싶는데 마땅한 상대가 없는 척 해야할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결혼 압력을 넘어 간다고 해도, 나의 정체성을 푹 숨겨야 한다는 일이 동성애자의 삶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로 자긍심을 갖기가 더욱 힘들니다.

님이 너무 힘들어 동성과 교제를 하고 싶지도 않고 병원에 가서 고치고 싶다고 하신 점도 이러한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 때문이겠지요. 상담원도 한 명의 동성애자로서, 님의 고민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 동성애는 결코 이상하거나 나쁜 것인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절대 저질러서는 안되는 최악 행위로 단정짓고 있지만요. 동성애는 변태 성욕이 아닌, 동성에게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지요. 동성애를 치료받아야 하고 교정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미 의학계에서는 동성애를 정신병 목록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봐요. 여성과 남성의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성과 여성이, 남성과 남성이 사랑하는 일은 어째서 잘못된 일일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배워왔는데, 왜 그것이 동성간에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님.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게 되는 데에는요. 오랜 시간에 걸친 많은 경험과 결심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첫번 째는 스스로에게 커밍아웃하는 일이에요.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마음을 다독이고 용기를 가져야 해요. 한 사람의 감정은 그 어떤 것도 비난 받거나 무시받아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은 님의 감정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닥친 결혼 문제로 언제나 전전긍긍하신다고요. 많은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끼리 계약 결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끝까지 버티 보기도 하고, 사정이 괜찮은 사람들은 독립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집안의 닥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선택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는 스스로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님께서 기대하신 계약결혼을 원하는 레즈비언을 찾는 일은 매우 안타깝지만 상담소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담소가 주관할 일은 아니니까요.

동성애를 치료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지요?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하는 병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앞으로 님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셨으면 해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나, 그렇지 않느냐는 병원에서 판단내려줄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랍니다. 님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이 나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세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그럼 건강하세요.

12-3 아우팅 협박과 금품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담 저는 남자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이고요. 카페에서 어떤 형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와의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전국에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아우팅 협박을 해와서, 현재까지 30여만을 갈취 당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한테 고소사실이 들어가, 형이 사진을 유포하고 경찰서에 가는 게 아닐지 너무 무섭습니다. 그 형은 소년원에 다녀온 전과가 있어서인지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만 해봐라, 신고하는 순간 사진 다 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제가 미성년자라 고소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께 알려야겠죠. 하지만 자세한 사진 내용까지 알리기는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제가 신고한 내용을 보고 저를 어떻게 대할지도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도 미성년자라면, 처벌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처벌 받는 거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전 합의볼 생각은 절대로 없어요.

상담 상담소입니다. 성관계 사진을 유포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달라는 아우팅 협박을 겪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실 텐데, 이렇게 상담소를 방문해서 겪으신 일들을 자세히 적어주신 님의 용기에 격려의 박수 보내드려요.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참 잘 오셨어요.

일단 가해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봐요. 가해자는 자기는 두려울 것이 없고,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 더 널리 사진을 뿌리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이대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말이에요.

일단 가해자가 이전에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해서 지금 처벌을 받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님을 향한 협박성 멘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전과가 늘

어날수록, 재범일수록 형량은 더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가해자는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요, 고소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가해자의 형량은 더 높아진답니다. 상담소에서 몇 번의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강력계 형사님과 얘기를 해보았을 때도, '보복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가중된다'라는 점을 가해자를 만나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대도 있고 하니, 고소를 하면서 혹시 가해자가 보복심리로 인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 뿌릴 수 있으니 그럴 때에는 신속하게 사진을 지워줄 것을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학교 홈페이지 주소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님도 수시로 상황을 점검해보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 경찰 쪽에 도움을 요청해서 사진을 내리도록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되는 피해를 끊기 위해서는 보복범죄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신고를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드립니다. 힘내세요.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이 걱정이라고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요, 부모님께 증거사진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런 점을 경찰 쪽에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말고 학교나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 부모님께 범죄정황을 말씀드리더라도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는 보여주지 않을 것 등을 경찰로부터 약속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님에게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고 편견에 섞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시나봐요. 님이 동성애자라고 해도 경찰에서 님을 차별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지요. 상담소에서 몇 번 사건을 처리해보았을 때 대부분의 형사들이 친절한 편에 속했던 것 같고요, 혹시 님을 불편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그런 말로 인해 불쾌할 수 있다는 점을 경찰 쪽에 전달해서 언행을 시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요즘은 각 경찰서마다 '청문감사관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만약 고소과정 중에 예기치 않은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가해자가 민사법상으로는 성인에 속하지 않는군요. 그러나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처벌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합의보실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소송으로 가신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이 될 것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사건진술 등의 일로 여러 차례 경찰서에 오고가야 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소송비용을 지불하거나 할 일은 없으실 것이고요. 협박죄, 공갈죄, 강도죄 등이 성립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형벌이 센 것은 강도죄입니다. 강도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강도죄의 처벌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더 상담받을 내용이 있으시거나 재차 확인해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글을 올려주세요. 02-718-3542로 상담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화하셔서 아우팅 협박 관련해서 게시판 상담을 받았던 사람으로 밝혀주신다면 상담원과 연결가능할 테니까요.

님.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님이 겪으신 일은 결코 님의 탓이 아니랍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님 스스로가 쥐고 계시고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나가는 멋진 님의 모습 기대할게요. 사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13. 가족 상담/지인 상담/기타

13-1 친구가 커밍아웃을 해왔어요.

내담 제가 알던 아이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그 아이가 커밍아웃을 해왔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애인과 이별했다면서 조금 힘들어 했거든요. 더 얘기해보니 오늘 헤어졌다는 그 사람이 바로 여자였더군요. 저는 이제까지 레즈비언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적이 없기에, 여자가 좋다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숨기고 지내도 되었을 텐데, 저에게 왜 굳이 말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에게 조심해야 하는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상담 님, 상담소예요. 님은 남성분이신데 알고 지내는 여자친구가 님께 커밍아웃을 해왔다고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지 여러 고민이 들어 이렇게 상담소에 방문해주신 거로군요.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반가워요.

먼저, 님이 친구분의 커밍아웃에 대해 무조건 혐오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는 점이 상담원은 참 다행스럽게 여겨져요.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면 많은 이성애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동성애자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님은 그 친구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나갈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님의 그러한 마음에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 님에게 굳이 커밍아웃을 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분의 마음을 상담원이 전부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대개는 믿을 만한 사람이나, 소중한 관계에 있기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아주 친한 관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님을 믿기에 커밍아웃을 해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이후 상대방에게 바라는 반응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님은 무척 혼란스러워 하고 계시잖아요. 그점을 숨기고자 하면 그분에게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오히려 님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을 그분

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겠어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님이 그분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의 관계에 고민이 되는 것이니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를 직접 물어보고 함께 대화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또 동성애 관련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며,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이제까지 해오셨던 대로 그분과 계속 친구로 지내며 그분을 지지해 준다면 참 좋을 테고요.

앞으로도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상담원도 바라고 있을게요. 그럼 이만 상담을 마칩니다. 또 고민이나 힘든 점 있으면 주저 말고 상담소 찾아주세요.

13-2 저는 남성인데, 레즈비언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내담 안녕하세요. 저는 이십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레즈비언 포르노를 즐겨보고, 실제로 레즈비언 커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끼리의 동성애는 너무 싫고 더럽게 느껴지는데, 레즈비언 커플을 보면 너무 좋고 흥분됩니다. 그리고 그 레즈비언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상태인가요?

상담 님, 상담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변태적인 게 아니죠. 누구나 다른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도 변태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나를 가릴 수 없지요. 그러므로 님이 한 여성을 좋아하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만 어떤 여자분을 좋아하시게 되었는데, 그 분이 레즈비언이라면, 그 분이 님을, 님이 그 분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좋아하게 될 확률이 제로가 되겠죠.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마음을 쉽게 접지 못한다면 그건 님 자신을 힘겹게 할 겁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집착으로까지 나아가면 상대방을 괴롭히게 될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그 여자분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때문에 님이 그 분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라면 그건 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님이 여성을 관음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신의 성적판타지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으로써 레즈비언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릇된 것입니다. 레즈비언은 남성들의 왜곡된 환상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상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님은 자신이 레즈비언을 떠올리며 자극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 스스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다른 방식의 판타지를 구성해 보세요. 나를 자극할 수 있는 판타지는 얼마든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아무리 상상속에서라도 여성을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상상할 때의 나의 태도를 형성하는 요소는 일상 생활 속에서의 나의 태도에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13-3 저의 여자친구가 저와 동시에 여성과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담 저는 20대의 이성애자 남성, 양성애자 애인을 둔 남성입니다. 지금 여자친구와 평소에도 성적 환타지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취미도 비슷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성생활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둘은 구속하는 삶을 원치 않아 결혼에 반대하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 명과 동시에 사귀는 것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보다 덜 개방적입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밝혔고, 여성과 동시에 사귈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의 생각에 반한 저의 생각을 관철하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둘의 관계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가깝고 무리가 없었으니까요. 그 친구는 저를 소울메이트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친구가 다른 여성을 사귀게 되면서, 제 마음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통화가 조금 줄은 것 빼고는 달라진 것도 없는데도요. 그냥 불안함을 느낍니다. 양성애자를 둔 이성애자 남성으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그녀를 떠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녀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상담 <한국레즈비언상담소>입니다. 여자 친구가, 자신은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였고 현재 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성인 상대와의 만남을 갖고 있다고요. 여자 친구도, 님도 두 분의 관계 자체를 끊고 싶은 건 결코 아닌데, 막상 여자 친구가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님 입장에서는 못내 힘에 겨우시고요. 그 마음 이해해요.

아무리 일대일 커플 관계를 지양하고 둘의 관계나 성적인 부분에 대해 항상 서로 자유롭게 소통해 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다른 파트너가 생겼을 경우, 님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상대방이 나 아닌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고 수용되어도 마음으로는 슬프고 힘든 게 어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자 친구 분의 성적체성이나 그 분이 원하는 관계의 형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님의 마음이 메일을 통해 절절히 느껴졌어요. 힘든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려 노력하시면서 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하시는 모습에서 여자 친구 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양성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시는 의지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현재 상황은 아주 평범한 연인들의 관계 패턴을 떠올려 보았을 때 여자 친구 분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여자 친구

분의 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 친구 분이 님 모르게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솔직한 고백으로 님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는 점이 여느 케이스들과 다소 다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여자 친구 분은 님을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미 전달하신 상태이네요. 여자 친구 분 마음에는 두 분 관계에 대한 신뢰도 깊이 자리하고 있으리라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분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자 친구 분의 성정체성 문제와는 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기도 하고 더 편하기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자 친구 분이 양성애자라서, 님과의 만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다른 동성의 파트너를 만나기를 원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양성애자들이 본디 동시에 이성, 동성과 관계를 맺는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인 것도 아니거나와 많은 양성애자들이 현재 파트너의 성별과 무관하게 그/녀와의 안정적인 일대일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떠올려봐도 그 점을 잘 알 수 있지요. 요점은, 양성애자 일반이 원래 다 지금 님의 여자 친구 분과 같은 행동을 취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만 님의 여자 친구 분이 '잘못하고 계시다' 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 분은 그 분대로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유지해 나가고 계시는 것일 터이니까요. 저는 다만, 님 여자 친구 분의 성정체성이 현재 두 분 사이의 관계 문제에 그리 결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분 관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관건은 오히려 오픈된 관계에 대해 두 분이 어떻게 합의해 나가느냐에 있을 거란 것이지요. 단순한 예로, 지금 여자 친구 분이 만일 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남자 분을 만나가고자 하신다면 그 때의 상황이란 지금의 상황과 전연 다를 바가 없을 터이니까요. 그 점에, 공감하세요? 두 상황이 같은 경우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이 잘 안 되신다면 그 때는 님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계실 지도 모르는 편견에 대해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 현상 유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지레 겁을 먹기보다는 여자 친구 분께 님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아서 그 감정을 여자 친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여자 친구 분이 님을 배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님 같은 분이이라면 여자 친구 분에게 무턱대고 어떤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을 조목조목 짚어 이야기 하시면서 여자 친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랬을 때, 여자 친구 분이 부담스러워서 텅겨져 나가기 보다 님과의 대화에 진지하게 임해 주실 거라는 예상도 되고요.

그리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 나가다 보면 여자 친구 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아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건, 님과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동성 파트너와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거나, 조만간 님과의 관계를 기존의 연인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로 전환시키고 싶다거나,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성과의 관계보다 동성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님도 소중하고 동성 파트너도 소중하다, 그런데 자신 역시 이 관계들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건 고민이 된다, 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아주 다른 솔직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님이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것은 님에게도 여자 친구 분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게다가 여자 친구 분이 여전히 신뢰를 표현해 오는 것과는 별개로 감정이 기우는 느낌은 그것대로 확연한데도 님만이 모든 걸 이해해야 되는 식으로 관계가 진행돼 나가서는 점점 더 힘든 일만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님의 여자 친구와 그분의 현재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그 관계는 그 관계 자체의 문제라 님도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님과 여자 친구 분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님과 여자 친구 분이 해결해야 할 몫이 분명 있겠지만 말이에요.

님, 공들여 보내 주신 메일의 행간에서 님 자신이 현명한 결정들을 내려 갈 수 있으리란 인상을 받았어요. 많이 답답하시고 마음 고생도 무척 심하시겠지만, 직접 활로를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사람 마음이나 관계라는 것이 결코 내 맘처럼만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람들을 늘 힘들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기운 내세요. 좋은 방법들을 찾아 사랑하는 분과의 관계를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유지해 나가시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3-4 아내가 레즈비언인 것 같습니다.

내담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4년째의 40대 가장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을 드나들던 여자 과외 선생님과 아내가 동성애 관계를 맺어온 것 같습니다. 그 과외 선생님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그 선생님에게 참 잘했고, 저도 무척이나 존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술에 취해서, 선생님과 아내가 안방을 쓰라고 하고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잠에서 깨어났다가 아내와 그 선생님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은지 오래 되었을 것이라는 것어요. 그 선생님이 드나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그 선생님과 둘이 약속이 있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고, 저와의 성관계를 피해왔거든요. 저와의 성관계를 피하는 부인으로 인해, 저는 한창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성관계를 목격한 당시에는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서 술을 마

시며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아내와 학생에게 제가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것을 말했죠. 둘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술김에 한 번 그랬던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사건 이후에도 둘은 계속 연락을 하고 통화를 길게 합니다. 저를 피해서 만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가끔 연락하는 것 뿐이라고 하니,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었던 것을 생각해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아내가 그 선생님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말해왔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어제 종일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둘이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며, 정말 괴롭습니다. 모두에게 상처가 덜 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저는 이혼을 고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연락을 끊었다고 하고, 그러면 서도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니다.

상담 보내 주신 메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무척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외도 사실에 충격이 크실 터인데,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르려 애쓰면서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님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털어놓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터인데, 저희 상담소를 잘 찾아주셨습니다. 무척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담원은 님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부인 분과 부인 분의 외도 상대인 과외 선생님과 대한 염려도 하게 됩니다. 님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종류는 다를지라도 그 두분 역시 현재 몹시 고통스러우실 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님과, 부인 분, 과외선생님 모두의 상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일만으로도 모두 이미 상처를 받으신 상태이니까요.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인 되시는 분이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 오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 것이고요. 부인께서 교제한 상대가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점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논외입니다. 동성간의 교제라는 점에 님께서 더 큰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인께서 그간 해 오신 것이 외도라는 사실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동성간의 교제라고 해서 외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동성간의 교제라고 해서 여느 외도 이상으로 부인께서 이중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성간의 교제도 이성간의 교제와 다를 바 없이 서로에 대한 정서적 이끌림과 성적 욕구를 동반하는 교제라는 사실과, 동성간의 교제가 그 자체만으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점만은 님께서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 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하느냐가 세 분의 당면 과제

일 것입니다. 님께서는 이혼을 생각해 오셨다고요. 평생을 함께 하리라 생각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왔던 부인 분에게, 그리고 님이 진심으로 잘해주었던 과외 선생님에게 님이 느끼고 계실 배신감과 분노 역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인 분께서 과외 선생님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상태이군요. 그렇지만 부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뒤 무척 괴로워 하고 있다는 말씀도 적어 주셨고요.

상담원은, 부부라면 무슨 일이있어도 한번 맺은 연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된 상황이라면 깨끗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 부부 양쪽에게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는 방향으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인 분이 그 선생님의 교체 관계를 끊겠다고 하시면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상황이므로 님과 부인 분이 어떤 방향으로 의논해 가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부부가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심정을 털어놓고 각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일에 대해 자신이 감내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근본적인 신뢰관계의 회복을 막는 행동일 뿐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간의 부부 관계에 전반에 대해 두 분이 함께 찬찬히 돌이켜 보면서 최근 있었던 부인의 외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령, 부인께서 님과의 잠자리를 거부했던 건, 외도 상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님과의 성적인 접촉 자체를 원치 않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당연히 상대방의 섹스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원치 않게 되면 두 사람이 의논하여 섹스 없는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상대방과의 섹스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부부 관계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인분의 솔직한 말씀을 들어보셔야 부인께서 님과의 섹스를 거부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로 들어드린 이야기까지 포함하여, 부부 관계 전반을 두 분이 함께 검토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후 두 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할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 다 이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신다면, 그 때는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부인께서, 그간 만나오셨던 과외 선생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겠다고 하시거나, 님께서 외도를 한 부인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실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겠지요. 그러나 만일 부인께서 더 이상의 외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길 원한다고 하실 때, 그리고 님께서 그러한 부인의 다짐을 믿기로 결심하신다면 두 분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부부 관계를 만들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 중요한 것은, 이후 두 사람이 어떤 식

으로 노력해 나가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만,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가정해 보면서 그럴 땐 어떻게 할까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나눠 두시는 것이 이후 이어갈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님이 느끼는 당혹감, 배신감, 분노에 대해서도 부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길 님께서 직접 권하셔야 하겠지요. 부인에게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님께서 부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터이니깐요. 그러나 아무리 분노를 표현할 때라 해도 어떤 방식의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욕설과 물리적 폭행은 상대방의 인격과 신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임과 동시에 순조로운 대화를 막아 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의 해결이 요원해지겠지요. 이 점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상담을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다시 글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이 잘 해결돼 나가길 바랍니다.

13-5 동생이 레즈비언인 것 같아요.

내담 제 동생 문제로 상담을 드리려고요. 저는 그 아이의 언니입니다.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해서, 부모님이 별거하시고 저와 동생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동생은 아버지 때문인지 남자를 싫어하더군요. 최근 들어 몰래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고, 엿들어보면 남자친구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동생이 숨겨놓은 물건들을 뒤져보니 전부 여자애한테 받은 편지와 선물들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육체적 접촉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워서 그랬나 싫어서 그랬나, 동생을 챙겨주지 못한 저한테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요. 왜 내동생인가 싫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시간이 흘러, 동생을 붙들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내가 네 물건들 봤다, 어떻게 된 거냐... 동생은 놀라고 격분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저는 울면서,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 제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동생이 말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됐고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남자는 무섭고 싫어 절대 만날 수가 없대요. 아직 레즈비언인지는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 여자랑 교제하는 건 너무 편하대요. 앞으로도 같이 살고 함께 하고 싶대요. 외로워서 그런 것도, 호기심에 그런 것도 아니래요. 참 착한 아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말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레즈비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동생이 100% 그렇다는 걸 어떻게 확

신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롭던 와중에 좋은 친구를 만난 건 아닌지요. 계속 그 여자를 만나게 해도 괜찮은 건지... 동생이 나중에 후회하면서, 말리지 않은 저를 탓할 수도 있잖아요. 동생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지.. 제가 언니로서, 어떻게 하는게 옳은 걸까요..

상담 님, 상담소입니다. 보내 주신 메일 잘 읽어보았어요. 동생 분의 일로 무척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동생이란 가장 가까운 존재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토록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동성의 상대와 교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님에게는 몹시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동생 분을 돕는 게 될지 고민스러우신 것이지요.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님이 적어주신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짚어나가며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님이 동생의 물건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열어보신 건 정말 잘못하신 일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동생 분이 많이 놀라고 격분하셨던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아무리 가족이고 자매 사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게 마련이잖아요.

물론 언니 되시는 입장에서 동생 분이 많이 걱정이 되다보니 님으로서는 그 물건들을 볼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동생 분의 사적인 기록을 동생 분 허락 없이 보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무리 알고 싶고 답답한 게 있더라도 동생 분에게 신뢰를 보여주시면서 두 분 사이의 대화로 풀어 가시기를 바라요. 동생이 모르는 사이에 몰래 알아보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생 분 말씀에 의하면 동생 분은 인터넷에서 지금의 애인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상담원은 우선 그 모든 과정에 어떤 문제도 없다는 점을 님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을 통해 다른 레즈비언들과 친해지는 것, 그 곳에서 만난 사람 중 자신에게 매력 있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교체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 과정에서 동생 분이 매력을 느끼고 고백을 받아 사귀게 된 상대가 동성의 상대라는 것이 님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요소일 것일 터인데요. 이 역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랍니다. 동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적 이끌림, 심리적 이끌림, 성적인 이끌림 등은 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자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워낙에 마치 당연하다는 듯 여성과 남성간의 애정과 성관계만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외의 모든 관계를 비정상적인 것 취급하다 보니, 동성간의 애정과 성관계 등이 대단히 이상하고 더러운 것처럼 여겨져 왔을

뿐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과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성애 관계만이 유일하게 옳은 관계인 양 배우다보니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따름이에요. 그러니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것은 동성애라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는 이성애 중심적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님은 또한, 아버지로부터의 폭행 피해 경험과 순탄치만은 않았던 가족사가 동생 분으로 하여금 남성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갖게 하고 같은 성의 상대에게 기대게끔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동생이 힘들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자책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동생 분이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된 모든 것은, 님이 마음 아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자책하시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 드렸듯 동성의 상대에게 여러 차원의 이끌림을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커플이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천륜을 거스르거나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 동생 분은 애인과의 관계에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면서 안정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동생 분이 님께 이렇게도 말씀 하셨네요. 정말 좋아해서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이렇게 동생 분이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데, 언니 분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님이 계속 자책을 하신다면 그건 님으로 하여금 동생 분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거예요. 마치 나쁜 길로 빠지는 동생을 미리 돕지 못한 언니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그러한 님의 생각 속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 이 되어버릴 터이니깐요. 그렇게 되면 동생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기 어렵게 되겠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생 분이 '어쩌다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식으로 동성애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은 동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원인을 애초에 제거해 주지 못한 걸 탓하게끔 하고 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결과(동생 분이 동성의 상대와 교제하는 것)를 원망하게끔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앞서부터 쪽 동성 교제는 그 자체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어요. 동성애적 경향은 꼭 누군가 어디가 모 자라거나, 무슨 피해를 입었어야만 갖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개개인 안에서 저마다의 계기를 거쳐 그 모양을 갖춰 가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님이 만일 동생 분 걱정을 한다면, 그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안 좋은 우리 사회의 편견의 벽을 뚫고 살아가야 할 동생 분의 노력치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기 사랑에 떳떳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 행복하다 하더라도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이 존재하는 한, 삶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님, 누군가가 확실히 동성애자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답니다. 내가 동성애자인가 아닌가는 나만이 규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그러한 척도를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백퍼센트 거짓말이에요. 상담원은, 님이 전해 주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동생 분은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탐색하고 있는 중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아, 나는 레즈비언이구나' 하는 생각을 굳혀 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본인 안에서 확신이 생겼는지는 역시 동생 분 스스로만이 알고 있겠지요.

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동생 분이 백퍼센트 레즈비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게 할 수 없는가 싶어하시는 생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경향과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경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자신은 백퍼센트 동성애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백퍼센트는 아니고 구십퍼센트만 레즈비언 성향을 갖고 있다 해서 그 구십퍼센트를 무시하고 이성애자로 살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추구하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언니 되시는 님 입장에서는 터울이 지는 동생 분이 한없이 어리게만 보일지 몰라도 동생 분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결정을 내리고 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건, 동생 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동생 분이 원하지 않는데 님이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결국 동생 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만 끼치고 말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머니께 말씀드릴 것인가, 혹은 어머니가 괜한 심려하시지 않게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동생 분이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문제랍니다. 님은 동생 분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의논하는 좋은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세요. 동생 분이 언니를 믿고 자기 얘기를 털어놓은 것일 터이니깐요.

상담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큼니다. 동생 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생 분과 이야기를 풀어 나가신다면, 동생 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만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답답하시거든 언제든 다시 상담 청해 주세요.

◎ 전화를 통한 정기 상담 사례

정기상담 보고 및 생각해 볼 것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시절부터, 메일, 게시판, 전화, 내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은 일회적인 것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후속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두 번씩 간헐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해, 그것이 1년 넘게 이어진 경우

도 있었어요.

상담소로 전환한 2005년도에는, 이러한 비정기적인 후속상담 차원을 넘어, 회기와 목표를 정해 진행하는 정기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근 간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제가 정기상담의 상담원이 되었지요. 이 글을 통해 정기상담을 진행하며 제가 느끼고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고 전문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시기 : 2005년 11월 26일 - 2006년 1월 26일

회기 : 10회기_회기 진입 시, 이미 3번의 전화 상담이 진행된 상황이었음

방법 : 전화 상담

상담원 : 김김찬영 (나무)

내담자 : 나무_확고히 정체화하지 못한 상태, 40대, 공무원, 비혼

상담주제 : 외사랑!, 이별

1. 신뢰 형성

내담자와 상담원 사이에 신뢰 형성이 어려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란, 절대적인 믿음이나 의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원과 내담자의 평등한 대화를 위해, 상담 목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기본이 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해 상담을 요청해 왔더라도, 그 내담자가 상담원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담자를 향한 상담원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이번 정기상담 초기에도, 신뢰 형성의 문제를 약간 겪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던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내담자의 나이는 40대였고, 상담을 하고 있는 저는 20대였습니다. 상담은 전화로 진행되었으나, 목소리으로도 상담원의 나이가 묻어났겠지요. 저의 어린 목소리로 인해, 처음에는 내담자가 쉽게 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화 상담이나 면접 상담을 진행할 때 왕왕 겪는 문제입니다. 가끔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내담자가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즈비언 정체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겪어 왔던 3-40대의 내담자가 20대의 어린 상담원에게 쉽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이럴 때 상담원은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린 만큼 경험도 부족하고, 동감과 이해가 미숙할 수도 있다는 점을요. 하지만 상근 간사로 활동하며 여러 세대의 레즈비언을 만나왔고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으니, 서로 신뢰하

1) 상담소의 상담카드에는 ‘짝사랑’ 항목은 있지만, ‘외사랑’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담자가 짝사랑이란 표현보다 외사랑이라는 표현을 지향했고, 정기상담에서도 줄곧 그 표현을 사용했던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도 외사랑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며 상담을 진행시켜보자는 부탁을 합니다. 상담원의 나이로 인해 상담원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내담자라 할지라도, 상담원이 먼저 자신의 포지션을 설명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상담을 시작합니다. 비록 초기에는 신뢰 형성의 문제를 겪지만, 이후에도 나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내담자와 상담원가 나이 등의 문제를 떠나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며 상담을 진행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내담자와 비슷한 연령의 상담원, 혹은 내담자가 겪었던 문제를 이미 겪었던 상담원이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상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원 층은 그리 두툽한 편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세대의 레즈비언들이 상담원으로 활동한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2. 상담 목표 잡기의 어려움

상담을 시작할 당시, 내담자는 오랫동안 한 사람을 외사랑 해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내담자의 마음을 알고, 내담자에게 친구로 지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내담자는 좋아하는 감정을 정리하기가 어려웠지요. 게다가 상대 역시, 내담자를 온전히 친구로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아닌, 그렇다고 연인도 아닌 관계를, 둘은 몇 년째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내담자는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상담의 첫 번째 목표는, 내담자가 우울증을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정기상담 초기에 정했던 목표는, 보시다시피 구체적이지 않지요. 그리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목표는 내담자가 사랑하는 상대와 교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내담자가 그 사람과의 이별을 잘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계속 시정되는 것 역시, 상담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점을 알고 있지만 목표를 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음에 잡았던 목표 자체가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첫 목표가 보다 구체적이었다면 그것이 여러 차례 시정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담 초기에 내담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친 상태였으므로 내담자가 혼자 상담목표를 정하기를 권하기보다는, 상담원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대화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목표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목표를 빨리 잡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목표잡기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둘째, 이번 정기상담의 내용이 해결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 이를테면 폭력이나 차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외사랑이라는 감정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정기상담의 회기는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주 상담에서의 내담자의 감정이나 상대와의 관계가 이번 주가 되면 또 달라져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주에는 ‘상대와 교

제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형성되었다가, 이번 주에는 '상대와 이별하기로, 연락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속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상담을 진행하며 목표를 잡고 시정하는 문제가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레즈비언 상담의 많은 비율이 정체성 고민과 교체 고민입니다. 감정과 인식 등에 관련한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담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목표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3. 동감을 넘어 직면으로

정기상담이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는, 7회기 상담 때였습니다. 제가 내담자에게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고착화된 관계의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한 이별, 교체를 위한 적극적인 구애 등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7회기까지 동감 위주의 상담이 진행되어왔기에, 이제는 직면이 필요하다는 상담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담자는 관계 변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관계가 변한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위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꺼려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원에게 가져왔던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8회기가 돌아왔을 때, 내담자는 상담을 그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담자는 저에게 느껴졌던 불편함이나 거리낌 등을 말했고, 저는 경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사과하며 동시에 직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내담자와 상담원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상담은 중단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8회기가 지난 후, 9회기를 맞았을 때는 내담자가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담자는 이별을 택했습니다.

상담원 입장에서, 실은 직면의 상담이 아닌 동감의 상담을 하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상담도 사람 사이의 일이죠. 상담원도 사람이고요. 때문에 두렵습니다. 가뜰이나 지쳐있는 내담자가 현실을 직면하게끔 도와주었다가 내담자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상담원으로서 해도 괜찮은 일인지, 그런 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동감 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령 있게, 세심하게 내담자의 직면을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도 경솔하게 내담자의 직면을 돕는 것은 내담자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4.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의 부족

내담자는 커뮤니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확고하고 긍정적으로 통합된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약한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내담자에는 동성애 혐오증이 보였고,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고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커뮤니티 활동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혐오증을 내면화한 내담자가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40대의 레즈비언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둘러본 후, 자신의 성격과 취미 등에 맞는 커뮤니티를 선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고립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상담소 전환 후 정기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원인 저 역시도 많이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요. 상담소에 상담전화부스가 설치되는 것, 다양한 상담원이 활동하는 것,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등 상담소 내부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도 필요하답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커플상담이나 정기상담을 물어오지만, 결국 일회적인 상담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이는 ‘레즈비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까닭도 있고, 심리 상태나 감정은 상담 받을 것이 못 된다고 평가하는 까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심리 상태가 되었든, 외적인 폭력 상황이 되었든, 나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되고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상담을 통해, 그 치유의 과정을 상담소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상담원의 고민들

상담원, 이럴 때 힘이 들어요.

1. 내담자의 고통은 곧 상담원의 우울.

매일같이 내담자들을 대하다 보면, 상담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상담을 요청해 올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느 사람과 전혀 바를 바

없이 감정의 기복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지요. 이렇듯 상담원도 내담자들과 마찬가지로 생활 속의 술한 희로애락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언제나 평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내담자를 대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담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울먹이는 내담자를 대하거나 심각한 폭력 사건이라도 접수 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되어 버립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내담자의 경험이 약해져 있는 상담원의 마음으로 고스란히 침투해서 위태로운 감정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죠. 꼭 약해져 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명의 레즈비언으로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담자의 절망과 공포를 접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기로 어려운 일일 터이니깐요.

하지만 그 ‘도망가고 싶은 심정’은 이내 ‘깊은 공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감정이 옮겨 가는 건 한 순간이죠. 이런 순간은 나의 도움이 내담자의 삶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삼 자각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청해 왔을 이들의 불안한 모습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면, 이제 상담원은 열정적으로 상담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담이 끝나면 소진됩니다. 이때, 재충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상담원들 간의 수퍼비전입니다. 각자의 과부하를 서로 서로 풀어주는 겁니다. 빙 둘러 앉아서 잘 한 건 잘했다 칭찬해주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언들을 주고받으며 다 같이 마음의 안정을 찾지요. 이런 과정은, 마음의 짐을 한 차례씩 털어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상담원들 스스로가 레즈비언으로서, 레즈비언 권리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자긍심을 다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 우리는 장난 전화에 분노합니다.

사실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서도 상담원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상담 요청들이 이따금씩 들어옵니다. 실제로 ‘상담 요청’이라기보다 상담원을 갖고 놀아보려는 심산으로 써내려간 장난 글들일 경우가 태반이지요. 레즈비언에 대한 성희롱을 담거나 자신의 가해 경험을 내세우듯 적어놓은 글들은 대부분 장난 글들입니다. 장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글에도 상담이 달릴지’, ‘상담원의 반응은 어떨지’ 등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면서 자기 혼자 재미있으려는 요량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글들과 마주하는 상담원들에게는 그야말로 맥이 풀리고 불쾌한 경험이 되죠. ‘이것들이 레즈비언을 뭘로 보나?!’ 싶어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두 주먹은 부르르. (‘이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용서하세요. 이해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한 번 훑어보고 말 수 있고, 답글이나 답장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찬찬히 고민할 시간이 있는 메일과 게시판 상담의 경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장난 전화가 참으로 큰 문제이죠. ‘상담원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저편으로부터 들려오는 남자의 신음소리는 정말이지 견디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멀쩡하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남자가 중반부에 갑자기 상담원의 성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조르면서 자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면, 두말할 것 없이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통화를 시작하고 몇 마디 나누기에 이를 무렵까지만 해도 내담자가 이러한 음란 전화를 걸어왔으리라고 단번에 알아채기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은 수없이 반복되죠.

우리들의 존재는 워낙에 '선정적'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음적인 판타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우리에게 꽂혀 오는 이런 시선들은 대단히 왜곡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선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시선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누군가의 관음적인 호기심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겪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할 내담자들로부터 말이지요. 목소리를 바꿔 가며 몇 년째 전화를 걸어오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남자의 패턴을 파악한 상담원들은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만 하면 수화기를 바로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모든 내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상담원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이 별이는 행각에까지 휘둘릴 필요는 없을 터이니깐요.

기껏 전화를 걸어 놓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돌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소의 전화번호를 눌렀으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는 순간 얼어버려 더 이상 입을 떼지 못하는 경우와 장난 전화일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상담원과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 두려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미처 꺼내놓지 못하고 마는 내담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 거기 상담소인가요?' 란 질문에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라 답을 하면, 떨리는 목소리로 '아.. 나중에 다시 걸게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전화를 끊는 내담자들 역시 부지기수이니깐요. 슬픈 일이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음침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경우도 다반사죠. 이건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진행형. 지금도 상담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3. 상담원은 내담자의 '일기장'이어야 하는 걸까요?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자신의 성정체성이나 자신이 짝사랑 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애인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이들이 상담원과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면, 상담원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의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일들에 대해 주변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유일한 사람인 상담원에게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털어놓고 자신의 감정을 격려 받고 싶을 터이니깐요. 이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는 상담원들은, 하루걸러 하루씩 자기 일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오거나, 상담 중 상담원에게 어떤 정답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내담자들을 대할 때면 일차적으로 안타

까운 마음부터 앞섭니다. 이들의 외로움과 갑갑함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상담원에게 이런 정도로 의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담자 본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상담원에게 기대 있는 상태에서는, 차분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고, 직접 판단하고, 자기 의지에 비추어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는 내담자들의 의존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상담원들의 의견을 같이 하게 되면, 내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빈도를 줄이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하게끔 말입니다. 내담자에게 이렇게 권할 때 중요한 것은, 상담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담자가 상담소에서마저 거절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터이니깐요.

4.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 데 방법이 없어요.

상담원으로서 무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기타 실질적인 방법 같은 게 전혀 없을 때 주로 그런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가령, 아무리 아우팅을 매개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는 내담자가 있어도, ‘아우팅을 시키겠다는 협박’이라는 것의 심각성을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한 현행법과 전혀 이쪽으로 감이 발달 안 돼 있는 일선 형사들 때문에, 이런 일은 입건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커밍아웃한 뒤 줄곧 폭행과 감금에 시달리고 있는 내담자가 있어도, 이 내담자를 빼 내서 쉬게 해 줄 수 있을만한 쉼터 같은 공간조차 없죠. 이러한 내담자에게 당장 집에서 뛰쳐나 오라는 권유를 쉽게 할 수 없는 것도 이런 까닭 때문입니다.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동성 커플이 헤어지면서 법적으로 돈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다고 상담을 청해오지만,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란 현재 불가능하기에 이 상황에서 상담원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죠.

‘너무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네요.’

예전에, 성매매의 사슬 속에서 끊임없이 강간과 폭행에 시달리던 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거의 두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던 한 상담원은 그 통화 이후 그 날 내내 울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내담자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말입니다. 고통을 호소해 오는 이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의 미안함과 초조함과 죄책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5. 기껏 상담해 주었지만 돌아오는 건 ‘변태’라는 욕 뿐이네요.

‘상담소’란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 활동하는 ‘상담원’들은 ‘당연히’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성정체성 문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에는 상담원들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고 편안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지인들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불안한 목소리로 ‘어떻게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지고, ‘딸이(혹은 조카가, 동생이, 언니가, 누나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 끔찍해서 참을 수가 없다.’면서 흐느끼는 이들입니다. 상담원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자기 딸이 동성애자가 아닐 거라고 말해 주길 기대하고, 동성애를 치료할 뾰족한 수를 제시해 주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적절히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들을 곁들이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생각났다는 듯 묻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그거.. 세요?’

이러한 질문에 상담원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고래고래 고품을 지르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십대 레즈비언 딸을 둔 나이 지긋한 어머니였죠. 이는 정성껏 상담을 해 드리고 모독당한 경우입니다. 그 분과 통화했던 상담원은 이후 두고두고 속상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상담원들의 마음도 한참 착잡했지요. 그 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6. 우리 단체에는 아직 상담 부스가 없어요. 쉽터 역시 필요해요. 핫라인도요.

좁은 월세 사무실에서 상담소를 운영해 나가다 보니, 따로 상담부스가 없어 번번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회의라도 하기 위해 모여 있던 다른 활동가들은 삼십분 가까이 숨죽이고 기다려야 하고, 그 시간대에 도착할 활동가가 있으면 언제 벨이 울릴까 이제나 저제나 해야 합니다. 외부 손님이라도 사무실에 와 있는 경우에는 상담 내용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곤란을 겪죠. 그 난리통에 상담을 해야 하는 상담원이 힘이 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다른 활동가들도 참 힘이 듭니다. 일전에 어떤 여성 단체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화 한 대당 상담 부스 하나가 배정돼 있었죠. 사무 공간과 상담 공간이 적절히 분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위기 상황에 있는 내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쉽터까지 바라는 건 바람 자체로 무리일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가출한 십대들, 협박하는 이들에게 쫓기는 사람들, 이들이 잠시나마 편히 쉴 곳을 우리는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여성전화 1366 같은 핫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간절하죠. 지역마다 레즈비언을 위한 핫라인이 개설돼 있고, 그 핫라인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정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고민 나눔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합니다.
레즈비언 권리 운동의 한 현장에서 이렇게 전해 드려요.

◎ 모 상담원이 정리한, ‘함께 생각해 봐요!’

1. 연애상담 어디까지?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 레즈비언들의 연애와 관련한 상담(관계상담)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기조로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

사례1) “고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상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담소 상담원들이 상담을 해주긴 어려운 것 같아요. 연애의 방식은 사람마다 저마다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00님도 스스로의 감정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마 가장 필요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

2. 우정, 사랑, 연애, 이별 등 관계와 관련한 상담에서 공정성의 문제

사람들은 누구나 특정 사안에 대해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특히 연애문제에 있어선 자신의 잘못이나 의사소통의 부재를 잊은 채 상대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세한 상황이나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 사실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하나, 마음에 상처를 입은 내담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나 갈등이 된다.

사례1) 감정적 동조(상대방에 대한 비판)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

“어쩌다가 제가 좋아하는 분과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술에 좀 취해 있었습디만, 그분도 절 좋아한다고 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했기에 딱히 저항하진 않았죠. (중략) 그런데 관계를 맺고 그분이 단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좋다고 제게는 미안하다며 떠나 버렸습디다.”

상담) “그 날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님이 좋아하는 분은 님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님이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한 것이죠. 그 분이 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도 님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믿으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 그리 성숙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배려해주지 않고,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만 행동한 것이니까요.”

사례2)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비방에 가깝다고 판단한 사례

“제가 회복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에게 웃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얼굴도 짜증나고 싫은걸요.”

상담) “상대방과 마주 웃어주어도 되는 순간이 오길 바란다는 얘긴 꼭 상대를 보고 웃어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슴 속에 아픈 상처로 담아두지 말고, 상처를 아물게 해서 더는 상대방으로 인해 마음 찢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미움이라는 감정도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상대방은 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도 자기 입장에서 나름대로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있겠지요. 사람의 마음이야 직접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엔 알 수 없으니까요. 나와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좋은 사람과 좀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소통과 신뢰와 정성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말이죠.”

3. 가치관 주입과 레즈비언 상담의 원칙

동성애 긍정의 가치관은 우리 단체 특징 상 반드시 언급이 돼야 한다. 물론 여기서 커밍아웃의 시기나 방법론에 대한 상담소 내부의 합의된 상담 테두리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연애의 가치관/ 관계 맺기의 가치관/ 섹스의 가치관 등은 각자의 몫이

아닐까. 순결 이데올로기나 성관계 공포, 양 다리 걸치는 애정관 등에 대해 얼마큼 지적하고 개입할 것인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를 이야기해주면 되는가. 보다 평등한 관계 상이나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 상에 근접하게 이끌어야 하는가.

또 기혼여성의 동성에 대한 사랑/ 부모의 애정과 독립에 있어서의 갈등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 얼마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가.

사례1) 연애와 관계 맺기의 가치관에 원론적(?) 개입

“솔직히 아직 그 언니한테 절 좋아하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어쩐지 그 언니가 절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왜 사귀자고 말 꺼냈냐구요.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랑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고 말이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궁금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상담 “그저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단 미래에 펼쳐질 두 사람 관계를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관계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만의 노력으로 연인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나갈 순 없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고 한다면, 스스로도 그냥 방관하는 자세를 가지면 곤란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00님이 그 선택에게 어느 정도는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고,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그 생각을 잘 표현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선택에게 00님이 원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 선택이 00님을 아끼고, 두 사람이 서로 좋은 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가 된다면, 그 땐 그 선택의 첫사랑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의심이나 불안은 종종 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또 만약 선택이 00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내게 별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옆에 있을 것인지, 이런 관계를 원한 게 아니니까 지속하지 않을 것인지, 결국 00님이 결정을 해야 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00님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혼자 가슴앓이 할 거면 굳이 사귀는 이유가 없잖아요? 옆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죠.”

사례2) 불평등한 관계 맺기에 대한 가치평가

“저는 30대 아줌마입니다. 잘 지내던 애인이 갑자기 언니 동생 아님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이를 전만해도 새벽에 내 생각나서 잠도 못잘 정도였다고 문자도 주던 아이가, 내가 자기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언니 동생으로 지내자고 하는지 너무 힘들고 원망스럽네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줘 놓곤 이렇게 자기는 발을 빼도 되는 건지. 난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인 그게 아니었는가 봅니다.”

상담 “상담소에서 보기엔 두 분의 관계가 그다지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은 일방적으로 관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관계 맺음은 두 사람 모두에게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죠. 참으로 어렵겠지만 감정을 정리할 때에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사례3) 성관계를 꺼려하는 내담자의 경우

“애인집에 다녀오고 나서 어디서든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시다. 죄책감인가요. 지금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애인 볼 때마다 미안하기만 합니다. 애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너무 미안해요. 이제 키스하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애인은 전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서로에게 뽀뽀도 제대로 못하고 쑥스러워 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때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걸까요? 큰 실수를 한 거 같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대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상담) “상담소에서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00님이 애인과 손을 잡거나 뽀뽀하는 것 외에 육체적인 접촉을 원치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기엔 아직 이른 시기라고 생각해서인지, 애인을 사랑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끌리지 않아서인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스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애인과 성적인 관계든 정서적인 관계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란 점에선 공통적이고요. 연애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섹스에 대한 생각에 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전달하고, 애인의 마음이나 생각은 어떤지도 차분히 들어보고,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소통해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성관계에 대해서도 거부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도 다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울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는 '관계'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인과 가진 육체적 접촉은 문제가 없어보여요. 애인이 원치 않는데도 육체적인 접근을 했다면 문제겠지만 서로 원하는 가운데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로 보인답니다. 물론 00님이 계속 마음 불편하다면 억지로 애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님에게도, 상대에게도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랍니다. 00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애인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례4) 기혼여성의 동성에 대한 사랑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매일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인지라 너무 먼 관계이고 친해질 방법도 없네요. 이제 한 한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러다 말겠죠? 조금 있으면 이런 감정쯤은 사라지게 될까요? 일상에 소홀해 지면서 그 사람만 생각하는 제가 너무 싫고 밉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여기다 글 올립니다. 제 글 소중히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 “00님, 잠시 타인의 시선이나 제도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나 함께 있을 때 좋은 마음, 안아주거나 안기고 싶다는 마음, 자꾸만 얼굴이 떠오르는 것, 이런 감정과 생각들은 상대방이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 소중한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게 좋아요. (중략- 성정체성에 대한 설명)

그러나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강요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과 원하는 것이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관계나 제도적인 부분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겠지요.

물론 00님의 상황이 그리 편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까, 이상해진 걸까 고민되실 거예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

드리자면, 감정이란 누구에게 향하든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죠.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끌리는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00님이 그 분과 만나서 이야기하길 원한다면 분명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급한 마음으로 가슴만 졸이는 것은 00님에게나 그 분과의 관계에나 도움될 것은 없겠죠. 00님, 일단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사례5) 가족관계와 독립에 대한 갈등

“저는 20대 후반의 레즈비언입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꼭 어머니와 분리해서 혼자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연인과 함께 살기 위한 전단계이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늦게 낳으셔서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혼자 둔다는 것도 맘에 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독립을 이야기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전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죽겠다고 강한 어조로 나오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머니를 두고 제가 너무나도 간절히 독립을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후에는 커밍아웃을 할까 고려중인데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께 입힐 상처도 걱정이고. 안 하자니 집에서 나오기 어려울 듯하고.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평생 잡혀 살긴 싫고. 고민입니다.”

상담 “님의 경우처럼 딸이 원하는 것과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상반된 경우엔 결국 어떤 하나는 포기하거나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 집을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딸은 너무도 간절히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면 두 사람의 기대 중에 어느 한 쪽은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어떤 선택이 더 행복한 선택인가,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님의 경우는 어머니가 홀로 계시기 때문에 좀더 힘들 것 같네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자신의 독립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뜻에 상관없이 집을 나와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사랑과 삶의 방식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부모와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기도 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까 하는 건 사람들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제언을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 답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님의 마음 속에 있을 거예요.

상담원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님이 자신의 상황과 어머니의 상황, 그리고 모녀의 관계, 독립했을 때 연인과의 관계나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연인과 함께 논의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지금의 삶이 힘들거나 답답해서 '빨리 나가야지'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세요. 연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보세요. 차분히 생각을 계속해 나가고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올 거예요.

00님, 사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해야 맞죠. 어머니가 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님이 진정으로 독립을 원한다면 결국 방법을 찾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충격과 어머니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후략 -커밍아웃 관련 상담 이어짐)”

4. 성관계 시 피가 나온다는 얘기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 정답은 안전하게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는 것이지만, 이런 일로 산부인과에 가야 할까? 안가고 말겠다고 할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의학관련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상담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 성관계와 관련한 상담을 의학상담 기관이나 병원 쪽으로 연계하는 것은 어떨지.

5. 상담원 개인에 대한 관심 보일 때

상담원은 가능한 내담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그러나 쉽지 않다), 무례한 발언을 하거나 상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담자의 경우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간혹 상담원의 친절함에 반해(?) 계속 상담을 요청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갑자기 상담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딱 잘라주어야 하는 선이 있을 것이다.

사례1) 일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내담자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오늘은 고민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절하신 상담원님들 생각이 나서 왔어요. 여기저기 치이고 신경 쓰고 피곤하고 짜증나다가도 여기 왔다가면 힘이 나네요. (후략)”

사례2)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내담자

“상담원님. 감사합니다. 상담원님은 직업이신가요? 괜히 사적인. 주위산만. 궁금증. 비가 오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팬시리 든든한 빵이 있는 거 같네요. 자격증에 관심 있으신가요? 전 요새 그러는데 능력 키우고 싶어서요. 전 사당동에 살아요. 가까이 살면요.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메일주세요. 막 이러구 횡설수설.”

상담 “아, 그리고 상담원에 대해서 여쭙어보셨는데, 레즈비언상담소 상담원은 직업은 아니고, 인권활동가들이랍니다. 상담원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상담할 때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감사의 인사를 들으니, 상담원으로서도 반갑고 기쁘네요.”

6. 자신의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취사 선택해서 상담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 때에 갈등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신 위주로 상황을 왜곡시켜 이야기하거나, 아예 거짓말을 하는 이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담원이 자세히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파악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 적절할까.

사례1) 후속 상담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

“안녕하세요. 4번째로 글을 올립니다. 3번에 걸쳐 글 올리면서도 전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후략)”

상담) “네 번째 상담신청글 잘 읽어보았어요. 이제까지 세 차례의 글들이 모두 내용이 달라서 조금 의아했는데, 이제 00님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네요. 00님이 왜 솔직하기 어려웠는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00님,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을수록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해야 상황을 개선해나갈 수 있답니다. 00님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고, 기분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담소에 다시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 00님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여긴 익명의 공간이니까 걱정말고 이야기를 풀어놓으세요. (후략)”

◎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명개 네트워크

명개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말을 건내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손을 덥씩 잡고 유쾌하게 흔들어 주고 싶네요!^.^

- 타인에게 처음 말을 걸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인사말을 건내지 않을꺼해요. 청명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서로가 눈을 마

주치는 순간 부터 타인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인지 말을 건넨다는 것, 그리고 인삿말을 한다는 것은 '관계맺기'의 첫 신호탄이란 생각이 들어요. '나'와 '너'를 알아 가고, 그래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상담을 시작하면서 부터는 개인적으로 '명개 귀는 당나귀 귀'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동성애' 관련 이슈만 나와도 천리이(千里耳)가 되어서 뿔아 뿔아 귀로 흘러드는 것을 보면 말이죠. 누구나 그러하듯, 사람은 눈길이 가는 것에 맘이 머물고 '관심'이 생기잖아요. 때문에 저 또한 어느 순간부터 나의 성정체성은 '사랑하는 대상의 성이 동일한 것'만을 의미하진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연애 상대'였다가, 나중에 '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까?'였다가, '그럼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로 발전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일상적인 삶 안에서 녹아들어 명개라는 네트워크의 거미줄 중 하나로 각 중심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레즈비어니즘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상담을 시작한지 겨우 4개월 차에 들어간 초보 활동가로서 '일상안에서 만나는 나의 레즈비언적 삶이란 것'은 무척 생소 했어요. 좀 우스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나의 성 정체성이란 것은 상담소의 문 안쪽에 있을 때 만, 혹은 동성애자 친구들을 만날 때, 그리고 호감가는 여성을 만날 때에만 발현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담 사례들을 접할 때 마다 어느 누구와 별 다를것 없는 내담자들이 그녀들의 흠그라운 안에서 일상 처럼 겪는 많은 고민들은 하나 같이 과거 나의 고민이었거나, 현재 나의 고민이고 미래에 내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경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전교생에게 아우팅을 당하고 집단 따돌림에 힘들어 하는 아이의 내담글을 볼땐, 과거 학창 시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숨죽여 울던 나의 모습이 투영 되었어요. 소위 결혼 적령기의 내담자가 주변에서 가해지는 결혼 압력에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글을 읽을 땐, 나는 앞으로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위와 같은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회가 볼 땐 비정상이고 비난 받아야 할 대상일지 모르지만, 이렇고 저런 정치적인 문제들을 떠나서 한명의 레즈비언인 나로서 나의 성정체성은 이미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앞에 너무나도 부합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때문에 일상다반사의 상담을 하면서 갈수록 더욱 더 간곡하게 들려오는 내부의 목소리는 나는 레즈비언이기 전에 여성이고 그 전에 인간 (레즈비언<여성<인간)이라는 오름 차순의 포함 관계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즉, 나는 너무나도 레즈비언적이고 여성적이며 인간적인 삼위일체의 명개라는 것이지요.

먼저 손을 내밀고 싶어요. 맞닿은 것이 다섯 손가락으로 감싸안은 손바닥(견고한 악수)이 아님을 슬퍼하기 보단 손가락 하나라도 고리 걸고 있는 - 그래서 '나'와 '너'를 알아 가고, 어느 순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명개가 되고 싶거든요.

저에게 상담은 그 '빌미'를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수면 아래 드러나지 않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그래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제공하고 다시금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관계의 빌미 말이에요.

청명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하고 다시금 인사를 건넬게요!

'나의' 존재가 인식 되었나요?

'우리'이제 관계맺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로에게 파이팅! 외쳐주기

원영

우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결코 가벼운 마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긴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저 상담이라는 생각으로 손을 움직입니다. 딸깍. 글이 열립니다.

“제가... 레즈비언이면 어떻게 하죠?”

‘그저’ 상담이라고 생각했던 잠깐이 미안해졌습니다. 내담자는 진심으로 겁내고 있었어요. 제게는 익숙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너무도 힘든 말입니다. 순간,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건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급하게 상담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면서, 언제나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거듭 다짐합니다.

몸이 다쳤을 때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마음도 다치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사실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응어리가 상처인 줄도 모르고, 힘든 것이 내 탓이라고만 생각하며 견디어냅니다. 상담 게시판에 글을 썼다가 지우고, 상담 전화를 걸어 놓고도 머뭇거리며 내담자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세요,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상담을 통해 용기를 얻는 건 내담자만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함께 속상해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서로가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파이팅을 외쳐 줍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끝까지 살아 봐요,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 주고 이야기

나누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겁부터 덜컥 났어요. 나와 함께 해주었던 다른 상담원들이 없었다면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상담을 하는 동안에 더 힘들고 슬픈 일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세상에서, 상담소가 작은 쉼터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요.

◎ 2005 활동가 집단상담

1. 상담소 전환 이후 첫 집단 상담

기간: 5월12일 - 7월14일

회기: 총 10회기

주제: 특정 주제 없음

참여자: 총 일곱명

집단 상담 리더: 루

2. 집단 상담 참여자들의 후기

너도, 아파하며 버티며 살고 있었구나...

스위트피

집단상담 ‘후기’라... 끼리끼리 활동 (앗, 지금은 상담소지^^;) 해 오면서 이런 류의 글쓰기를 해 본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후기라면 토론회 후기를 써본 적은 있지만. 아, 그리고 보니 집단상담 시작할 무렵에도 이런 말을 했었구나. “끼리 활동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걸 할 줄은 난 정말 몰랐어요.” 라고.

큽, 그런데 위의 문단을 보니 ‘이런’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썼네요. 도대체 ‘이런’게 어떤 거였냐구요? 음, 대역석이 둘러 앉아 ‘논리적’이거나 ‘반듯한’ 말 말고, 맘속에 두고 하지 못 했던 말 나누는 거였어요. 내 미니홈피에도 잘 쓰지 못 했던, 느낌의 말들을 나누었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회의 테이블에서 밖 세계 활동 얘기를 하던 사람들과 “서운해”, “많이 아팠겠다..”는 말들을 하는 것이요. 내 맘 속의 심정을 글로 끄적여 봤던 적도 별로 없던 나였거든요...

첫 시간엔 집단상담에 임하는 나의 목표를 세우고 나누었어요. 나는 “사람들의 여린 마음과 닿고 싶다”고 했었죠. 활동하며 만나는 사람들과는 약한 모습보단 씩씩한 모습들을 서로에게 보여줘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힘이 날 테니까요. 그래도 나는 사람들의 여린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나만 여린 게 아니구나, 확인하고 싶었구요. 또, 그럼 더 친밀해질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나는 참 예민한 사람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많이 무뎠어요. 그건 그렇게 예민하게 살다가는 미쳐버리지 내일을 버티며 살 수 없겠구나 해서, 현실을 꾸역꾸역이라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어느 순간 택해버린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인가 봐요. 나는 이제야 집단상담 때의 기억들을 곱씹으며 혼자 울고 그래요...

‘상처’라 ‘아픔’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덩 덩하게 얘기하는 사람, 웃으며 넘기는 사람. 눈물만 흘리는 사람, 크게 소리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부추겨도 화내지 못 하는 사람, 이런 상황이 적용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 여린 마음들을 나는 보았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나는 무뎠어요. 나는 여린 마음들을 봤을 뿐, 닿지는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럼 난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내 맘 저 깊은 곳에 두었던 슬픔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게 두려웠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때 같이 상담했던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뒤늦게 울기도 하구요. 지내면서, 술이라도 한 잔 하면서 건네 줄 얘기가 많네요. “너도, 아파하며 견디며 살고 있었구나.” ...

집단상담후기

찬영

몇 번이나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합니다. 집단상담 후기를 쓰는 것은, 집단상담에 참여해서 내 얘기를 하려고 입을 떼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써놓은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네요.

'명랑하고 착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깨는 일이 두려웠어요. 줄곧 내 자신이 언젠가 미쳐버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런 불안과 혼란을 치유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웃는 얼굴로 있음으로써 나를 평안하고 후덕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 했었죠. 또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남는 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덜 미움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어요. 나의 두려움들은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내 감정을 직시하지 않으면서, 나 스스로를 불행에 빠지게 한 채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내게 분노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감정에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집단상담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었어요. 그 과정을 집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집단원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게 했던 경험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나는 이 순간에 울어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는데, 집단원들은 함께 울어주거나 위로해주는 것과 동시에, 나를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해 화를 내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가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슬픔에 겨워 우는 것 말고도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피해버리고자 했지만 이미 내 안에서 다른 감각과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었지요.

나처럼 관계에 집착적이고 인간으로부터 쉽게 기뻐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마냥 웃는 얼굴로 꾸며대느라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 닿을 줄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만, 정작 나와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너한테는 벽이 있다'고 도로 멀어져간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차차 벽을 허물어가며 솔직한 나를 보여줄 테니 앞으로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괴로울 때가 있고, 솔직하거나 당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전히 내 감정이 무엇인지, 화를 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웃어버리고 싶은 건지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점차 나아지겠지요. 집단상담이 내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확 꺾여서 제멋대로 나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천천히 방향을 바꾸어서 진솔한 나에게로, 소중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게 집단을 이끌어준 루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집단이 끝나는 마지막 회기 때 내게 꼭 필요한 '먹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를 선물해주고 위로를 아끼지 않아준 A, 힘든 얘기들을 많이 꺼내 주었고 나의 고민을 더욱 깊고 진지하게 해주었으며 웬지 모르게 큰 힘이 되어주는 B, 진심을 다해서 잘 웃고 잘 울 줄 아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부러운 C, 다른 사람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지를 보내주는 D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또한 가장 힘들 때조

차 내가 '웃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 E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꼭 힘내서 드라이브의 약속을 지켜주길 기대합니다. 목요일에 한 회기의 집단을 하고 나면 그 여파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 일상 속에서 기운 잃지 않고 꾸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J와 EB에게 참 고맙습니다.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계속 해왔었던 내가 집단상담에 참여했듯이, 지금 자신을 아껴주지 못한 채 지쳐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분명 그녀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더욱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기

황보명

나오는 대로 말하다보면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놀랄 거예요, 당신도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집단을 하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끝까지 '나오는 대로 말하기'를 완전하게 실천할 순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가슴 묵직히 자리잡고 있어도 거르고 골라서 다듬어 말하게 되거든요, 자꾸만. 그건 느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픈 말이나 감정을 담아 두고 있으면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는 터지게 되거든요.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그것도 엉뚱한 상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생각했던 것만큼 나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유쾌하지만은 않았지만 분명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냥 3시간씩 10번 만나 얘기만 한다는 게 뭐 그리 큰 도움이 될까 의심했었는데 만나길 꺼려했던 내 새로운 모습을 만났고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고 나아가 몸에 익어 있던 해로운 습관을 고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도 많은 부분 깨졌고 특히 역할 놀이가 갖는 힘에 대해서도 몸으로 맘으로 직접 깨닫게 되었구요.

인간 관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역시 인간 관계 사이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집단이 갖는 힘이 큰 것 같아요. 화날 땐 화내고 울고플 땐 평평 울고 진심을 함께 나눠줘서 다들 고마워요. 더 많은 상담소 회원분들과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래요.

힘들었던 집단 상담

케이

남들 괴로운 일에 대해서는 낱알이 귀담아 듣고 최대한 섬세하게 도와주고 싶어하면서도, 정작 나의 일에 대해서만은 언제까지나 '그런 것쯤이야 문제없어' 하는 식의 태도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 것을 새삼 깨닫게 해 준 자리다보니 이 집단 상담이란 것은 제게 무섭고 싫고 피하고 싶은 공간이었고 말이지요.

나는 내 얘기를 하기 싫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거든요. 말

을 하기 시작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긴가 아닌가 헛갈려서 결국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일쑤였어요.

그렇다고 평소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부렁이라거나 한 건 아닙니다. 난 다만, 소소한 일상의 대화가 아닌 깊은 속내를 다루는 이야기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특히 나의 이야기가요. 타인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기꺼이 귀기울이고 공들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요. 오래도록, 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희한하죠.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토록 서투르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나 자신의 속내를 끊임없이 추슬러 가면서 해야하는 것이 상담일텐데요. 은밀한 욕구들, 해소되지 않는 공포심 같은 것들을 하나씩 찬찬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텐데요.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처음 해 본 것이지만, 이 집단 상담이란 것,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시치미 뚝 떼고 한 발짝 물러나 있고자 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하는 내내 내 마음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정신 못 차리고 헤맸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역설적이게도, '이것 참 사람들 이야기 꼬집어내는데 꽤나 괜찮은 방법이구나'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 말할 언어를 갖지 못했던 사람, 말하고 싶은지 아닌지조차 몰랐던 사람, 말했다가 낭패본 사람.....이런 사람들이, 이런 레즈비언들이, 집단 상담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쩌면 어렵게나마 입술을 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단 상담이라는 게 평소에 여간해서는 자신의 심연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도 끝내 거북살스러웠으면서도 그나마 이런 자리조차 없으면 어땠을까 싶었으니까요. 앞뒤 안 맞는 것 같지만 하여간 그랬습니다.

같이 했던 사람들과 집단을 이끌어준 루 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쓸까봐요.

후기
루

열번이라니,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이지만, 한 분 한 분을 만나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만나고, 또 다른 누군가와 닿기 위한 참 어렵고 치열한 순간 순간을 깊이 고민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다른 집단에서도 끝내 말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경험한 집단 안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당연해서 미처 말할 수 없기도 했어요. 또한 누구에게도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던 부분과 연결되어가기도 했죠.

—이야기 되었던 것과 이야기되지 못한 것들이 영켜 아쉽기도 하고 애뜻하기도 합니다. 그냥 누군가일 뿐이지만 동시에 레즈비언이기도 한 사람들의 온전한 경험들이 더 많은 곳에서 더 깊이 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여섯명이 조출히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더 많은 이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해요.

저는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같이 했던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소개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사회 레즈비언의
독자적인 권리 운동을 추구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 억압의 토대인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 레즈비언 대상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지원, 자긍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레즈비언 권리 운동, 레즈비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운동,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1994년 11월 <끼리끼리>의 발족을 시작으로 하여 레즈비언 인권운동은 10여 년간 진행되어 왔고, 최근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형성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레즈비언의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레즈비언을 향한 폭력은 더욱 거세지고,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도 심각합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는 레즈비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나 편견, 왜곡이 팽배한 것입니다.

레즈비언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동성애자로 이중의 억압에 처해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 커밍아웃과 아우팅의 문제, 독립의 문제, 교제의 문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레즈비언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은 너무나 많고 심각합니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개인의 레즈비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줄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레즈비언의 고민을 모아 레즈비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공간 역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레즈비언 상담소로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을 억압해온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 및 이에 근간한 제도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간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이메일상담, 면접상담, 내방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개개인 레즈비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레즈비언을 향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종식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상담팀 소개

안녕하세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입니다.

저희 상담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02-718-3542), 이 곳 상담하기 게시판, 이메일lsangdam@hanmail.net, 면접(전화,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등을 통해 상담을 원하는 레즈비언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즈비언들의 모든 고민과 갈등, 그리고 일상적으로 입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 사건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그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나 커밍아웃을 둘러싼 고민들,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친구 관계의 문제, 동성교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고민들, 종교 문제, 학교나 직장에서의 생활해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 등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상담합니다. 성과 관련된 각종 정보도 제공해 드리며 여러 다양한

레즈비언 커뮤니티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는 또한 동성, 이성간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피해, 아우팅 관련 범죄 피해, 혐오범죄 피해 및 각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상담소>의 사건지원팀 및 <대성소수자범죄사건지원을위한여성연대>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담팀은 직접적인 개인 상담 이외에도 집단상담, 가족상담, 치유 프로그램,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원 교육을 통해 레즈비언 상담원을 양성하고 과정을 이수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소>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역시 개발 중입니다. 상담 매뉴얼 작성 및 월별 통계를 통한 상담 현황 파악도 물론 상담팀의 몫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의 활동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0여년 <끼리끼리>의 역사가 무색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담 안내

"여자가 좋다. 나 이래도 되는 건가..."

"난 언제쯤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나 있을까. 답답하다."

"애인과 나, 둘이 함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외롭다. 우리 관계를 아는 건 우리 뿐. 의지할 사람이 상대방 뿐이라 싸움도 잦아진다. 힘들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애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날 피해 다닌다...이런."

"모태신앙인데...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게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 어떻게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

상담소에서는 성정체성, 커밍아웃 등에 대한 고민, 가족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갈등, 커플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차별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아우팅 및 혐오 범죄 피해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 성과 건강에 대한 지식, 커뮤니티 정보 등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여러가지 상담 경로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택해 이용해 주시면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해 주세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을게요. ^ _ ^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www.lsgangdam.org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홈페이지 www.lsgangdam.org로 오시면 '상담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의 맨 아래에 붙어있는 '상담게시판'을 클릭하시면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나타나죠. 기본적으로는 공개 게시판이지만 비공개 게시를 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금장치를 달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써서 올려주시면 상담원들이 만 하루 이내에 답변 글을 달아 드립니다. 주말이나 연휴에는 답변이 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용 이메일을 통한 상담 lsangdam@hanmail.net

이메일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 전용 이메일 lsangdam@hanmail.net으로 메일을 주세요. 메일 상담을 전달하고 있는 상담원들이 역시 만 하루 이내에 답 메일을 보내드려요. 게시판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전화 걸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상담 방법이에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주말이나 연휴에는 답변이 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용 라인을 통한 전화 상담 02)718-3542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 전용 라인은 (02)718-3542예요. 상담전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려 있어 그 시간대 안에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상담원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당장 대화를 통해 풀고 싶을 때,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를 내어 전화를 주세요.

면접 상담

면접 상담 신청은, 상담게시판, 상담 이메일, 상담전화 등으로 받아요. 면접상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로 저희 상담소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요. 면접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원과 연락을 취해 면접상담 약속을 잡으시면 돼요. 그런 뒤 면접 당일엔 다시 연락을 주시면 그 때 사무실 위치를 알려 드립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누구나 오셨을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찾아주세요.

회원 가입 안내

Ⅱ 일반회원

정회원 |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정회원이 되려면 사무실을 방문해 회원가입 한 후 월 1만원 이상의 후원을 하고, 소정의 신입회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회원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각종 회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사에 따라 소식지 및 발간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은 단체의 총회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소모임을 조직하거나 활동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와 영상 등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 |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가입한 회원 중 신입회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분입니다. 준회원 역시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각종 회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사에 따라 소식지 및 발간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와 영상 등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습니다.

|| 활동회원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활동회원은 각 사업팀의 팀원과 팀장, 사무국장과 대표를 칭합니다. 활동회원은 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정회원으로 구성됩니다.

|| 회원 가입 안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사무실로 전화 → 사무실 직접 방문 → 회원가입서 작성 → 월 1만원 이상의 후원 → 신입회원 세미나 이수(선택 2회, 필수 1회)

상근시간 | 월~금, 오후1시부터 11시까지

사무전화 | 02) 703-3542

이메일 | lsangdam@lsangdam.org

후원 안내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회원들의 회비와 레즈비언 인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 안내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후원회원은 성 정체성과 무관하게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정기적인 후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소식지 및 발간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근시간 |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무전화 | 02) 703-3542

이메일 | lsangdam@lsangdam.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98101-01-114263 (예금주:이진화)

조흥은행 333-04-833266 (예금주:이진화)

우리은행 1002-329-844347 (예금주:이진화)

농협은행 079-12-806362 (예금주:이진화)

외환은행 630-004684-742 (예금주:한국레즈비언상담소)

우체국 010041-01-030671 (예금주:한국레즈비언상담소)

문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전화: (사무)02-703-3542, (상담)02-718-3542

팩스: 02-703-3543

이메일: lsangdam@lsangdam.org

홈페이지: <http://Lsangdam.org>

부록 1.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6년도 상담카드

1.카드 정보

일련번호: 06(안)- (월)- (일)- (차)	고유번호: ()차	상담원:
상담방법: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게시판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일시: 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소요시간:

2. 내담자 정보

이름	닉네임: _____, 실명: _____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성 <input type="checkbox"/> F to M 트랜스젠더 <input type="checkbox"/> M to F 트랜스젠더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정체성	<input type="checkbox"/> 레즈비언 <input type="checkbox"/> 게이 <input type="checkbox"/> 양성애자 <input type="checkbox"/> 이성애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예: 고민 중)		
나이	()세 *비고 <input type="checkbox"/> 10대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50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업:	지역:	혼인여부: <input type="checkbox"/> 비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이혼	
연락처	전화번호: _____, E-Mail주소: _____		

*** 대리내담자(있을 경우)**

이름	닉네임: _____, 실명: _____		
내담자와의 관계:	지역: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성 (<input type="checkbox"/> F to M 트랜스젠더 <input type="checkbox"/> M to F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input type="checkbox"/> 레즈비언 <input type="checkbox"/> 게이 <input type="checkbox"/> 양성애자 <input type="checkbox"/> 이성애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예: 고민 중)		
나이	()세 *비고 <input type="checkbox"/> 10대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50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전화번호: _____, E-Mail주소: _____		

3. 내담자 상태

정체화: <input type="checkbox"/> 한 상태 <input type="checkbox"/> 안 한/못 한 상태	(정체화한 경우) 커밍아웃: <input type="checkbox"/> 안함 / <input type="checkbox"/> 함 (대상·복수 표기 가능: <input type="checkbox"/> 자매형제 <input type="checkbox"/> 친구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레즈비언 커뮤니티 <input type="checkbox"/> 기타)	레즈비언커뮤니티경험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4. 상담 종류(복수 표기 가능)

<input type="checkbox"/> 성정체성	<input type="checkbox"/> 커밍아웃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친구관계	<input type="checkbox"/> 교제	<input type="checkbox"/> 고백	<input type="checkbox"/> 짝사랑	<input type="checkbox"/> 이별
<input type="checkbox"/> 종교 (비고: <input type="checkbox"/> 기독교 <input type="checkbox"/> 불교 <input type="checkbox"/> 천주교 <input type="checkbox"/> 이슬람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종교 <input type="checkbox"/> 무교)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비고: <input type="checkbox"/> 동성간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이성간성폭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존 가족 내의 폭력				<input type="checkbox"/> 교제 관계 내의 폭력 (비고: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 <input type="checkbox"/> 데이트 폭력)			
<input type="checkbox"/> 스토킹	<input type="checkbox"/> 아우팅 (비고: <input type="checkbox"/> 교외적 아우팅 <input type="checkbox"/> 무교외적 아우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폭력 (비고: <input type="checkbox"/> 사기 <input type="checkbox"/> 금품 갈취 <input type="checkbox"/> 명예 훼손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아우팅매개범죄 (비고: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금품갈취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성소수자 당사자의)가출 혹은 실종			
<input type="checkbox"/> 혐오범죄 (비고: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폭언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혐오상징물게시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따돌림 <input type="checkbox"/> 괴롭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차별사례 (비고: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노동 <input type="checkbox"/> 형사절차 <input type="checkbox"/> 법/제도 <input type="checkbox"/> 재화/용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성(性)		<input type="checkbox"/> 우울증		<input type="checkbox"/> 섭식장애		<input type="checkbox"/> 관련정보문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5. 상담소를 알게 된 경로: 인터넷 신문 및 잡지 지인 소개 기타

상담일지

일련번호: 06(연)- (월)- (일)- (차)	고유번호: ()차	상담원:
상담방법: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게시판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일시: 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소요시간:

내담내용
상담내용
후속 조치
기타

* 부록2.

한국레즈비언상담소(전<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연혁

[1994년]

11월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모임 끼리끼리> 발족

12월 소식지 발간 시작

[1995년]

- 06월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약칭 동인협) 발족 및 출범 기자회견
- 08월 동인협 주최 여름인권학교 1회
대만개최 제3회 ALN(Asian Lesbian Network 참가)

[1996년]

- 01월 레즈비언 매거진 <또다른 세상> 창간
- 05월 레즈비언 카페 "레스보스" 마포에 오픈
- 08월 동인협 주최 여름인권학교 2회
한겨레 21 항의방문과 반박문 게재(동인협)
- 12월 끼리끼리와 레스보스가 연예영화신문을 언론중재위에 고소

[1997년]

- 01월 연예영화신문 보도정정문 게재
- 06월 교과서 개정관련 집회(파고다공원)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 동성애자 단체 오커(Occur) 지지 시위 (동인협)
동승시네마텍 앞 해피투게더 공운심의 항의시위
- 07월 찾아가는 동성애 바로 알기 강의 시작
- 08월 여름인권학교 3회
아스트리아(Astraea Foundation, Inc)로부터 500만원 후원금 받음
- 09월 레즈비언과 페미니스트들과의 만남 주최 (고마)
- 12월 대선후보에게 공개 질의서 (국민회의에서만 답신 음)

[1998년]

- 06월 <한국동성애자 단체 협의회> 출범(한동협)
- 10월 한겨레신문 일본만화와 동성애에 관해 항의서한
"구성애의 아우성" 에 항의서한
- 11월 홈페이지 개설
- 12월 출판팀 단행본 <레스보스, 그 섬으로의 여행> 발간
필리핀개최 제4회 ALN 참가

[1999년]

- 01월 레즈비언 전문 출판사 설립, [도서출판 또다른 세상] 출판사 등록
- 05월 IGLHRC (International Gay Lesbian Human Right Commission)으로부터 필리파드 수자상(Felipa de Souza Award) 수상
- 10월 세계 NGO 대회 참가
웹진 ttose 창간 (또다른 세상, 웹진으로 변환)

[2000년]

- 07월 <한국여성이반커뮤니티센터 끼리끼리>로 위상 전환

[2001년]

- 01월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로 위상 전환

- 02월 ‘밝히는 영화’ 제 1 탄 상영회
- 03월 3.8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참가
- 06월 ‘여성성적소수자 커뮤니티 안의 성폭력 해결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 08월 ‘제3회 이반청소년 인권학교’ 참가
여성이반 인권캠프 2001 ‘다르게 춤추기’ 개최
- 11월 ‘여성이반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2002년]

- 01월 경향신문사 GOODDAY 1월9일자 1면 '나, 레즈비언. 여자프로농구 용병 4명 충격' 기사에 대한 정정, 사과보도 요청
- 07월 반성폭력 네트워크 사이트 개설 (<http://www.kirikiri.org/network/>)
ICA 'Online Censorship' 패널로 참석
<한국동성애자연합> 발족
- 08월 <안전지대>와 함께 하는 활동가 캠프 개최
- 10월 한국동성애자연합 MT 공동개최 및 참가(한국동성애자연합)
무지개2003 정식 출범 총회 공동개최 및 참가
차단 소프트웨어 '수호천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에 제소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의 공식사과 요구서 발송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에 요구서 재발송
- 11월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을 환영하며' 성명서 발표(한국동성애자연합)
2002 전국 인권 활동가 대회 공동주최 및 참가(한국동성애자연합)
- 12월 2002 정기총회 및 끼리끼리 8주년 기념행사 개최

[2003년]

- 01월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서 발송
- 0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강숙자와 한국여성학회 '여성권의 걸림돌' 추천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의견서 전달 (한국동성애자연합)
'아웃팅 방지 캠페인' 개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입장 제출 요구서 발송
- 03월 '3.8 여성 무지개 시위' 공동주최(다름으로답은여성연대)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3월 포럼 개최 및 참가(한국동성애자연합)
- 04월 '국가인권위의 청소년유해매체 시행기준 '동성애' 삭제권고를 환영한다' 성명서 발표
'동성애자 죽이기'에 나선 국민일보를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국민일보는 동성애혐오적 기사와 칼럼에 대해 각성하고 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4월 25일까지 지면에 발표하라' 성명서 발표(한국동성애자연합)
- 06월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촉구! 동성애자들 입장' 성명서 발표(한국동성애자연합)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현대 집회 공동주최 및 참가(한국동성애자연합)
인권교육활동가 워크샵 공동주최 및 참가(한국동성애자연합)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3 퍼레이드 참가
"스톤월항쟁 33주기 기념 토론회"를 비판한다" 성명서 발표(다름으로답은여성연대)
"노동해방 없는 동성애자 해방 없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각성하라' 성명서 발표
- 07월 다름으로답은여성연대 활동가 워크샵 공동주최 및 참가

- 부산/대구/서울 이반 활동가 캠프 공동주최 및 참가
- 08월 제6회 청소년 인권 학교 공동주최
- 09월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갖기 프로그램』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10회 특강 개설
ICWOW 자문회의(말레이시아)
- 10월 '제2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공동주최 및 참가(한국동성애자연합)
- 11월 <다름으로답은여성연대> 1차 세미나 개최
새 민법개정안의 '가족' 규정 삭제 요구 성명서 발표
- 12월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처' 성명서 발표(한국동성애자연합)

[2004년]

- 01월 '수원교구 주보의 호모포비아를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청소년 인권학교내 성폭력 사건에 관한 '6회 청소년 인권학교에 부처' 성명서 발표
'동성애와 에이즈에 관한 왜곡보도, 한겨레 신문을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다름으로답은여성연대 4차 세미나 개최
동성애자단체 HIV/AIDS 감염인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 02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동성애' 조항 삭제를 적극 환영한다!' 성명서 발표
여성무지개 시위 깜짝 홍보 (다름으로답은여성연대)
- 03월 무지개 포럼 개최
무지개 시위 2004 공동개최 (다름으로답은여성연대)
- 04월 전국인권활동가대회 4월 포럼 "교육과 차별" 공동주최 (한국동성애자연합)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 정책 공약을 환영합니다' 성명서 발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의 '동성애' 조항 삭제를 환영한다' 성명서 발표
- 05월 '서동진 씨의 커밍아웃 발언을 비판한다' 성명서 발표
전국인권활동가대회 5월 반차별 포럼 "형사사법절차와 인권" 공동주최 (한국동성애자연합)
- 06월 전국인권활동가대회 6월 반차별 포럼 "가족과 차별" 공동주최 (한국동성애자연합)
베이징 + 10 여성정책평가 패널 참가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워크숍 패널 참가
인권교육네트워크 워크숍 "성정체성" 공동주최(한국동성애자연합)
- 07월 "동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를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 08월 <2004 끼리끼리 상담사례집> 발간
청소년 여성 이반 성교육 프로그램 3회 개최
여성성소수자 활동가 캠프 공동주최
<다름으로답은여성연대> 활동가캠프 공동주최
- 09월 각종 여성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지원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
'대동성애사건지원팀' 결성
"청소년 레즈비언 대상 아웃팅 협박 범죄 가해자의 구속에 부처" 성명서 발표
- 10월 프랑스 인권상 공모
제1차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연대(가칭) 회의 개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대동성애자 범죄' 간담회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에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 신청

- 11월 정정훈 변호사님(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소속)의 우리단체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사업" 시작
 여성이반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반성폭력네트워크 3년의 성과와 전망' 개최
 끼리끼리 10주년 기념 토론회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의 어제, 오늘, 내일' 개최
 끼리끼리 10주년 기념 후원 파티 '우리가 궁금하니? (하세요?)' 개최
- 12월 동성애바로알기 강의를 위한 강사팀 결성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활동가 2인 결합

[2005년]

- 01월 제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여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지지 성명 발표 (4개여성성적소수자단체연대체)
 4개여성성적소수자단체연대체(가칭) 회의
 4개여성성적소수자단체연대체에서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준)으로 변경
 성소수자대상범죄사건지원을위한여성연대(준) 결성
 끼리끼리 향후 10년 방향 모색 회의 개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주최 '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1적제냐? 새로운 신분 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심사위원회 사업심사위원 추천
- 02월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가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주최 '커밍아웃의 정치학, 아우팅의 윤리' 토론회 발제
 '인권영화제' 10대 레즈비언 인권 다큐멘터리 기획 참여
- 03월 "성적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부산광역시여성센터>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하며" 성명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공모
- 04월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단체 전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평가회의 참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주최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참석
 상담원 교육 및 모니터링 평가 진행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진행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주최 "레즈비언은 성적소수자인가" 토론회 패널로 참여
- 05월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발족
 상담원간 집단상담 시작 (5.12~7.14 총 10회)
 포탈사이트의 동성애자 권리침해 시정 요구 공문 발송 ('동성애', '이반' 키워드의 금칙어 및 성인인증 해제 요구)
 산부인과 면담 (상담팀-상담소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계병원 모색의 일환)
 인권영화제 <이반검열> 시사회 참석 및 관객과의 대화 참여
 <아름다운재단> NGO 대상 IT기자재 지원 공모
 10대 레즈비언들이 겪는 학교 내 차별사례 모집 시작
 (<http://www.lsangdam.org/skillu/schoolkillus.htm>)
- 06월 '퀴어문화축제' 참가

포탈사이트의 동성애자 권리침해 시정 조치 수용되어 ‘동성애’, ‘이반’ 키워드의 금칙어 및 성인인증 해제됨

<한겨레21 “나,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기사(2005년 6월 7일자 제562호)의 왜곡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입장서 발표

홍콩인 레즈비언 인권활동가 면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개최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수요 실태조사 보고서”의 발표 및 공익단체와의 간담회 참석

<인권활동가대회준비포럼 "수다" :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나>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실태 파악 및 차별기획 조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

07월 <제1회 레즈비언 여름학교> 개강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발족

<아름다운재단> “이빠진 동그라미” 기금 당첨 (컴퓨터1+ 복사기1=1,900,000)

“MBC 뉴스투데이 허위보도 비판자료집” 배포

레즈비언 커뮤니티 대상 “MBC 측에 우리의 힘을 보여줍니다!” 캠페인 진행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동성애 혐오 조장하고 청소년 동성애자를 버랑 끝으로 내몬 MBC의 반인권적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발표

<MBC10대이반관련허위보도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 참여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지침’ 제안서 배포 (보도자료 및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청량리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 제안서 전달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시민·성소수자 단체 기자 회견 개최

“MBC는 뉴스투데이 ‘이반 문화 확산’ 보도가 반인권적이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공동성명 발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

<지역 레즈비언과의 만남 프로젝트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부산> 개최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08월 홈페이지 [자주묻는질문] 코너에 “레즈비언의 건강한 성” 파트 게시

<지역 레즈비언과의 만남 프로젝트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대구> 개최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지역 레즈비언과의 만남 프로젝트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대전> 개최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서울소재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동성애 바로알기' 강좌 공문 발송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L양장점> 첫 방송에 축하멘트 보냄

마포 경찰서 청문감사실 방문하여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 제안서 전달

<지역 레즈비언과의 만남 프로젝트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광주> 개최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09월 보건복지부의 ‘부내 미혼 남녀 데이팅 서비스 지원’에 대한 항의 성명 “복지부는 중매

쟁이 노릇을 그만두라” 발표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지역 레즈비언과의 만남 프로젝트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서울: "이반, 어른들은 모르는 이야기"> 개최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국가인권위원회에 MBC <뉴스투데이> 10대이반 관련 허위보도 진정 (MBC뉴스투데이 10대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역 레즈비언과의 만남 프로젝트 : 지금 만나러 갑니다> 평가회의 진행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레즈비언의 가족-지인 상담” 홍보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참여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10월 상담을 위한 정보망 구축(mapping)

공동성명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발표

“올바른 이반 커뮤니티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진행

마포경찰서 청문감사실 방문 시 청문감사관의 성소수자인권 의식 없고 무례한 태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항의 및 인권교육 요구 공문 발송

‘MBC <뉴스투데이> 10대이반 관련 허위보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됨 (MBC뉴스투데이 10대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레즈비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세미나 진행 (인권정책팀, ‘호모포비아 어록’ 제작의 진행과정)

첫 번째 상담원 간 그룹 슈퍼바이징 진행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실무자와 면담 (사건지원팀, 성소수자 관련 범죄사건 처리 관련)

11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김지명 경위님과 면담 및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 제안서 전달 (사건지원팀)

<레즈비언권리연구소>의 제안으로 "한국 레즈비언 권리운동의 평가와 전망" 좌담회 참여

공동성명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발표

<2005년 인권활동가 국제회의> 참석

경기 경찰청 김지명 경위에게 인권교육강사 명단 공문 발송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마포경찰서) 해당 청문감사관에게 징계 내릴 것이며, 인권교육실시는 수사과에 요구하라고 답변 옴

12월 한국 레즈비언 권리운동 11주년 자축 웹자보 홍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차별금지법시안'에 대한 인권단체 간담회 참석

'차별금지법시안' 관련 성소수자단체 간 회의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실에 ‘동성애 바로알기’ 인권교육강사명단 전달 (강사팀)

"200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사업 평가" 진행 (인권교육네트워크)

민주노동당이 개최한 “성소수자 정치토론회” 참여 (발제: 김윤서이)

[2006년]

01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6 정기총회 개최

신입회원세미나(1차: 나의 인생곡선 그리기, 2차: 한국레즈비언인권운동, 3차: 반성폭력) 진행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고시절 감상만으론 부족해" 기고 (김김찬영)
 <월간 사람> "피해 의식은 우리의 힘" 기고 (김윤서이)
 <MBC 아주 특별한 아침> 인터뷰
 <KBS 뉴스타임> "여자의 아침 - 청소년 동성애자, 설 곳이 없다" 목소리 출연 (김윤서이)
 <제4회 인권활동가대회> 진행 및 참여
 <인권교육네트워크> 2005년 평가회의 참석
 <목적별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정기 회의 참석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 간담회> 참석
 <2006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지원
 <2006 제4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 관련 의견서 1차 제출 (한국레즈비언권리연대)
 새로운 후원 창구로서 네이버 "해피로그"(town.cyworld.com/lsangdam), 싸이월드 "타운홈피"(happylog.naver.com/lsangdam) 개설
 <CBS>와 성소수자 사건 지원과 관련한 인터뷰
- 02월 <제2회 레즈비언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개최
 "십대 이반 만나기" 정기사업 시작 (상담팀, 인권정책팀)
 Daum Cafe로 회원커뮤니티 이전
 <한국NGO신문> "손잡으면 징계하는 학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청소년 동성애자들" 기고 (현이유빈)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에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 신청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준)> 참여
 <한국동성애자연합> 해소
 <한국여성민우회>"동성애 바로 알기" 강의 (현이유빈)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공동성명 발표
 <동아일보>와 레즈비언 권리에 관한 인터뷰
- 03월 <3.8 세계 여성의 날> 축하 웹자보 제작 및 홍보
 "십대 이반 만나기" 진행 (상담팀, 인권정책팀)
 <고양여성민우회> "동성애 바로보기" 강의 (김윤서이)
 <인권교육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수다마당> 진행 및 참여
 <이대대학원신문> "다시금 주변으로 내몰리는 레즈비언 -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비판하며" 기고 (김윤서이)
 <서울대학교 이공대 저널> "레즈비언, 이성애자 가족 부양의 짐을 져야 하나?" 기고 (김윤서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 관련 의견서 2차 제출 (한국레즈비언권리연대)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설명회" 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컴퓨터 기증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추행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
 "효웅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공동성명 발표
 "허울뿐인 인권국가에 분노한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를 즉각 석방하라!" 공동성

명 발표

- <조선일보>와 동성애 영화 관련 인터뷰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십대 이반 관련 인터뷰
- <건대 신문사>와 레즈비언 권리 관련 인터뷰
- <BAZAAR>와 레즈비언 문화 관련 인터뷰
- <성신 학보>와 레즈비언 권리 관련 인터뷰

04월 신입회원세미나(1차: 나의 인생곡선 그리기, 2차: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의 역사, 3차: 반성폭력+인권감수성) 진행

- 회원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하루> "영화 SAVING FACE 감상"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공모 「2006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레즈비언 문화제(가칭)" 선정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 <십대이반 관련 청소년쉼터 활동가 인식조사> 설문지 발송
- 여성/청소년 상담기관의 동성애 상담사례 모니터링 시작 (인권정책팀)
-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성상담전문가워크숍, "동성애 상담 바로알기" 강의 (김김찬영)
- 故 옥우당, 오세인 추모의 밤 <내 혼은 꽃비 되어> 참가 및 지지 발언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참여 (한국레즈비언권리연대)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
- <인권교육네트워크> 회의 참석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일상적 자살에서 해방된 세상을" 기고 (선우유리)
- <부대신문> "누가 레즈비언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 기고 (김김찬영)
- <서울대저널>과 레즈비언 권리 관련 인터뷰
- <서울여대 웹진>과 레즈비언 권리 관련 인터뷰